

# 국내외 북큐레이션 현황과 독서활성화 방안

- 영유아·어린이·양육자 독서활성화 제안 -

2022. 10.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연구기관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 연구진

책임연구자 박소희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늘푸른어린이도서관장  
연구자 임수진 한국전통문화대학 학술정보관 사서  
연구자 김성란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담작은도서관장  
연구보조원 김혜령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간사

## 제출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국내외 북큐레이션 현황과 독서활성화 방안』에 관한 최종보고서로서 제출합니다.

2022년 10월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대표 백영숙

## 국내외 북큐레이션 운영과 독서활성화 방안

발행일 2022년 10월  
발행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중동로 63  
T. 063-219-2700 F. 063-219-2719  
연구기관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이며, 본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목차

연구 요약	viii	(5) 유아교육 누리과정 기반의 북큐레이션과 독서프로그램	64
<b>1. 연구 개요</b>		(6) 도서관/서점/기업의 북큐레이션 서비스	71
1) 연구 배경 및 목적	01	(7) 그림책 기반의 책 읽기 활동	79
2) 연구 내용	01	(8) 어린이책 선정 자료	82
3) 연구 방법	03		
(1) 문헌 및 자료 조사	03	<b>3. 북큐레이션을 기반으로 한 독서활성화 사업 제안</b>	
(2) 현장 탐방 및 전문가 인터뷰	04	1) 제안 1   도서 선정 기반의 책 선물을 통한 독서 운동	88
		2) 제안 2   양육자의 참여 이끌어내기	91
<b>2. 북큐레이션 이해와 국내외 북큐레이션 현황</b>		3) 제안 3   아동기관 지원과 협업	99
1) 북큐레이션 이해	07	4) 제안 4   다양한 컬렉션과 책 선정을 위한 도구	102
(1) 북큐레이션 정의	07	5) 제안 5   영유아·어린이를 위한 큐레이션 서비스	104
(2) 북큐레이션 운영 요소	09		
(3) 북큐레이션 교육 및 북큐레이터 양성과정	09	<b>4. 시사점 및 제언</b>	
(4) 북큐레이션 관련 문헌조사	10	1) 시사점	107
2) 해외 북큐레이션 현황과 독서활동	13	(1)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컬렉션 개발 및 주제 큐레이션 서비스	108
(1) 도서 선정 기반의 책 선물을 통한 독서 운동	13	(2) 독서에 대한 모든 것: 온라인 독서 플랫폼 구축	110
(2) 부모의 참여 이끌어내기	20	(3) 독서활성화를 위한 지역독서문화 조성	112
(3) 아동기관 지원과 협업	21		
(4) 다양한 컬렉션과 책 선정을 위한 도구	24	2) 제언	114
(5) 어린이를 위한 큐레이션 서비스 현황	34		
3) 국내 북큐레이션 현황과 독서활동	43		
(1) 도서 선정 기반의 책 선물을 통한 독서 운동	43		
(2) 양육자(부모, 교사 등)의 참여 이끌어내기	48		
(3)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를 위한 읽기 자료 개발	53	참고문헌	117
(4) 사회 이슈를 담은 다양한 관점의 북컬렉션 개발과 책 읽기 지원	58		

## 표 목차

〈표 1-1〉 현장 탐방 및 전문가 인터뷰	05
〈표 2-1〉 2019 누리과정 의사소통 영역 목표	10
〈표 2-2〉 Novelist-Appeal Factor: 독자의 책 선택을 위한 검색 옵션	37
〈표 2-3〉 유치원 어린이를 위한 추천 목록의 범주	40
〈표 2-4〉 2018~2022년 북스타트 선정 자료 현황	45
〈표 2-5〉 나다움 어린이책 핵심가치와 도서 선정을 위한 질문	59
〈표 2-6〉 2020년 북큐레이션 주제	63
〈표 2-7〉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에서의 의사소통영역의 목표 및 내용	65
〈표 2-8〉 아이잉 TV 도서 추천 전문가 구성	70
〈표 2-9〉 우따따의 콘텐츠 선정 기준	71
〈표 2-10〉 어린이책방 현황	74
〈표 2-11〉 부산시 공공도서관의 북큐레이션	75
〈표 2-12〉 AI 도서추천시스템의 7가지 질문	78
〈표 2-13〉 그림책으로 마음을 토닥토닥 독서동아리(6기와 8기)에서 읽은 주제 컬렉션	81
〈표 3 -1〉 북큐레이션을 활용한 독서활성화 사례	95

## 그림 목차

〈그림 2-1〉 페이지 가방	19
〈그림 2-2〉 플랑드르 지역 보육시설의 독서 환경	24
〈그림 2-3〉 Autism Spextrum Collection 구성	26
〈그림 2-4〉 Literacy Central: Find A Book 메뉴	32
〈그림 2-5〉 Divers Book Finder: 컬렉션 분석 도구	33
〈그림 2-6〉 미국 공공도서관 어린이 페이지	35
〈그림 2-7〉 시카고 공공도서관 어린이 페이지 신간 및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 큐레이션	35
〈그림 2-8〉 Novelist K-8 Plus: 어린이책 추천을 위한 스토리 요소	38
〈그림 2-9〉 책찾기 Boekenzoeker.be: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책 추천 사이트 메인 페이지	42
〈그림 2-10〉 1000책읽기 홈페이지	49
〈그림 2-11〉 도서관과 함께 1000책읽기 서가 모습	52
〈그림 2-12〉 도서관에서 인형들에게 책 읽어주는 모습	54
〈그림 2-13〉 친구야, 나한테 책 읽어줄래? 책꾸러미 사진 및 이용 모습	56
〈그림 2-14〉 피치마켓 (PEACH MARKET) 홈페이지	57
〈그림 2-15〉 두루책방 홈페이지	58
〈그림 2-16〉 그림책, 문화다양성 추천목록집 본문	62
〈그림 2-17〉 2020~2022년 책드림 꿈드림 도서목록집 및 독서교육워크숍 자료집	64
〈그림 2-18〉 이야기보따리 꾸러미와 서가 모습	67
〈그림 2-19〉 웃는책 컬렉션 서가	72
〈그림 2-20〉 2020년 전국 그림책 책방 지도	75
〈그림 2-21〉 제3회 WEE 그림책어워드 투표 결과	80
〈그림 2-22〉 그림책으로 마음을 토닥토닥 6기/8기 자료집	81
〈그림 2-23〉 어린이도서연구회 큐레이션 〈내가 만드는 책꾸러미〉	82



## 1. 연구 개요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하루 약 150~200여 종의 책이 출간되는 가운데 책 선택에 대한 어려움 증대
- 코로나19로 인해 도서관이나 서점 방문 저조
- 영유아·어린이 및 양육자 대상으로 하는 독서지원 사업이 부족한 실정
- 이에 따른 대상·목적·공간별 북큐레이션을 활용한 독서진흥 방안 모색이 필요

### 2) 연구 내용

- 북큐레이션의 해외와 국내 현황에 대한 이해와 적용을 위한 사례 제시
- 영유아·어린이 및 양육자와 함께하는 독서활성화를 위한 실제적인 북큐레이션 활용방안 제안

### 3) 연구 방법

#### (1) 문헌 및 자료조사

북큐레이션을 정의하고 북큐레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영유아·어린이 독서진흥 활동에 대한 내용을 문헌 및 자료 조사

#### (2) 현장 탐방 및 전문가 인터뷰

- 영유아·어린이의 독서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행하는 활동 현장의 탐방
- 북큐레이션 현장 탐방을 통해 북큐레이션 서가 구성, 주제 내용을 검토, 북큐레이션 활동과정을 통한 현장의 반응과 향후 발전을 위한 방안 제시에 대한 담당자 및 전문가 심층 인터뷰
- 해외 사례 연구를 위해 미국, 프랑스 거주 경험이 있고, 독서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전문가를 만나 시사점을 갖는 북큐레이션 기반의 영유아·어린이 독서활동의 역사적, 정책적 토대에 대한 이해와 사례 추천을 위한 전문가 심층 인터뷰

## 2. 북큐레이션 이해와 국내외 북큐레이션 현황

### 1) 북큐레이션의 이해

#### (1) 북큐레이션 정의

기존의 출판된 다양한 도서를 대상에 맞게 주제와 질문을 중심으로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통

한 도서를 선정하여 북큐레이션 서가를 구축하여 이용이 용이하도록 하는 제반의 활동

#### (2) 북큐레이션 운영 요소

북큐레이션 운영 주체(북큐레이터), 장소, 운영계획, 주제 선정, 주기, 예산, 북큐레이션 서가 명칭, 선정된 도서의 양, 북큐레이션 된 도서와 연관된 오브제 포함

#### (3) 북큐레이션 교육 및 북큐레이터 양성과정

- 북큐레이션을 위한 전문 인력 북큐레이터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 기존의 독서운동가(시민 그룹)의 영역, 개별화된 활동에서 전문적이고 상업적인 영역으로까지 확대 추진
- 체계적인 교육과정 마련 필요한 시기

#### (4) 북큐레이션 관련 문헌조사

- 독자 연구와 책의 발견성을 중심으로 북큐레이션 필요성 연구
- 북큐레이션 이해, 북큐레이션 기반의 공공도서관, 서점, 출판의 동향에 대한 연구
- 테크놀로지 기반이 진화하는 북큐레이션 연구

## 2) 해외 북큐레이션 현황과 독서활동

### (1) 도서 선정 기반의 책 선물을 통한 독서운동

#### ○ 영국 외: 북스타트

생후 첫아기 책 꾸러미부터 생애주기별 책 꾸러미 도서 선정: 북스타트베이비, 북스타트플러스, 북스타트보물상자, 타임 투 리드, 레터박스 클럽, 북버즈. 수행기관인 북트러스트 웹사이트를 통한 도서 정보와 리뷰, 다양한 주제 책목록, 신간 도서 추천, 최고의 어린이책, 지난 100년간 최고의 어린이책 100권, 다음에 읽을 책 등 다양한 컬렉션 마련

#### ○ 아일랜드 아동도서의 캠페인 컬렉션

‘책가방’을 통해 모든 초등학생에게 책 선물, 작가 초대 캠페인과 함께 하는 ‘담대한 소녀’들을 통해 사회적 장벽을 극복한 여성 캐릭터 도서 선정. 지역 출신의 작가의 도서 구성하여 작가의 작품 소개 및 출판과 지원하는 ‘책은 상황을 개선한다’. 사회적 이슈나 가치 반영한 주제 선정, 독서 가이드 제공하는 ‘주제 독서 가이드’

#### ○ 프랑스: 페이지 가방

페이지 가방은 매년 특정 주제 선정, 책과 관련된 설명 및 게임이 수록된 가이드북을 가방에 담아 제공. 학습 휴일이나 스포츠나 여가 문화활동을 즐기는 수요일 계획에 포함. 방학을 이용해 어린이·청소년 시설에 있는 어린이에게 책을 제공하고 은퇴 노인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찾아가 책을 읽어주는 활동을 통해 독서의 즐거움 공유

## (2) 부모의 참여 이끌어내기

- 미국(공공도서관): Every Child Ready@ your library  
5세 이전 유아의 문해력을 지원하는 부모 또는 양육자에게 노래, 말하기, 읽기, 쓰기, 놀기의 5가지 문해력 연습을 통한 자녀와의 상호작용 독려
- 싱가포르(공공도서관): A BOOK A Day  
0~6세 어린이 초기 읽기 기술과 읽기의 즐거움을 익히기 위해 부모가 매일 한 권의 책읽기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  
독서일지(연령에 맞는 독서활동, 연령에 맞는 추천도서, 주제별 캘린더, 다양한 스티커와 쿠폰 포함), 행운박스 추첨으로 구성

## (3) 아동기관 지원과 협업

- 미국(독서단체): Read for Success(RIF: Reading Is Fundamental)  
유치원과 초등 3학년까지의 어린이 대상, 읽기 능력 향상, 독서 장려 읽어주기 책 컬렉션, 학생 스스로 선택하는 책(학생을 위한 책), 읽기 능력 개발을 위해 교육자가 설계한 독서활동
- 네덜란드(독서단체): 보육시설에서 영감을 주는 독서 환경 구축 프로젝트  
지자체, 공공도서관, 보육시설과의 협업을 통해 보육시설에 매력적인 독서환경 구축

## (4) 다양한 컬렉션과 책 선정을 위한 도구

- 미국(사회적 기업): 모두의 책  
다양한 삶과 경험과 목소리가 담긴 도서 출판 독려, 도서 구매 수익금은 도서 소외지역에 독서 환경 구축에 사용
- 영국(공공도서관): 자폐스펙트럼장애 컬렉션  
자폐 커뮤니티를 위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워킹 그룹 조직  
조용한 저녁, 감각/조용한 방, 감각상자 활용, 자폐 인식 개선의 달 운영
- 미국(비영리단체): 사회정의도서  
다양성 격차에 대한 어린이와 성인을 위한 사회정의도서 제공  
그림 또는 삽화에서 고정 관념 찾기, 토크니즘 찾기, 보이지 않는 사람 찾기, 스토리라인과 사람들과의 관계, 다양한 삶의 방식에 대한 메시지 살피기, 변화를 위한 행동에 참여하는 어린이와 성인에 관한 책 찾기, 작가나 일러스트레이터의 배경과 관점 고려
- 미국(독서단체): Literacy Central(Reading Is Fundamental) 지속가능한 미래센터  
어린이들이 지구를 이해하고 환경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컬렉션  
동물과 식물, 천연자원, 환경정의, STEM과 직업 등 다양한 주제 리스트 제공

## (5) 어린이를 위한 큐레이션 서비스 현황

- 미국: 공공도서관의 큐레이션 서비스  
주제별 큐레이션, 책 추천 서비스, 프로그램 안내 등 어린이 독서를 지원하는 자원구축  
사서 추천 목록, 다양한 커뮤니티 그룹의 추천 목록 아카이빙, 개인 맞춤형 큐레이션
- 서평 DB를 활용한 책추천 서비스
- 프랑스 교육부 권장도서 목록
- 네덜란드의 책 추천 사이트, 게임 형식의 어린이책 추천

## 3) 국내 북큐레이션 현황과 독서활동

### (1) 도서 선정 기반의 책 선물을 통한 독서운동

- 북스타트: 북스타트, 북스타트 플러스, 북스타트 보물상자 3단계 영유아-어린이 도서제공, 목록 서평 포함 제공, 다양한 독후활동 소개, 영유아 관련 부모교육 진행

### (2) 양육자(부모, 교사 등)의 참여 이끌어내기

- 안성시립도서관과 함께 1000책읽기: 5~7세 어린이 대상, 사서 추천 도서 꾸러미 대출(쉬운 책, 재미있는 책, 옛이야기 책, 정보책, 국내작가, 일본작가, 영미작가 책 10권으로 구성), 2~3년 장기 프로젝트.
- 취학 전 천 권 읽기: 5~7세 어린이 대상, 지자체와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유아교육기관 72개관 협력으로 사업 추진, 자료선정위원회(사서와 지역독서교육전문가, 서점관계자, 작가, 아동교육기관 전문가, 독서동아리, 주민 참여), 주제(생활습관, 동·식물 포함 다양한 친구들, 환경, 생각과 언어표현, 성평등, 인성, 학교생활 등) 해마다 주제 컬렉션 보완, 그림책놀이터 추천도서 목록 발간

### (3)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를 위한 읽기 자료 개발

- 춘천 담작은도서관: 친구야, 나한테 책 읽어줄래?  
책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5세 이상)에게 도움을 주는 독서프로그램으로 개발  
그림책(2권)과 인형이 함께 들어있는 꾸러미 대출
- 피치마켓: 느린 학습자를 위한 쉬운 읽기 책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글을 제공함으로써 발달장애인과 느린 학습자가 문학의 즐거움을 느끼고 비장애인과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설립  
매거진 피치서가 출판 배포, 특수교사 교육
- 에누마 & (재)도서문화재단씨앗: 다문화 콘텐츠 두루 책방  
한국어가 익숙치 않은 다문화 가정 어린이와 느린 학습자들이 스스로 글을 읽고 쓰는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쉬운 한국어책과 여러나라 말 책을 제작 제공하는 디지털 콘텐츠

학령기 어린이에게 적절한 주제(동물, 과학, 음식, 생활, 자연, 역사, 모험) 주제 도서 선정 제작, 5개 다국어책(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수록

**(4) 사회 이슈를 담은 다양한 관점의 북컬렉션 개발과 책 읽기 지원**

- 정부, 기업, 민간 단체: 나다움 어린이책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나와 남을 긍정하고 다양성과 공존을 지향하는 어린이책 선정, 창작 공모전, 출간 지원, 학교에 나다움어린이책 100종으로 구성된 책장 설치(2019), 교사용 독서교육지도안 20종 온라인 지원(2020)
- 민간단체, 문화재단: 그림책, 문화다양성  
다양성 주제 그림책 선정, 추천 목록집 제작, 프로그램 활동 자료안 제작, 무료 다운로드
- 경기도: 책드림, 꿈드림  
유아, 초등, 청소년, 성인 대상으로 책을 접하기 어려운 지역아동센터, 노인시설, 미혼모시설, 다문화시설 등 도서 소외 기관 주제별 도서 지원을 통한 독서환경 개선 사업  
책드림, 꿈드림 목록집 발간, 경기도사이버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목록집 다운로드

**(5) 유아교육 누리과정 기반의 북큐레이션과 독서프로그램**

- 서울시교육청 도서관: 우리 아이 첫 독서학교, FIRST.L  
5~7세 대상, 월별 주제에 따라 선정된 도서(생활 주제: 생활, 자연, 국가, 과학/기술, 환경, 인성 주제: 배려, 존중, 협력, 나눔, 질서, 효)를 바탕으로 독서활동, 체험활동, 놀이활동 진행
- 청주기적의도서관: 이야기 보따리  
0~5세 영유아를 위한 책놀이 서비스로 책을 처음 접하는 아이들이 책과 친해지도록 돕기 위해 마련한 책꾸러미, 2개월 주기로 세부 주제 운영, 지역 유아교육과 학생들과 협력
- 출판사: 북클럽 비버(비룡소), 달리 보림(보림), 베베북클럽(웅진씽크빅)  
누리과정 기반, 미국아동발달협회(CDA) 기준을 표준화 정보로 하여 월령별 적합한 책과 교구 큐레이션 하여 제공, 정기구독서비스
- 기타: 아이윙TV, 우파따, 베베티움, 윙크박스, 신기한나라 라이브러리, 롤링핀, 아누리 유아교육 관련 기업 제공, 북큐레이션 기반의 구독형 상업화된 유아교육 상품 및 서비스

**(6) 도서관/서점/기업의 북큐레이션 서비스**

- 작은도서관: 책으로 말거는 책장  
'사서가 책으로 말 걸기', '이용자가 이용자에게 책으로 말 걸기', '특별히 말 거는 책장' 북큐레이션 된 서가 운영
- 공공도서관: 소소한 책장 & 책 먹는 아이  
파주중앙도서관 어린이실 사서 추천 북큐레이션 서가, 월 1회 주제 북큐레이션, 4~7세 책놀이 프로그램 유튜브를 통해 송출(사서가 직접 프로그램 진행 및 사회 진행)

- 서점: 부산 곰곰이 어린이서점(2000년 개점), 부산 책과 아이들(1998년 개점), 속초 완벽한 날들 등 블로그 운영, 북큐레이션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주제 책 소개. 속초 완벽한 날들의 그림책은 만 3~4세, 만 4~5세, 만 5~6세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연령에 맞는 도서를 월 1권 정기 배송하는 서비스
- FIYBOOK: IT 기반의 플라이북 AI(도서추천시스템), 7가지 질문을 기반으로 하는 도서추천(기분, 관심사, 직업, 연애/결혼, 장르, 나이도, 분량, 한달 독서량)
- 스쿨북스와 인생서가(디지털 기반, 도서관 연계 큐레이션 플랫폼)

**(7) 그림책 기반의 책 읽기 활동**

- AGC화인테크노한국과 함께하는 구미그림책잔치
- 라키비움 J(독자에서 전문가그룹으로 발전, 그림책 저널 출간), 그림책으로 마음을 토닥토닥(독서동아리)
- WEE 그림책어워드

**(8) 어린이책 선정 자료**

- 어린이도서연구회가 뽑은 어린이·청소년책: 도서목록 제공
- 책숲놀이터: 출판사 협업 신간 도서 안내, 월별 테마도서 큐레이션 메일링 서비스 제공
- 책씨앗: 대상 연령별, 월별 추천도서 목록, 주제별 큐레이션 도서 메일링 서비스 제공
- 학교도서관저널: 도서목록 제공

**3. 북큐레이션을 기반으로 한 독서활성화 사업 제안**

**1) 제안 1 | 도서 선정 기반의 책 선물을 통한 독서운동**

- 보드북 제작 지원 사업
- 생일책 365

**2) 제안 2 | 양육자의 참여 이끌어내기**

- '읽어주기 좋은 책 선정' 및 독서활동 지원 확대
- 출생에서 취학 전 어린이 북큐레이션 목록 및 도서 제공
- 장애어린이를 위한 북큐레이션 서가

**3) 제안 3 | 아동기관 지원과 협업**

- 유아 교육 기관 종사자 대상 북큐레이션 교육 시행
- 어린이도서관 중심으로 '어린이 전문사서' 전문 북큐레이터로 양성

**4) 제안 4 | 다양한 컬렉션과 책 선정을 위한 도구**

# 1. 연구 개요

- 주제별 북큐레이션 꾸러미 제작 배포

## 5) 제안 5 | 영유아·어린이를 위한 큐레이션 서비스

- 영유아·어린이 독서활동 전용 온라인 플랫폼

## 4. 시사점 및 제언

### 1) 시사점

#### (1)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컬렉션 개발 및 주제 큐레이션 서비스

- 전문가 협업
- 새로운 출판 영역 발굴
- 책 선택을 위한 정보와 도구 제공

#### (2) 독서에 대한 모든 것: 온라인 독서 플랫폼 구축

- 독서자원 구축
- 독자와 또는 독서운동 실행 주체들이 참여하는 커뮤니티 구축
- 생성된 북큐레이션 목록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아카이빙
- 책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과 편의 제공

#### (3) 독서활성화를 위한 지역독서문화조성

- 공공도서관: 지역 단위 사서 커뮤니티에 대한 제도적 지원
- 독서 촉진자(부모, 아동기관 등) 지원
- 지역 사회에서 함께 읽기를 위한 지역사회협력

### 2) 제언

- 영유아 독서실태조사 영역 별도 구성: 영유아와 양육자 독서환경 실태조사
- 영유아 출판에 대한 현황 분석과 동향 자료화
- 북큐레이션 기반의 독서활동 지속적인 사례 연구
- 영유아·어린이 전문 북큐레이터 양성과정
- 소외계층(다문화, 장애인 등) 독서활성화 방안에 대한 별도의 연구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미디어 매체의 다양화 속에서 특히 디지털 매체의 급속한 성장과 이용층의 증가는 정보의 선택과 집중을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많은 정보의 선택에 있어 목적과 필요에 적합한 정보 선택을 요구함에 따라 큐레이션의 기능이 강조되는 사회이다.
- 하루 약 150~200여 종의 책이 출간되는 가운데 책 선택에 따른 어려움 증대 및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도서관이나 서점 방문 등의 이용이 저조한 상황에서 영유아와 어린이 및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독서 지원(진흥) 사업이 부족한 실정으로 대상·목적·공간별 북큐레이션 프로그램 적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 북큐레이션은 수많은 도서 중에서 주제와 질문을 바탕으로 선택에 있어 독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서점과 공공도서관, 출판사 등을 통해 확대되어 서비스되고 있다.
- 직접 선택이 어려운 영유아와 어린이들에게 읽어주기 위한 도서 선택에 관계하는 부모(양육자), 돌봄 및 교육 관계자, 출판, 공공도서관 등에서 어떻게 그들의 도서 선택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 영유아와 어린이들의 독서활동 과정에서 책 선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영유아와 어린이들이 '책'의 즐거움을 확보하며 책 읽기 습관을 갖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이를 위해 다양한 북큐레이션을 활용한 해외와 국내의 영유아와 어린이 독서활동 현황과 적용 사례를 살펴 영유아와 어린이 및 부모가 함께하는 북큐레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독서활성화 방안을 찾아 제안하고자 한다.

## 2) 연구 내용

- 영유아·어린이에게 각각의 수행 주체의 역할을 찾아보고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교육된 북큐레이터를 양성하고 시민 자원을 참여시켜 북큐레이션을 기반으로 한 독서활성화 사업을 제안한다.

- (대상) 어린이, 양육자, 소외계층(장애 및 다문화 느린 학습자)
  - (수행 주체)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 서점, 출판사 /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어린이집(유치원)
  - (온라인) 플랫폼, 북튜버 양성, 메타버스 연계 등
  - (교육) 북큐레이터 양성과정 및 북큐레이션 연수
  - (모임) 시민 자원 활용 독서동아리
- 본 연구의 제안 사업은 위의 내용이 사업안에서 구체성을 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개별적으로 별도의 항목으로 제안하기보다는 하나의 사업 안에서 대상과 공간, 그리고 수행 주체의 성격에 따른 운영 방식, 사업의 도모를 위한 지역 네트워크와 교육을 담아낼 수 있도록 사업 제안을 하고자 한다.
  - 본 연구 과정에서 살펴본 해외와 국내 사례를 참고하여 도서 선정 기반의 책 선물을 통한 독서운동, 양육자의 참여 이끌어내기, 어린이기관 지원, 다양한 컬렉션과 책 선정을 위한 도구를 중심으로 국내 현실에 맞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제안 내용을 담아 최종 5개의 사업영역 8개의 사업을 제안한다.
  - 각각의 제안 사업은 사업 개요와 목적 및 필요성, 주요 내용, 예산을 포함하는 사업 내용, 참고 사례와 기대효과를 중심으로 제안한다.

### 3) 연구 방법

#### (1) 문헌 및 자료 조사

##### ○ 문헌 및 자료 조사의 영역

- 북큐레이션 정의 및 운영 현황
- 국외 북큐레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영유아·어린이 독서활동 사례
- 국내 북큐레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영유아·어린이 독서활동 사례

직접 책을 읽고 선택하기 힘든 시기인 영유아·어린이를 대상으로 효과적으로 책을 접하고, 책 읽기 습관을 만들어 가는 시기의 중요성에 근거하여 책의 선택과 읽어주기 위한 사회적 독서 환경을 위해 ‘북큐레이션’을 정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해외와 국내 사례에 대해 문헌 및 자료를 조사하였다.

국내외 문헌 및 자료 조사는 도서 선정을 기반으로 책을 선물하는 독서 운동, 부모를 포함한 양육자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캠페인을 포함한 독서활동, 아동교육 기관을 지원하는 독서활동, 다양한 주제 컬렉션과 책 선정을 위한 도구, 어린이를 위한 북큐레이션의 서비스 현황을 중심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해외에서 진행되는 영유아·어린이 대상의 독서진흥 활동 사례 수집을 위해 여러 나라의 선행한 활동자료들을 살펴보았다. 특별히 대상 연령에 맞춤형 도서와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확인한다. 더불어 선정된 도서를 어떤 방법으로 쉽게 이용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한다. 그리고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국내에서는 영유아 연령에 맞추어 유아교육 누리과정을 기반으로 하는 그림책 읽기 환경에 대해 자료를 조사하고 도서관, 서점, 출판, 기업에서 진행되는 북큐레이션 서비스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 (2) 현장 탐방 및 전문가 인터뷰

○ 영유아·어린이와 그들의 양육자가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한 형태로 지속적인 독서 과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현장을 찾아서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과정과 그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찾고자 하였다.

##### ○ 어린이집(유치원) 관련 독서 운영계획 및 사례

- 제4차 표준보육과정과 2019년 개정 누리과정 속 책 읽기 관련 내용
- 전문가 자문회의 진행 / 박해미(경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에 대한 이해, 영유아 도서 환경과 교사의 역할에 대한 이해, 디지털 환경이 확대된 현 상황에서 영유아와 어린이 읽기 환경의 변화 추이 등 자문.

##### ○ 공공도서관 어린이실, 어린이도서관 북큐레이션을 통한 독서활동 운영 사례

- 현장 방문: 파주중앙도서관, 안성시립중앙도서관, 청주기적의도서관
- 전문가 자문회의 진행 / 강정아(제천기적의도서관 관장)
- 공공도서관 어린이실의 북큐레이션 현황, 도서 선정 과정에서 사서의 참여 북큐레이션 기반의 영유아 독서활성화 내용, 이용자의 반응, 추후 개선점 자문.

##### ○ 어린이도서 선정 목록 작업 관련 단체 활동 현황 및 고민

- 전문가 자문회의 진행 / 어린이도서연구회 목록위원회 노은정, 김현정 모듬장 / 어린이도서연구회 도서관위원회 최은희 위원장
- 어린이 도서 선정의 기준, 최근 어린이책의 동향, 영유아 도서 선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선정된 목록 활용 방안, 선정 목록 보급을 위한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자문.

##### ○ 영유아·어린이책 출판 동향

- 전문가 자문회의 진행 / 이정옥(책숲놀이터 대표)
- 영유아 도서 출판 동향, 영유아 도서 출판의 어려움, 영유아 대상 독서운동과 출판의 영향에 대한 자문.

##### ○ 해외 어린이를 위한 큐레이션 서비스 현황

- 전문가 자문회의 진행 / 조금주(서초반포도서관장: 미국)
- 김시아(연세대학교 매체와 그림 연구소 연구원: 프랑스)
- 서면 인터뷰 / 영국 북트러스트



1. 연구 개요

- 미국, 프랑스, 영국의 영유아·어린이 독서 운동 관련 나라별 특성, 차별화된 정책 및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자문.

〈표 1-1〉 현장 탐방 및 전문가 인터뷰

연구방법	전문가	자문내용
탐방	파주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북큐레이션 활동 사례
	안성시립중앙도서관	천 책 읽기 운영 현황
	청주기적의 도서관	이야기 보따리 꾸러미 현황
	서초반포도서관	다문화 도서서가 현황
자문회의	박해미(경민대학교유아교육학과 교수)	제4차 표준보육과정과 2019년 개정 누리과정 속 책 읽기 관련 내용
	강정아(제천기적의도서관 관장)	어린이도서관 북큐레이션 현황
	노은정 외 어린이도서관연구회목록 위원회	어린이도서 선정의 기준
	이정욱(책숲놀이터 대표)	영유아 도서 출판 동향
	조금주(서초도서관 관장)	미국 공공도서관 어린이실 독서활동 현황
서면인터뷰	김시아(연세대학교 매체와 그림 연구소 연구원)	프랑스 영유아 어린이독서활동 현황
	영국 북트러스트	북트러스트 활동 소개

국내외 북큐레이션 현황과 독서활성화 방안

## 2. 북큐레이션 이해와 국내외 북큐레이션 현황



## 1) 북큐레이션의 이해

### (1) 북큐레이션 정의

- 현시기는 정보 과잉의 시대이다. 정보의 생산과 소비에 걸리는 시간도 축소되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비대면 환경에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의 유통과 선택 환경이 확장되었다.
- 스티븐 로젠바움<sup>1)</sup>은 정보 과잉 시대의 돌파구로 큐레이션을 강조하고 있다. 그가 정의하는 큐레이션은 인간이 수집·구성하는 대상에 질적인 판단을 추가해서 가치를 더하는 일이다.
- 북큐레이션은 ‘책’을 매개로 한 큐레이션 활동이다. 인쇄된 종이책뿐만 아니라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책에 이르기까지 출판 과잉의 시대에 독자의 요구에 충족되는 ‘책’을 선택하는 일련의 과정에 북큐레이션은 도움을 주고 있다.
- 북큐레이션에 대한 정의와 관련하여 선행된 연구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김미정, 김정명(2020)는 북큐레이션의 개념 및 활용 유형 연구<sup>2)</sup>에서 북큐레이션은 ‘책을 매개로 하여 예비독자 개발 및 기존 독자 유지를 위한 다양한 방법과 과정을 포함하는 프로젝트’라고 정의하고 있다.
- 김영석(2018)은 <북큐레이션, 책으로 말을 걸다><sup>3)</sup>에서 북큐레이션을 정의하면서 도서관이 아닌 일반 기관 및 상업시설에서의 북큐레이션은 ‘사서 혹은 일반 도서 전문 큐레이터가 특정 주제의 도서 혹은 대량의 도서를 이용하여 특정 공간이나 건물을 디스플레이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기관의 대외이미지를 제고 하려는 의도를 가진 활동’으로 정의한다.
- 김영석(2018)은 위와 같은 책에서 도서관의 북큐레이션은 ‘사서가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도서 중에서 특정 이용자 집단에게 유익할 거라고 판단되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주제에 해당되는 도서(정보)들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선정하고, 그 도서를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도서관의 특정 위치 혹은 장소에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방식으로 흥미롭고 세련되게 전시(display)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한다.

1) 스티븐 로젠바움, 이시은 옮김, 『CURATION: 정보 과잉 시대의 돌파구 큐레이션』, 이코노믹북스, p.37, 2019

2) 『한국출판학회연구』 제46권 제2호, 통권 제93호, 한국출판학회, p.69, 2020

3) 김영석·박연식·이용주, 『경기도사이버도서관 경기도도서관총서』 21, p.15~18, 2018

- 이용주(2022)는 학교도서관저널 특집 공감하는 북큐레이션 지면을 통해 ‘북큐레이션의 핵심은 ‘주제와 독자’ 두 가지로 압축된다. 북큐레이션은 명확한 주제가 있어야 하며, 그 대상으로서 독자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서관에서 실행하는 테마 중심의 북큐레이션 과정에서 서비스 대상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이해 없이 주제와 책에만 집중하는 경향을 문제시하고 있다.
- 현재는 종이책 중심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어린이와 관련된 검색 카테고리는 어린이(그림책, 활동북, 영유아학습), 어린이·청소년(시, 문집, 연감), 어린이·청소년(소설, 실화), 어린이·청소년(교양 일반), 어린이·청소년(참고서적), 어린이·청소년(개인, 사회문제), 어린이·청소년 문구 및 기타 등으로 나뉘어 있다. 다만 어린이의 읽기 단계는 발달 단계의 특성상 더욱 세분화될 필요성이 있으며 신간도서의 검색이나 주제 분류별, 월별, 분기별 판매통계 등을 통해 관심을 유도하고 도서의 선택에 이르기까지 좀 더 가독성 있고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독서활성화라는 목적에 맞게 기존의 추천도서목록 활동을 넘어 좀 더 적극적인 이용자 대상의 전문화된 북큐레이션을 통해 기존의 출판된 다양한 도서를 중심으로 대상자의 연령 및 관심 영역, 주제와 관련하여 선정기준을 세우는 과정, 목적에 맞게 선정하여 홍보되고 활용되는 전 과정이 책의 발견성을 높이고 독자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확인한다.
- 북큐레이션을 수행하는 전체적인 과정을 통해 대상에 대한 이해 및 요구 사항, 필요한 홍보 및 교육의 방식들이 고민되고 결정된다. 북큐레이션은 구체적인 독자를 위해 출판 및 책이 있는 공간의 변화를 유도하며 책이 주는 즐거움과 책의 발견성과 연계성을 높여 책과 책, 책과 사람, 책과 공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주요한 역할을 함에 따라 인적 네트워크와 기관별 네트워크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된다.
- 영유아와 스스로 읽기가 아직 어려운 시기의 초등저학년 어린이들에게 ‘책의 즐거움’과 ‘책 읽는 습관’을 몸에 익히는 과정에서 선정된 큐레이션된 책의 만남은 효과적인 사회적 독서와 독서 습관을 마련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 현재 북큐레이션의 기본이 되는 메타데이터의 확보 및 활용 방안 제시 그리고 공공도서관과 지역서점 등을 통한 활용 사례 공유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북큐레이션을 활용한 영유아·어린이 독서활동 국내외 사례를 찾고 이를 국내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2) 북큐레이션 운영 요소

- 북큐레이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요소로는 담당 인력, 장소, 운영계획, 북큐레이션 주제, 교체 주기, 예산, 북큐레이션 서가의 명칭, 북큐레이션의 대상으로서 도서의 양, 디스플레이 방법(오브제 사용 포함) 등이다.
- 북큐레이션 과정에 고려되어야 할 점은 구축 배경에서는 컬렉션 구축 시기와 계기, 목적을 분명히 하고, 구축 방법으로는 컬렉션 유형, 규모, 시기, 컬렉션 이름 정하기, 이용 대상 및 방법 등을 정한다.
- 공공도서관에서의 북큐레이션 운영 요소에서는 운영을 위한 지원과 어려움, 개선점, 발전 방향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효과 측정을 위해 이용자, 사서, 도서관(기관)의 기대효과 및 통계적 수치 마련이 요구된다.
- 더불어 북큐레이션 컬렉션의 성격에 따라 기존 도서관(기관) 업무와의 연계성 및 지역 네트워크 연계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다.
- 서점에서의 북큐레이션 운영 요소로 서점 특성에 맞춤형 특별 서가 구성, 추천도서와 추천의 이유 등이 구매 욕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연계된 북큐레이션 도서의 홍보를 위한 저자와의 만남 등의 특별프로그램 기획 등이다.

(3) 북큐레이션 교육 및 북큐레이터 양성과정

- 북큐레이션 담당 인력을 위한 교육의 사례는 국내에서(사)한국북큐레이션협회에서 북큐레이터 양성과정을 통해 1,2급 자격증이 있다. 이는 민간자격증<sup>4)</sup>이다. 교육과정은 총 12차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유치하는 기관에 따라 교육 내용이 조정됨을 알 수 있다.
- 이외에 지역사회교육협의회(KACE) 북큐레이터과정 운영(총 22회차, 회당 3시간),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 북큐레이터 자격증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2022년 춘천교대와 한국북큐레이션협회가 협약을 통해 북큐레이터 양성과정을 개설한 사례가 있다. 교육 내용으로는 북큐레이션의 개념, 북큐레이션의 특징과 과정 이해, 독자 파악 및 독자별 북큐레이션 기준, 북큐레이션 기획 과

4) 민간자격등록번호 2014-6172호

정 이해, 아동 대상 북큐레이션 실습, 연간 북큐레이션 발표와 전시 기획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

- 최근 공공도서관 내에서 시민 대상의 북큐레이터 양성과정을 개설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현황이다. 일례로 순천시의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학부모 대상 시민 북큐레이터 양성과정(2022)을 개설한 사례가 찾아진다. 공공도서관의 경우는 자료실 사서의 고유업무로 북큐레이션을 운영하고 있다.
- 제4차 표준보육과정<sup>5)</sup>과 2019 누리과정<sup>6)</sup>에서의 의사소통영역 내 목표를 분명히 제시함으로써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는 영유아 대상별 그림책을 중심으로 한 서가 구축 및 읽기 목록 및 도서 확보, 읽어주기 시간 마련 등 운영계획이 확대되어 실행되고 있다.

〈표 2-1〉 2019 누리과정 의사소통 영역 목표

연령	의사소통 영역 목표
0~1세	책과 이야기에 관심을 가진다
2세	책과 이야기에 관심을 가진다
3~5세	책이나 이야기를 통해 상상하기를 즐긴다

(4) 북큐레이션 관련 문헌조사

- 2015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발간한 자료 「독자의 도서 발견 채널과 국내외 책의 발견성 강화 동향 연구조사보고서」(미래출판전략연구소 연구 수행) 제4장 국내외 책의 발견성 강화 동향 및 전략 제4절 도서 추천과 큐레이팅을 통해 도서 추천과 큐레이팅의 필요성이 대두하는 출판환경의 변화와 중요성을 들어 ‘신뢰’를 주는 도서 추천과 큐레이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함께 읽는 2018 책의 해에 책 생태계 비전 포럼 제9차에서 북큐레이션의 힘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 포럼에서는 콘텐츠 과잉 시대, 북큐레이션의 중요성(마이클 바스카, 영국 카일로 대표, 『큐레이션』 저자), 독자를 만드는 북큐레이션(리야 크레소와티, 영국 북초이스 콘텐츠 디렉터), 책의 현장과 북큐레이션(호시노 와타루, 일본 문화통신사 편집장, 전무이사), 도서관과 북큐레이션(오지은, 전 광진정보도서관 관장, 현 서울도서관장), 「북큐레이션, 책으로 말을 걸다!」(이용주, 우분투북스 서점 대표)의 주제 발표를 하였다.

5) 2020.09.01. 시행

6) 누리과정은 3~5세 유아를 위한 국가 수준의 공통 교육과정이다.

- 2018년 경기도도서관총서21 『북큐레이션, 책으로 말을 걸다』에는 북큐레이션의 이해(김영석, 명지대학교 문헌정보학 교수), 도서관의 북큐레이션(김영석, 명지대학교 문헌정보학 교수), 독서심리상담의 북큐레이션(박연식, 독서심리상담가), 서점의 북큐레이션(이용주, 우분투북스 서점 대표)의 주제로 정리된 자료가 있다.
- 2019년 책과 사람을 연결하는 힘 『북큐레이션』(김미정, (사)한국북큐레이션협회장) 도서를 출간하여 북큐레이션 정의와 북큐레이션 방법, 북큐레이터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 2020년 출판문화 8월호에는 「비대면 시대의 독서 플랫폼과 책의 발견성」(이용희, 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독서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자료에는 북큐레이션 및 도서 추천 플랫폼 사례를 소개하면서 비대면 시대의 독서진흥을 위한 독서 플랫폼 개방의 시급성을 언급하고 있다.
- 2022년 학교도서관저널 6월 호 특집 「공감하는 북큐레이션」를 통해 누구를 위한 북큐레이션인가(이용주, 우분투북스 서점 대표), 질문하는 컬렉션 서가를 만든다(김차경, 느티나무도서관 사서), 서점원Q의 오묘한 북큐레이션 비결(정한샘, 리브레리아Q 대표) 외에도 학교도서관 북큐레이션 사례와 독립책방 북큐레이터의 사례들이 실려 있다.
- 2022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열린 포럼 「북큐레이션과 독자의 읽을 권리」에서는 북큐레이션과 북큐레이터(김미정, 한국북큐레이션협회 회장), 책의 발견성을 높이는 ‘사회적 북큐레이션’(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대표), 테크놀로지와 함께 진화하는 북큐레이션(김준현, 플라이북 대표), 북큐레이션 활용 사례(이용주, 북큐레이션연구소 소장)의 발표가 있었다.
- 현시기 영유아·어린이들이 디지털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는 상황에 따라 종이책과 전자책에 관하여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연구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김태연·이순형, <읽기 매체의 종류에 따른 유아의 이야기 이해도 차이: 종이책과 전자책>, 2014
  - 유구중·이하나, <자유 선택 활동에서 그림책 매체 유형에 따른 유아의 몰입 양상 분석>, 2014
  - 권민주, <전자그림책 모드에 따른 유아의 이해도>, 2019
  - 박수옥·최나영, <어머니의 그림책에 대한 인식, 유아와의 읽기 상호작용, 유아의 표현 언어 능력 간의 관계: 종이책과 전자책의 비교>, 2017

- 스마트폰에서도 접근 가능한 영유아 프로그램 사이트<sup>7)</sup>도 영유아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과 가정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디지털 원주민이라 불릴 정도로 태어나면서부터 다양한 디지털 기기의 접근이 쉽다. ‘책’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읽기 매체에 따른 문해력과 성장 발달 과정을 추적하여 장기적인 연구조사가 필요한 시기가 시작되었다.

7) 웹사이트 | www.smartstudy.or.kr 참조

## 2) 해외 북큐레이션 현황과 독서활동

영유아를 위한 독서진흥 프로그램은 일차적으로는 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읽어주기를 통한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영유아 독서의 특징을 반영한 독서 촉진자(부모, 교사 등) 지원이 기본 요소이다. 여러 나라에서 국가, 지역사회, 도서관, 비영리 독서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진행하는 영유아 독서진흥 프로그램은 크게 (1)도서 선정 기반의 책 선물 (2)부모의 참여 이끌어내기 (3)아동기관 지원과 협력을 통한 독서 북돋우기로 수렴된다.

한편, 영유아 독서진흥 전략의 성공 조건으로서 적절하게 구성된 책을 제안하고 독자 입장에서 접근성과 발견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 요소라는 관점에서 (4)다양한 컬렉션과 책 선정을 위한 도구 (5)어린이를 위한 큐레이션 서비스 현황을 소개한다.

### (1) 도서 선정 기반의 책 선물을 통한 독서 운동

#### ① 영국 외 | 북스타트

1990년대 초반 미국과 영국에서 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영유아 책 선물 프로그램이 개발되기 시작했고, 특히 북트러스트(BookTrust)의 북스타트(BookStart)는 2000년 이후 유럽과 동아시아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각 나라에서 생애주기별 독서진흥 전략의 첫 단계 프로그램으로 채택되고 있다.

유럽의 독서 및 문해력 기관 네트워크인 EURead는<sup>8)</sup> 기존의 책 선물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새로운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 및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국제적인 네트워크(Global Network for Early Years Book gifting)를 조직하고 프로그램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부모와 보호자가 함께 읽기 또는 소리 내어 읽기를 장려한다.
- 신중하게 선정된, 아동 발달에 적합한 새 책을 제공한다.
- 가족에게 책과 자료를 무료로 제공한다.
- 도시 전체 또는 그 이상의 규모로 진행된다.
- 증거를 바탕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 또는 검토를 포함한다.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 정치적 또는 종교적 목적이 없다.

또한 이 프로그램의 가치로서 (1)사회경제적 배경과 상관없이, 특별한 필요가 있는 어린이를 포함하는 보편성 (2)조기 읽기 촉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파트너간 협력관계 안에서 일하기 (3)읽기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나 보호자가 책을 읽어주도록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책을 통한 긍정적인 초기 경험과 독서의 즐거움을 연결하는 것 (4)책과 독서에 대한 긍정적인 참여, 연결 및 상호작용 장려를 통해 유대감과 애착 지원 (5)문해력 지원을 통한 문맹 퇴치를 강조하고 있다. EURead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각 나라의 책선물 프로그램은 참여 주체, 배포기관 등의 구체적인 차이는 있지만<sup>9)</sup>, 생애 첫 책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기본 구조를 공유하고 있으며 특별한 요구가 있는 커뮤니티를 지원<sup>10)</sup>하는 국가들도 있다.

《북트러스트(BookTrust)의 도서 선정기준과 컬렉션》영국의 북트러스트는 북스타트/아가용(Bookstart Baby), 북스타트/특별한 요구가 있는 어린이용(Bookstart SEN:Special Educational Needs)을 통해 영국과 웨일즈 전역의 어린이 130만명(전체 어린이의 98%)에게 북스타트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북스타트/보물상자(Bookstart Treasure), 타임 투 리드(Time to Read), 레터박스 클럽(Letterbox Club), 북버즈(Book buzz)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합한 도서를 제공하기 위하여 (1)출판사들과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새로운 책 정보 수집 (2)축적된 목록 활용 (3)프로그램별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여 도서를 선정하고 있다.<sup>11)</sup>

**전문가 패널 구성** 도서 선정을 위해 사서, 교사, 서점, 책 블로거 및 비평가와 같이 책과 관련한 전문가 그룹을 비롯하여 SEN 전문가(시각 및 청각 장애 아동을 위한 도서 구성), 아동심리학자, 보육교사, 학교장 등 양육자 그룹이 참여한다. 잉글랜드와 웨일즈, 북아일랜드 전역에서 참가하며 여성과 남성, 도시와 지역 등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을 선정한다.

**도서 선정기준** 북스타트/아가용(Bookstart Baby), 북스타트/보물상자(Bookstart Treasure) 도서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생후 6~8주 아기에게 선물하기 적합한 책으로 1년 내내 읽을 수 있고 읽기 습관 형성에 적합한 책(아가용)
- 3~4세 어린이에게 흥미를 줄 수 있는 책(보물상자용)
- 명암의 대비가 있고, 명확하고 읽기 쉬운 글꼴로 된 단순한 글

9)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24개국의 경우 병원을 포함한 모자 보건기관, 가정방문 간호사, 지역 의료기관, 공공도서관,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 파트너십에 기반하여 다양한 기관과 참여자들을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출처 | www.euread.com]

10) 다양한 연령 지원(호주, 영국, 일본, 핀란드), 사회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 지원(독일, 몰타), 다언어 지원(호주, 영국), 시각 및 청각 장애를 가진 어린이 지원(호주, 영국) 등 확장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11) Caroline Hill-Trevor, Book Selection at BookTrust, 2020

8) 2020년 설립된 유럽 독서진흥단체 컨소시엄

- 운율, 리듬, 반복이 있는 글
- 어린이가 접근 가능하고 포괄적인 주제
- 다양한 인종 및 문화적 배경과 능력을 반영하는 그림과 사진
- 가족도 함께 즐길 수 있으며 다양한 읽기를 지원하는 책
- 어린이의 경험을 반영하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책
- 책의 만듦새와 인쇄상태가 좋아야 하며 영국과 유럽의 건강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함(CE 품질마크 포함)
- 보드북은 안전하고 충분히 견고해야 함

특별히 고려하는 사항 경제적 지위와 참여가 낮은 수혜자, 글을 읽지 못하는 성인 보육자, 책을 읽어보지 않았거나 아이와 함께 책을 읽는 방법을 모르는 성인 보육자, 영어가 모국어 아닌 가족, 취약 아동에 대한 트리거 이슈(trigger issue)<sup>12)</sup> 등을 고려한다. 북트러스트는 웹사이트를 통해 어린이 도서 정보와 리뷰를 제공하고, 다양한 주제의 책 목록, 특별 컬렉션을 구성하여 도서 추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신간 도서 추천: New books we love this month〉 매월 어린이·청소년 신간 도서를 검토, 선정하여 연령별(0~3세/4~5세/6~8세/9~11세)로 나누어 작가 정보, 리뷰, 주제 태그(tag)를 포함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최고의 어린이책: Great Books Guide〉 매년 전년도 출간된 신간 도서를 중심으로 책과 이야기, 운율에 흥미를 갖게 하는 100권의 책을 선정하여 가이드북을 제작한다. 잉글랜드, 웨일즈 및 북아일랜드의 모든 초등학교(약 23,000여 개)에 배포되며 웹사이트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지난 100년간 최고의 어린이책 100권: 100 best children's books over 100 years〉 2021년에는 지난 백 년간 출간된 어린이·청소년 도서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 패널<sup>13)</sup>의 제안과 함께 아동 도서 고전 목록, 북트러스트의 〈Best Book Guide〉, 다양한 프로그램과 문학상을 통해 발굴된 작품 등을 참고하여 최고의 책 100권을 선정하였다.

100권의 책을 선정하는 데 있어 (1)훌륭한 고전 중에서도 100년 이내에 출간된 책을 대상으로 (2)더 많은 창작자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훌륭한 작가 또는 일러스트레이터의 작품 중에서 한

12) 콘텐츠에 포함된 이미지나 텍스트가 방아쇠(trigger)를 당기듯이 폭력, 차별 등을 경험한 사람들의 트라우마를 자극하여 심리적 동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13) 영국의 도서관 및 정보전문가협회(CILIP: Chartered Institute of Library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 Carnegie Greenaway Working Party의 청소년 도서관 그룹 의장(Jake Hope), 타임스(The Times) 아동 도서 편집자(Nicolette Jones), 작가(Catherine Johnson, Smriti Halls), 일러스트레이터(James Mayhew, Fen Coles), 서점 Letterbox Library의 공동 이사(Alex Strick), 아동 도서 전문가(Julia Eccleshare) 등이 참여하였다.

권의 책만을 선택하고 (3)다양한 어린이들(인종, 장애인, 동성 가족 등)의 삶의 방식을 반영하는 책 (4)모든 연령대 포함 (5)소설과 그림책뿐 아니라 그래픽노블과 시, 논픽션 걸작 등 다양한 장르를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 목록을 공유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세상을 더 잘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모든 독자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책에 대해 토론하고 새로운 책을 선택하는 데 영감을 주고자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에 읽을 책: What to read after〉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작가 또는 시리즈에 기반해서 새로운 책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추천 서비스로 도서관 사서, 교사, 부모, 작가, 어린이들이 추천하는 어린이 도서 시리즈와 작가를 선정하여 다음 단계 읽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기계적인 알고리즘에 의한 추천 방식이 아니라 어린이 도서 전문가가 어린이들이 이야기에 매료되는 요소를 분석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읽기를 확장하도록 추천한다.

- 비슷한 소재나 주제, 캐릭터를 가진 다른 작가의 책
- 비슷한 스타일의 삽화를 포함하는 다른 책(그림책에서 그래픽노블 등)
- 비슷한 읽기 수준의 다른 시리즈
- 장르(픽션에서 논픽션 등)를 바꾸어 읽기
- 내러티브 구조가 비슷한 책(화자, 시점 등)
- 좋아하는 시리즈의 주인공보다 성장한 독자에게 추천하는 책
- 다른 주제이지만 비슷한 감정적 강렬함을 제공하는 책
- 팬덤의 끝에 있는 독자를 위한 새로운 제안

전문가의 제안뿐 아니라 SNS를 통해 교사, 사서를 포함한 독자들에게 다양한 추천을 받고 함께 소개하고 있는데 생생한 읽기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독자의 흥미를 이끌고, 책 선택에 도움을 주고 있다.<sup>14)</sup>

《아일랜드 아동도서(CBI: Childrens Books Ireland)》의 캠페인 컬렉션 아일랜드 아동도서(CBI)는 0~18세 어린이·청소년을 평생 독자로 성장시키고, 어린이·청소년 문학 창작자들을 지원하는 비영리 독서단체(더블린 소재)로 아가를 위한 책 선물 프로그램(Bookseed)을 비롯하여 다양한 파트너십에 기반한 독서 운동을 전개한다. 캠페인 목적과 주제에 따라 전문가들이 구성한 도서목록과 읽기 가이드북을 함께 배포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책과 목록에 대한 가시성과 활용도를 높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14) 웹사이트 | www.booktrust.org.uk 참조



**책가방(Bookbag)** 영국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Brown Bag Films)가 자금을 지원하고 CBI가 협력하여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더블린에 기반을 둔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책을 선물하고 작가나 일러스트레이터가 방문하여 학교 전체에 독서문화를 장려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담대한 소녀들(BOLD GIRLS)** 2018년 아일랜드에서 여성의 참정권 부여 100주년을 기념하여 시작된 캠페인으로 글로벌 회계법인(KPMG)과 협력하여 주체성과 의견을 가진 강한 소녀와 여성이 등장하는 책을 어린이들에게 소개하고 선물한다. 이 캠페인과 함께 배포된 <BOLD GIRLS> 읽기 가이드는 리더십, 정부, 예술 분야에서 꿈을 이루는 데 장애가 되는 사회적 장벽을 극복한 여성 캐릭터를 보여주는 도서를 선정하여 연령별, 장르별로 제안하고, 아일랜드 아동 문학에 이례적인 공헌을 한 20명의 여성 아일랜드 작가 및 일러스트레이터를 조명한다. 또한 어린이 텍스트 내에서 성별 표현과 불균형을 다루는 10개의 전문서를 포함하였다.

**책은 상황을 개선한다(Books Make Things Better)** 예술위원회(The Arts Council)와 CBI 문화의 밤 2020(CBI for Culture Night 2020) 협력으로 시작되었으며, 가족이 함께 책을 펼치고 취침 시간에 이야기를 공유하는 문화를 장려하는 캠페인이다. 캠페인과 함께 제안된 <Books Make Things Better> 읽기 가이드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여 아일랜드 예술가, 출판사, 도서관 및 서점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독자들이 아일랜드 창작자의 새로운 책을 읽고, 구매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2020년 최고의 아일랜드 어린이책(123명의 아일랜드 예술가, 13명의 아일랜드 출판사 포함)을 강조하여 구성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특히 책에 접근하기 어려운 대상을 지원하여 2020년 DEIS 학교<sup>15)</sup>, 망명 신청자 수용센터(Direct provision) 및 아일랜드 전역의 가족 허브를 통해 1,000권의 책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선물했다.

**주제 독서 가이드** CBI는 현대 사회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사회적 이슈나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다양한 전문가 및 단체와 협업하여 독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독서를 통해 어린이·청소년들이 타인과 세상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역량을 배울 수 있도록 돕는다.

**<이야기 나누기: The Share A Story>(2022)** 이 독서 가이드는 세계 세대 통합주간(Global Intergenerational Week)을 기념하여 TOY(Together Young&Old) 프로젝트, 하이버니아 대학(Hibernia College) 및 스코틀랜드 전역에서 세대 통합을 지원하는 센터(Generations

15) DEIS(Delivering Equality of Opportunity in Schools)는 2005년 5월(구)교육기술부(Department of Education and Skills)가 시작한 <교육적 통합을 위한 실행 계획>의 일환으로 사회적 배제의 위험이 있는 지역사회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육적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 국가적 차원의 학교 지원 프로그램이다.

Working Together)와 함께 출간하였다. 0~12세 아동 교육자를 위해 긍정적인 세대 간 관계를 보여주는 30여권의 책과 함께 이러한 이야기를 선택하고 공유하는 데 필요한 전문가 팀이 포함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은 도서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행복하고 건강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어른, 타인과 따뜻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 캐릭터
- 노인차별적 표현 주의: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어휘, 특히 노화와 관련된 단어나 묘사에 주의해야 하며 노인에 대한 존경을 담은 삽화(어린이들의 조부모는 대부분 50~60대라는 점에서 현실감 있는 묘사 필요)
- 다양성: 다양한 배경의 어른(문화, 언어, 인종, 출신 국가, 종교, 가족 형태, 나이 등), 다양한 능력(취미, 관심사, 재능, 직업, 역할 등)을 가진 어른
- 지속적인 성장과 학습: 삶의 여러 단계를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 취미와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창의적이고 활동적인 노인 캐릭터

**<자긍심: Pride Reading Guide>(2022)** 성적 소수자(LGBTQIA+) 커뮤니티의 모든 구성원이 책을 통해 자신들의 이야기를 보고 들을 수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어린 시절부터 이들에 대한 공감, 이해, 연대에 동참할 수 있도록 0~18세의 독자를 위한 100권의 책을 선정하였다.

**<난민과 함께: Together With Refugees>(~ 2022)** 2018년 최초 출간한 이후 2022년 현재까지 꾸준히 업데이트 되고 있는 목록으로 유엔 난민기구(UNHCR-The UN Refugee Agency)와 국경없는 의사회에서 난민 캠프를 지원하는 의료 전문가(Claire M.Dunne)와 협업하여 선정하였다.<sup>16)</sup>

## ② 프랑스(비영리단체) | 페이지 가방(Sacs de pages)

이 프로그램은 2005년 프랑스의 독서단체 읽기와 읽히기 협회(Lire et Faire lire)가 “책은 아이들의 휴가를 만든다(les livres font les vacances des enfants)”는 모토를 가지고 시작하였다. 협회의 은퇴 노인 자원봉사자들이 도서관 또는 보육기관 등을 찾아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활동을 확장한 프로그램으로 방학 동안 어린이 청소년 시설에 있는 아동들에게 책을 제공하고 독서의 즐거움을 공유하는 프로젝트이다.

교육부(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청소년 및 대중 교육, 지역사회 부서(DJEPVA:

16) 웹사이트 | childrensbooksireland.ie 참조

Direction de la jeunesse, de l'éducation populaire et de la vie associative)와 문화부 (Ministère de la Culture) 공공기관인 국립도서센터(CNL: Centre national du livre)가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학습 휴일(vacances apprenantes)시스템<sup>17)</sup>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수요일 계획(Plan Mercredi)<sup>18)</sup> 활동이기도 하다.

- 대상: 2~5세, 6~12세 또는 2~12세(3단계)
- 내용: 매년 특정 주제를 정하고 책과 관련된 설명, 게임이 수록된 가이드북을 가방에 담아 제공한다. 국가적 대의로 독서를 선포한 것과 연계하여 2022년 주제는 <탈출 읽기>로 정하고 협회 파트너 21개 출판사의 책 47종을 선정하여 총 472개 단체에 3,520권을 배부하였다.
- 주제 컬렉션: 2005년 <철 베른과 같이 세계를 발견하라>, 2006년 <영원한 영웅>, 2007년 <다른 사람을 발견하다>, 2008년 <행복은 자연에 있다>, 2009년 <책을 보고 웃어>, 2010년 <이상한 나라에서 읽는 것>, 2011년 <해의, 기원에서 오늘까지: 민족과 영토>, 2012년 <세대 간 연대>, 2013년 <시민권>, 2014년 <스포츠>, 2015년 <웃음>, 2016년 <지구를 지키자>, 2017년 <신화와 전설>, 2018년 <나눔>, 2019년 <우리는 달 위를 걸었다>, 2020년 <차이>, 2021년 <우리의 동물 친구>라는 주제가 선정되었고, 매년 에디션을 발행하여 현재까지 18개의 목록이 발행되었다.<sup>19)</sup>

<그림 2-1> 페이지 가방(Sacs de pages)



[이미지 출처 | [www.lireetfairelire.org/content/les-selections-pour-sacs-de-pages-23864](http://www.lireetfairelire.org/content/les-selections-pour-sacs-de-pages-23864)]

17) 학습 휴일(vacances apprenantes)은 방학 동안에도 학교 또는 인근 시설에서 문화, 스포츠 및 여가 활동 등 균형 잡힌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교와의 연결을 유지하고, 청소년의 개인적 발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다.

18) 2018년도 초에 시작된 수요일 계획(Plan Mercredi)은 학생들의 스포츠클럽 참여를 비롯한 양질의 여가 활동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된 프로그램이다.

19) 웹사이트 | [www.lireetfairelire.org](http://www.lireetfairelire.org) 참조

## (2) 부모의 참여 이끌어내기

### ① 미국(공공도서관) | Every Child Ready to Read@your library(ECRR)

미국 공공도서관협회(PLA: The Public Library Association)와 어린이도서관 서비스협회(ALSC: Association for Library Service to Children)에서 진행하는 부모교육 이니셔티브로 도서관이 부모와 보호자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초기 문해력에 효과적으로 개입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읽기는 태어날 때부터 시작되며, 부모가 최초이자 최고의 교사라는 기본 신념을 바탕으로 5세 이전 유아의 문해력을 지원하는 부모 또는 다른 보호자에게 노래, 말하기, 읽기, 쓰기, 놀기의 5가지 문해력 연습을 사용하여 자녀와 상호작용하도록 독려한다. 이를 위해 도서관은 부모와 자녀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 부모를 위한 워크숍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공공도서관에 방문하지 않는 가족을 위한 아웃리치(out-reach) 서비스도 진행한다. 도서관의 활동을 돕기 위한 매뉴얼, 도서목록, 다양한 툴킷, 브로셔, 책갈피, 포스터 등이 지원된다.

ECRR은 증거기반(evidence-based) 프로그램으로 효과성 검증을 통해 도서관의 실천과 부모의 참여를 설득하고 있다. 2008년 미국도서관협회(ALA)와 공공도서관협회(PLA)는 ECRR 초판(2004) 평가를 위한 TF를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Susan Neuman&Donna Celano)하였고, ECRR이 부모와 다른 보호자를 교육한다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며, 지역사회 조직과 기존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를 기반으로 커리큘럼을 업데이트하고 부모들의 실천을 독려하는 보다 명료한 방법론을 제공하는 ECRR 2판(2011)을 발행하였다. 2013년 PLA와 ALSC는 미국 박물관도서관서비스협회(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전국 36개 도서관 시스템에 속해 있는 57개 지역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스토리타임 프로그램을 관찰·평가하는 국가 연구를 수행하여 보고서<sup>20)</sup>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ECRR에 참여한 도서관이 참여하지 않은 도서관에 비해 어린이 독서활동에 부모의 참여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도서관의 역할, 사서에 대한 교육훈련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있다.<sup>21)</sup>

20) Association for Library Service to Children(ALSC) and the Public Library Association(PLA), Bringing Literacy Home: An Evaluation of the Every Child Ready to Read Program, 2017

21) 웹사이트 | [everychildreadytoread.org](http://everychildreadytoread.org) 참조

### ② 싱가포르(공공도서관) | 날마다 한 권 읽기(A Book A Day)

싱가포르 국립도서관 위원회(National Library Board)가 조직하는 프로그램으로 0~6세 어린이의 초기 읽기 기술과 읽기의 즐거움을 가르치기 위해 부모가 매일 한 권의 책을 읽어주도록 독려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운영된다.

- 0~6세 어린이가 참가
- 어린이 참가자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
- 한 달에 최소 30권 이상의 어린이책(인쇄본)을 빌립
- 분기당 최대 3번의 행운박스 추첨의 기회를 얻음

이 프로그램은 (1)독서일지(Reading Journal)와 (2)행운박스 추첨(Lucky Draw) 두 가지 기본 요소로 구성된다. 부모와 자녀가 가정에서 독서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독서일지에는 연령에 맞는 독서활동 및 추천도서, 주제별 캘린더, 자녀의 독서를 격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스티커와 쿠폰이 포함되어 있다. 어린이들에게 매력적인 선물로 인기가 높은 행운박스 당첨자는 0~3세의 경우 세트A(보드북 상자), 4~6세는 세트B(그림책 상자)를 받는다.

한편 캠페인 기간 동안 낭독문화 확산을 위해 <Read With Me>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도서관 인스타그램 플랫폼을 통해 부모 또는 어른이 어린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사진 또는 동영상을 포스팅하면 경품 추첨의 기회를 준다.

싱가포르 국립도서관 위원회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6,000명 이상의 참가자가 75만 권을 대출하였고, 부모들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sup>22) 23)</sup>

### (3) 아동기관 지원과 협업

#### ① 미국(독서단체) | 성공을 위한 독서(Read for Success)

성공을 위한 독서(Read for Success)는 미국의 독서단체 독서는 기본이다(Reading Is Fundamental)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독서를 장려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독서 자립이 문해력 발달의 핵심임을 보여주는 광범위한 연구를 기반으로 교사 주도의 낭독과 아이들이 스스로 읽을 수 있는 기회 제공을 결합

한 모델로 (1)교실에서 책 읽어주기 (2)학생들이 선택하여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 책 제공 (3)교실 또는 가정에서의 독서를 지원하는 다양한 자료와 도구 3가지가 핵심 구성 요소이다.

- 읽어주기책 컬렉션: 리터러시 전문가에 의해 큐레이션 된 컬렉션
- 학생을 위한 책: 학생 스스로 선택한 책 6권, 독서일지, 책가방
- 진행자 가이드: 읽기 능력 개발을 위해 교육자가 설계한 독서활동<sup>24)</sup>
- 교사 지원: 프로그램 로드맵, 시범수업 등이 포함된 실행 가이드
- 부모 참여: 가정과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제공
- 리터러시 지원: 학생 스스로 배울 수 있는 자료 제공

교실 환경에서 읽기를 지원하기 위해 유치원부터 3학년까지 학생들의 읽기와 쓰기 영역에서 리터러시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된 컬렉션을 제안하고 있으며 모든 컬렉션에서 학제 간 주제, 다양한 문화 반영, 탁월한 삽화와 사진이 포함된 책, 픽션과 논픽션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 <과학적 탐구: Scientific Inquiry>

독자들이 질문을 하고 아이디어를 토론하고 실제 세계를 연결하도록 독려함으로써 과학적 탐구를 강조한다.

#### <사회 문제 및 역사적 사건: Social Issues&Historical Events>

어린이들의 성장에 적합한 이야기와 등장인물을 사용하여 사회적 문제, 새로운 아이디어 및 역사적 사건을 탐구하도록 구성하였다.

#### <문화: Cultures>

아프리카계 미국인 올림픽 높이뛰기 선수, 멕시코 벽화가, 여성 조종사, 꿈을 가진 햄스터 등 다양한 문화와 주제를 강조한 컬렉션이다.

#### <공동체: Community>

용기와 자기표현, 하나의 행동이나 아이디어가 세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주제를 탐구하는 책으로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는 컬렉션이다.<sup>25)</sup>

22) IFLA, Libraries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Section Newsletter, Spring Issue, 2022

23) 웹사이트 | childrenandteens.nlb.gov.sg 참조

24) 컬렉션에 포함된 모든 책에 대한 STEM 기반의 확장된 교육활동 포함

25) 웹사이트 | www.rif.org 참조



② 네덜란드(독서단체) | 보육시설에서 영감을 주는 독서 환경 구축

2020년 네덜란드 독서단체 모두가 읽는다(iedereenleest)와 플랑드르 지역 육아전문교육센터(VCOK:Vormingscentrum Opvoeding en Kinderopvang)가 협력하여 진행한 파일럿 프로젝트로 지자체, 공공도서관, 보육시설과의 협업을 통하여 보육시설에서 매력적인 독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졌다. Brakel(브라끌), Izegem(제헴), Ingelmunster(잉겔문스터), Merelbeke(메렐베케), Waregem(바레헴), Lebbeke(레베케), Overijse(오버이제), Turnhout(투른호우트), Hoogstraten(호흐스트라텐), Bree(브레이), Lier(리에르), Hulshout(홀쇼운) 등의 지역에서 총 12개 도서관과 14개 보육시설이 참여한 이 프로젝트를 통해 보육시설에 대한 물리적 독서 환경 구성뿐 아니라, 공공도서관과 보육시설 간 유대감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보육시설에서 매력적인 독서 환경 구성을 위해 적용할 수 있는 10가지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아름답고 다양한 도서 컬렉션 제공
- 모든 그룹에서 매력적인 독서 장소 만들기
- 독서를 일상적인 일과로 만들기
- 다른 활동에도 독서 포함하기
- 개별 또는 소그룹으로 읽기
- 다국어와 다양성에 주목하기
- 부모 참여시키기
-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
- 보육시설에서 독서 대사 임명하기
- 도서관과의 협업

이 프로젝트에서는 보육교사의 역할이 영유아의 독서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로 보육교사의 역할이 특히 강조되며, 보육시설의 직원들을 독서 코디네이터로 양성해내는 교육과정(영유아를 위한 대화형 독서)을 제공한다.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대화형 읽기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그것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보육시설에서 읽기 활동을 개발하고 동료와 직원에게 영감을 주는 활동을 하도록 독려한다.<sup>26)</sup>

26) 웹사이트 | www.iedereenleest.be 참조

<그림 2-2> 플랑드르 지역 보육시설의 독서 환경



Engelbewaarder 어린이집 새책코너/Izegem(벨기에)

캠핑 보키(Camping Boekie)/Izegem(벨기에)

Vlerkje 어린이집 야외에서 읽기/Merelbeke(벨기에)

독서코디네이터의 책 읽어주기 활동/Witte Wolk 어린이집, Lier(벨기에)

[이미지 출처 | www.iedereenleest.be/over-lezen/de-praktijk/inspirerende-leesomgevingen-de-kinderopvang-een-praktijkverslag]

(4) 다양한 컬렉션과 책 선정을 위한 도구

① 미국(사회적기업) | 모두의 책(The Stories for All Project)

이 프로젝트는 미국의 독서단체 퍼스트북(First Book)이 2013년 “더 다양한 캐릭터와 목소리를 큐레이팅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다. 다양한 문화와 인물을 이미지와 이야기를 통해 전달하는 아동 도서가 희귀하거나 너무 비싸기 때문에 퍼스트북이 지원하는 아이들이 자신의 경험을 반영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책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것에 착안했다.<sup>27)</sup> 이는 어린이의 독서 참여를 제한하고 점점 더 다양해지는 사회에서 살고, 배우고, 성장하는 방법에 대한 더 깊은 이해에 바탕을 둔 다음 세대를 성장시키는 사회적 역량이 줄어드는 것이므로 좀 더 다양한 캐릭터,

27) 2012년 위스콘신 매디슨 교육대학원 소속 연구 도서관(CCBC:Cooperative Children's Book Center)은 3,600권의 어린이 도서를 검토한 결과 출판된 도서의 3.3%만이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관한 것이며 2.1%는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1.5%는 라틴계, 0.6%만이 아메리카 원주민에 관한 것이라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목소리, 생활환경을 표현하는 질 높은 책을 선별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접근방식은 주목할 만하다. 2013년 퍼스트북은 출판업계에 아동 문학에서 거의 표현되지 않는 소수 민족, 유색인종 등 다양한 삶의 경험과 목소리를 담은 최고의 책(500,000 달러 상당)을 반쯤 불가로 구매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약 24개의 출판사가 경쟁에 참여했고, <News Corporation> 소유의 대형 출판사인 <Harper Collins>와 소수 민족 소유의 독립 출판사인 <Lee&Low><sup>28)</sup>의 제안이 채택되었다. 출판사의 제안에 따라 초기 금액의 2배인 100만 달러의 책을 구매하여 퍼스트북의 <Stories for All Project™>가 탄생했으며 오늘날에는 다양한 인종, 문화 및 라이프스타일을 대표하는 스페셜 에디션 인쇄 및 신중하게 선별된 도서들로 컬렉션을 구성하고 있으며, 자체 마켓을 통해 저소득층을 위해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있다. 2020년 퍼스트북 회원의 모든 구매 중 86%는 이 컬렉션에 포함된 책이 최소 한 권 이상이 포함되어 있으며, 매년 지원 대상 어린이들의 문화와 관련된 수십만 권의 책이 어린이들에게 전달된다. 비영리 독서단체이자 사회적 기업인 퍼스트북은 시장의 힘을 활용하여 사회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며 수천 개의 저소득 커뮤니티에서 책과 리소스에 대한 미개척 수요를 집계하여 출판 산업을 위한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② 영국(공공도서관) | 자폐스펙트럼장애 컬렉션(Autism Spectrum Collection)

아일랜드 던레러라스던(Dun Laoghaire-Rathdown)주 정부가 관할하고 있는 던레러라스던 도서관은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린이 또는 성인, 그리고 그 가족을 위한 컬렉션을 구성, 대출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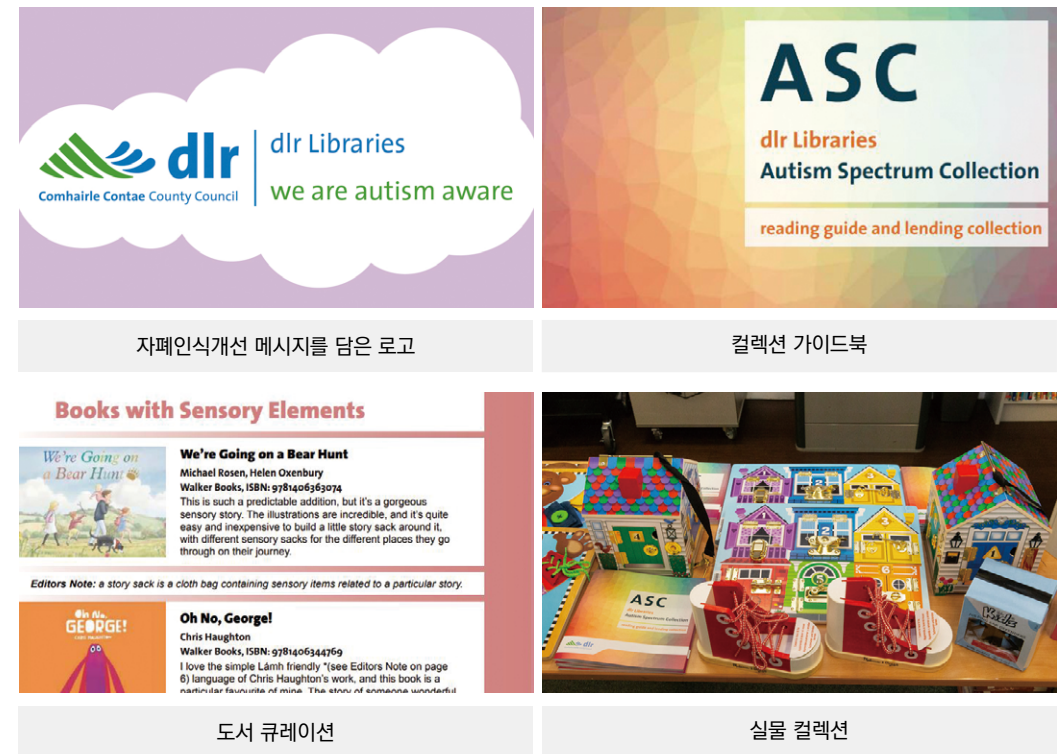
총 8개의 분관을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시스템은 자폐 커뮤니티를 위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워킹그룹을 조직하고 각 분관에서 다양한 실험을 전개한다. 이를테면 ‘조용한 저녁(quiet evenings)’, ‘감각/조용한 방(sensory/quiet room)’, 감각상자 활용, 자폐 인식개선의 달 운영 등 자폐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이용자 친화적인 이벤트를 전개하면서 아일랜드의 국립 자폐 자선 단체(AsIAM: Autism Spectrum Information, Advice and Meeting Point COLLEGE)로부터 자문과 교육을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2019년 가까운 지역 분관에서 신청하여 대출이 가능한 ASC 컬렉션을 선보였고, 2021년 수·소리·단어·문장 익히기 등 리터러시 기술을 개발하는 키트 등이 풍부하게 추가된 컬렉션을 새로 발표했다.

28) <Lee&Low>는 미국 뉴욕에 근거를 둔 출판사로 1991년 중국계 미국인 Tom Low와 Philip Lee가 설립한 다양성 관련 아동 도서 출판사이다. <Lee&Low>는 1993년에 발간한 첫 번째 책 <Baseball Saved Us>가 <The New York Times: Book Review>에서 전체 페이지 리뷰를 받아 주목을 받았다. 주로 그림책을 출판하지만, 최근에는 소수의 청소년 및 성인 도서도 출판하고 있다. [출처 | wikipedia] [웹사이트 | firstbook.org]

이 컬렉션에는 (1)작가 디어드리 설리번(Deirdre Sullivan)<sup>29)</sup>과 협력하여 선정한 도서와 읽기 가이드 (2)감각·촉각 장난감과 도구 (3)운동과 생활의 기술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장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가이드북의 도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나누어 소개하고, 읽기의 방법과 추천 활동을 제안하고 있다.<sup>30)</sup>

- 감각적 요소가 있는 책
- 이야기를 시각적으로 잘 표현한 책
- 아이가 관심을 가지는 분야의 책(레고, 탈것, 동물 등)
- 자폐인을 다룬 이야기와 논픽션
- 자폐인이 쓴 책

<그림 2-3> Autism Spectrum Collection 구성



[이미지 출처 | libraries.dlrco.ie/events-and-news/library-news/launch-dlr-autism-spectrum-collection]

29) 자폐 아동을 가르치는 교사이자 작가  
30) 웹사이트 | libraries.dlrco.ie 참조

## ③ 미국(비영리단체) | 사회정의도서(Social Justice Books)

사회정의도서(Social Justice Books)는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학생들이 읽고, 쓰고, 세상을 바꾸는 법을 배우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비영리 조직 변화를 위한 교육(Teaching for Change)<sup>31)</sup>의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아동 도서와 출판 산업의 다양성 격차에 대응하여 아동과 성인을 위한 사회정의도서를 심사하고 홍보하며 교육자를 위한 기사와 도서를 식별하고 큐레이션한다.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책은 다양성,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 사이의 권력관계, 다양한 사회적 정체성(예: 인종, 민족, 성별, 경제적 계급, 성적 취향, 장애)에 대한 사회의 태도를 반영한다. 어린이들이 책(기타 매체)에서 흡수하는 시각적 및 언어적 메시지는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과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양질의 아동도서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은 교육과 육아에 있어 필수적인 과제이다. 사회정의도서는 어린이들에게 제공되는 책에서 발견되는 편견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반편견 아동 도서 선정 가이드라인: Guide for Selecting Anti-Bias Children's Books><sup>32)</sup>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그림 또는 삽화에서 고정 관념 찾기** 고정 관념은 특정 정체성 그룹(성별, 인종, 민족, 계급, 성적 취향, 능력/장애)에 대해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경멸적이고 부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해당 그룹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한다. 어린이책에서 발견되는 해로운 고정 관념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 강하고 독립적인 소녀와 여성은 '남성적'
- 책을 좋아하거나 운동을 하지 않는 소년과 남성은 '여성적'
- 라틴계 남자는 웃기고 게으르며, 갱단원이거나 큰 솜브레로<sup>33)</sup>를 쓴
- 라틴계 여성은 지구의 어머니이거나 종속적
-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은 갱단의 일원이거나, 실업자
-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은 너무 독립적이거나, 복지 의존적
- 아랍 또는 이슬람 남성은 테러리스트

31) 변화를 위한 교육(Teaching for Change)은 "교실에서 시작하는 사회 정의 구축"을 모토로 1989년에 워싱턴 D.C.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교사가 유치원부터 12학년 교과 과정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선별, 개발하여 제공한다.

32) 이 가이드라인은 <인종차별과 성차별에 대한 아동 도서 분석을 위한 10가지 빠른 방법: Ten Quick Ways to Analyze Children's Books for Racism and Sexism>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2013년 개정되었다. 1980년 국제아동도서협의회(Council on Interracial Books for Children)는 <편견 없는 교과서와 동화책 선택을 위한 지침>이라는 책을 출판하였고, 뒤이어 팜플렛 형태의 짧은 버전인 <인종차별과 성차별을 위한 아동 도서를 분석하는 10가지 빠른 방법>이 출간되었다.

33) 스페인, 미국 남서부, 멕시코 등지에서 쓰는 펠트 또는 밀집으로 만들어진 테가 넓고 높은 모자

- 아랍 또는 이슬람 여성은 목소리가 없고 수동적
- 모든 무슬림은 아랍인이다 또는 모든 아랍인은 무슬림
- 아메리칸 인디언은 천막에 살고, 활과 화살을 가지고 다니거나 겨울에 반쯤 벗은 채로 삶
- 장애인들은 단순히 장애를 안고 살기보다 장애를 '극복'해야 함
- 성적 소수자(LGBTQ+) 또는 가난한 사람들은 보이지 않음
- 가난한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묘사
- AAPI(아시아계 미국인/태평양 섬 주민들)는 소수 민족의 모델로 묘사
- AAPI 또는 음식이 이국적이거나 비정상적
- 모든 AAPI는 무술을 알고 있거나, 온순하고 순응적
- AAPI는 비스듬한 눈으로 표현하거나 눈을 나타내는 선으로만 표현

**토큰리즘(tokenism)<sup>34)</sup>찾기** 책에서 어떤 그룹의 '한 사람'만 지속적으로 보게 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누가 더 중요한지 또는 덜 중요한지에 대해 가르치게 된다. 예를 들어 많은 백인 어린이 중 단 한 명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어린이가 있는 책이나, 다른 많은 책 중에서 장애 아동에 관한 책이 한 권만 있는 경우 한 그룹의 사람들에 대한 하나의 관점만을 볼 수 있도록 하여 편견을 강화한다.

**보이지 않는 사람 찾기** 어린이들은 책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누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에 대해 배운다. 교과서뿐만 아니라 책에서 자신과 같은 모습을 찾지 못한다면 아이들의 긍정적인 자아상을 약화시키게 되며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강화한다.

-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
- 블루칼라 노동자
- 음악가, 예술가 및 작가
- 두 명의 아빠 또는 두 명의 엄마가 있는 가족
- 미혼모 또는 아버지
- 노숙자 가족
- 투옥된 부모가 있는 가족

34) 토큰리즘은 실제로 차별적인 구조를 개선할 의지는 없으나, 소수 집단에 대한 포용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과소 대표되는 그룹의 사람들을 적은 수 포함하는 형식적인 관행을 말한다.

**스토리라인과 사람들과의 관계** 그림과 삽화에서 시각적 다양성을 보여주더라도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간의 권력관계를 다루는 방식에 따라 편견을 강화시킬 수 있으므로 스토리라인에서 다음과 같은 요소를 살펴볼 것을 권고한다.

- 유색인종 또는 여성 캐릭터가 본질적으로 백인 또는 남성 캐릭터의 보조적 역할인가
- 인정을 받기 위해 유색인종 아동, 소녀 또는 장애 아동이 비범한 자질을 나타내야 하는가
- 유색인종 아동, 소녀 또는 장애 아동은 이해, 용서받아야 할 대상 또는 변화해야 하는 대상인가
- 소녀와 여성의 성취는 자신의 주도성과 지성에 근거한 것인가, 아니면 외모나 소년 또는 남성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인가
- 문제가 어떻게 제시되고, 구상되고, 해결되는가/일반적으로 누가 문제를 일으키고 누가 해결하는가

**다양한 삶의 방식에 대한 메시지 살피기** 어린이책에서 다양한 삶의 방식(가족 구조, 생활환경, 사회경제적 조건 및 직업 유형, 가정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역할) 등을 반영하는 것은 중요하다. 더 나아가 이러한 묘사에서 궁극적으로 전달되는 메시지에 편향된 관점은 없는 지 살펴보아야 한다.

- 유색인종이나 빈곤한 사람들의 삶은 백인 중산층의 생활 규범과 불리하게 대조되는가
- 지배적인 계층 또는 문화와 다른 삶의 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가치 판단이 내포되어 있는가 (덜 바람직한 삶에서 '탈출'한 이야기)
- 이미지와 정보가 지나친 단순화를 넘어 등장인물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진정한 통찰력을 제공하는가
- 이야기의 설정이 현재의 삶을 반영하는가, 아니면 삶에 대한 과거의 가정을 반영하는가
- 특정 인종 또는 민족 그룹 내의 사람들 간의 다양성을 묘사하는가(백인을 포함하여 모든 인종 또는 민족 그룹에는 다양성이 있음)

**변화를 위한 행동에 참여하는 어린이와 성인에 관한 책 찾기** 어린이들은 불공정에 직면했을 때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옹호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또한 정의를 위해 일하고 있는 모든 사회적 정체성 그룹의 사람들에게 대해 알아야 한다. 스토리 라인에서 특별하고 개별적인 사람들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신화를 보여주는 것보다 함께 협력하여 이루어 내는 이야기인지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백인 남성 '영웅'뿐만 아니라 사회에 중요하고 영예로운 공헌을 한 사람들의 균형이 있는가
- 중요한 사람들에 관한 책에 정의를 위한 투쟁이 포함되어 있는가
- 가난하거나 유색인종 또는 소수민족 그룹의 사람들을 보여주는가
- 장애인들이 정의를 위한 이러한 투쟁에 참여하고 있는가

**작가나 일러스트레이터의 배경과 관점 고려** 모든 저자는 개인적 맥락뿐만 아니라 문화적 맥락에서 글을 쓴다. 동일한 배경을 가진 작가와 삽화가들의 작품들이 양산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의 문화적, 계급적 관점이 재생산되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작가의 작품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정의도서가 2017년 개발한 웹사이트(SocialJusticeBooks.org)는 SWWS<sup>35)</sup>(See What We See) 아동 도서 리뷰 데이터베이스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SWWS 리뷰는 (1)교사, 보육교사 및 사서가 책의 정보를 얻고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고 (2)어린이책을 만드는 작가, 편집자 및 일러스트레이터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3)궁극적으로 출판 업계의 책임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SWWS 데이터베이스는 출판 업계와 영리적 관련이 없는 비상업적 프로젝트로, 검토된 책은 권장/주의 사항이 있는 권장/권장하지 않음으로 분류하여 추천된다.

이 사이트에서 소개하는 도서는 독립서점 플랫폼인 <Bookshop.org><sup>36)</sup> 또는 오리건 주 포틀랜드에 기반을 둔 독립서점인 <Powells.com>에 연결되어 있다. 이 링크를 통해 구매한 도서 수익 중 일부는 변화를 위한 교육(Teaching for Change)으로 기부되는 선순환 구조를 확보하고 있다.<sup>37)</sup>

#### ④ 미국(독서단체) | 온라인 독서 플랫폼(Literacy Central)

미국 최대 규모의 아동 문해력 관련 단체인 <Reading Is Fundamental>은 어린이들에게 책을 제공함으로써 문해 환경을 구축하는 캠페인을 전개하는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Literacy Central)을 통해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한다. 어린이를 위한 책 선택을 비롯하여 다양한 독서활동에 필요한 자원들을 풍부하게 제공함으로써 독서 실행 주체들의 참여를 이끈다. 현재 10,000개 이상의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이 디지털 도서관은 교사, 아동 보육기관 종사자, 학생, 지역

35) <See What We See>는 어린이 및 청소년 출판물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활동하는 작가, 학자, 교육자, 사서 등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36) 2020년 독자들에게 온라인 쇼핑의 편리함을 제공하는 동시에 독립서점을 지원하기 위하여 88명의 서점 파트너와 시작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COVID-19를 계기로 2020년 말 1,000개 이상의 서점이 참여할 만큼 급성장하였다. <Bookshop.org>는 이익 공유 풀을 마련하기 위해 천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으며 공익적 사명에 입각해 이익의 80% 이상을 독립서점에 제공한다.

37) 웹사이트 | socialjusticebooks.org 참조



사회 파트너들이 누구나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

- FIND A BOOK: 연령, 주제, 유형, 읽기수준(렉사일)<sup>38)</sup>, 장르별 도서 검색
- TOOL: 가정과 기관에서 활용할만한 자료, 읽기보조도구, 모바일앱<sup>39)</sup>
- CENTERS: 다양한 기관과 협업한 특별 컬렉션, 활동팁, 연구자료
- RESOURCES: 교사, 부모, 자원봉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

RIF는 프로그램에 포함된 도서 이외에도 다양한 민간 기업 등과의 협업을 기반으로 구성된 특별 컬렉션과 그에 따른 독서활동 자료들을 제공하는 센터를 운영한다.

**지속가능한 미래 센터: Sustainable Futures** 기후 관련 기술과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Trane Technologies™)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센터는 어린이들이 지구를 이해하고 환경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컬렉션으로 <동물과 식물>, <천연자원>, <환경정의>, <STEM과 직업><sup>40)</sup> 과 같은 주제 리스트가 제공된다.

**SEL 센터: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이 컬렉션은 어린이들이 사회적, 정서적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졌다. 어린 시절은 이러한 기술 개발에 중요한 시기이며 SEL 컬렉션에 포함된 이야기와 활동을 통해 자신과 세상에 대한 이해를 키우는 동시에 읽고 쓰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 <감정: 다양한 감정을 이해하고 다루는 방법>, <우정: 공감을 연습하고, 서로의 말을 경청하고 우정을 발전시키는 방법>, <공정: 공정함의 개념을 이해하고 추구하는 방법>, <집중력: 시간관리, 인내, 책임, 목표 달성 등 어린이가 익혀야 하는 능력>과 같은 주제 리스트를 포함하고 있다.<sup>4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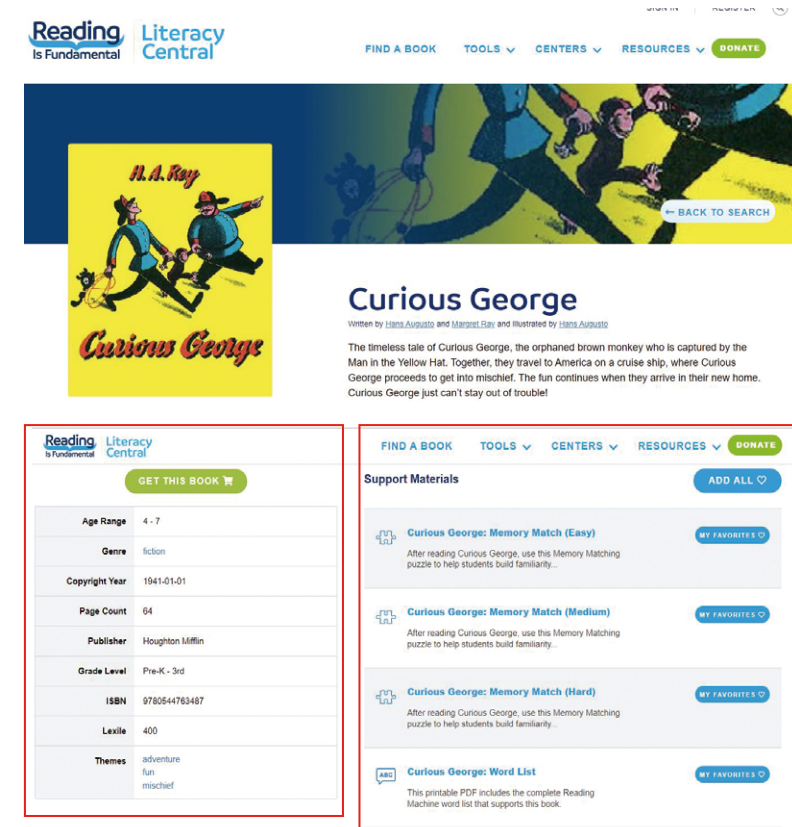
38) 렉사일(Lexile)은 1984년 미국 교육 연구 기업 메타메트릭스(MetaMetrics®)에서 개발한 영어 읽기능력 지수로 읽기능력과 텍스트 난이도 모두 측정할 수 있다. 텍스트 지수는 단어 반복도와 문장의 길이를 기준으로 정의하며 BR(Beginning Reader)부터 2000L까지 단계로 표현된다.

39) 도서의 ISBN을 스캔하면 해당 책과 관련된 모든 자료와 바로 연결되는 Literacy Central App과 어린이들에게 독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읽고 있는 책을 스캔하여 목록과 읽기 시간을 저장할 수 있으며, 부모나 선생님 등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Reading Log App을 서비스하고 있다.

40) 어린이 독자들이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및 수학(STEM) 분야 중 하나에서 직업의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영감을 주기 위해 고안된 컬렉션

41) 웹사이트 | www.rif.org/literacy-central 참조

<그림 2-4> Literacy Central: FIND A BOOK 메뉴



한 권의 책을 선택하면 도서 정보를 비롯하여 관련된 읽기지원 자료와 도구에 한 번에 접근할 수 있다. 자료는 게임, 퍼즐, 낱말찾기와 같은 활동자료, 수업계획, 영상, 컬러링 페이지, 인터랙티브 미디어, 작가 인터뷰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된다.

[이미지 출처 | www.rif.org/literacy-central]

⑤ 미국(상업용) | 다양성 컬렉션 분석 도구: Diverse Book Finder

<Diverse Book Finder>는 2021년 미국학교도서관협회가 선정하는 <Best Digital Tool>로 선정될 만큼 활용성이 인정된 도서 선정 도구이다. 북파인더는 2002년부터 출판된 어린이책 중 흑인과 원주민, 유색인종(BIPOC)이 등장하는 도서 DB를 구축, 분석하여 도서 선택을 위한 여러 가지 도구를 제공한다. 문화권별, 주제별 기본 검색과 장르, 연령, 교과 영역에 따라 확장된 검색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저자 또는 일러스트레이터 인터뷰, 수상 도서나 시리즈, 각종 기관 및 도서관 추천 목록을 제공한다. 특히 교사들을 위한 컬렉션 평가 도구를 제공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

인데, 현재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컬렉션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제공하여 추가 구매를 위한 기금, 예산 확보를 정당화하는데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sup>42)</sup>

〈그림 2-5〉 Diverse Book Finder: 컬렉션 분석 도구



[이미지 출처 | diversebookfinder.org/first-time-here-welcome-to-diverse-bookfinder]

42) 웹사이트 | diversebookfinder.org 참조

## (5) 어린이를 위한 큐레이션 서비스 현황

### ① 미국 | 공공도서관의 큐레이션 서비스

시카고 공공도서관을 포함하여 일리노이주 공공도서관들의 어린이 독서 지원 및 큐레이션 서비스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어린이 독서를 지원하는 자원 구축** 도서관 홈페이지에 어린이를 위한 웹페이지를 따로 구성하여 주제별 큐레이션, 책 추천 서비스, 프로그램 안내 등 도서관이 제공하고 있는 자료와 서비스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서비스한다.

**도서목록 아카이빙** 시카고 공공도서관은 도서관 블로그를 통하여 북큐레이션 서비스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용 대상에 따라 다양한 장르 또는 주제로 제공하는 사서들의 추천 목록이 1,738건, 기타 커뮤니티 추천 목록 124건<sup>43)</sup>이 아카이빙되어 있으며 그 외 지역사회 이슈, 흥미로운 활동과 관련된 도서들을 제안하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도서목록들은 하나의 책을 새로운 관점과 맥락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링크되어 있어 독자들의 선택에 있어 충분히 고려할만한 가능성과 독서 경로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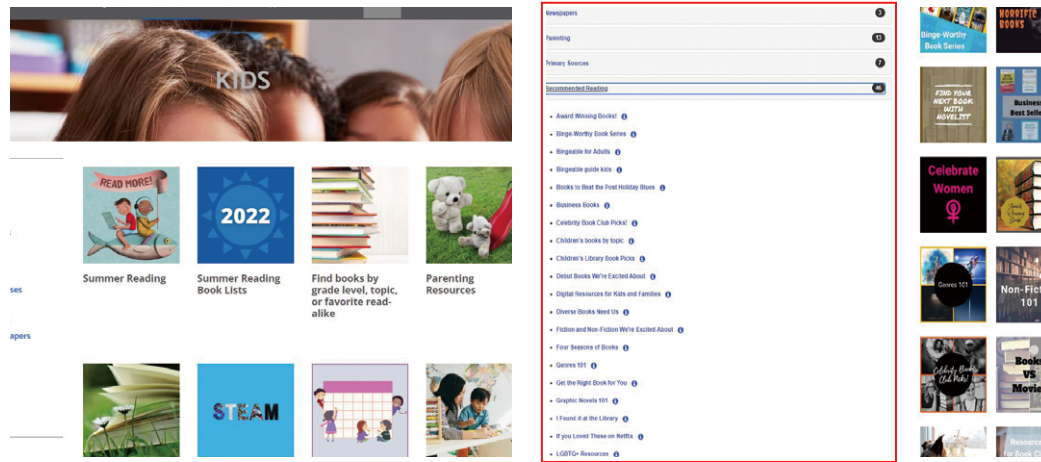
도서관에서 검색하는 모든 도서는 기본적인 서지사항을 포함하여 〈Publishers Weekly〉, 〈School Library Journal〉과 같은 주요 서평 매체의 리뷰, 독자 리뷰, 관련 도서, 해당 도서가 포함된 사서 리스트, 커뮤니티 목록<sup>44)</sup> 등 연관 정보가 제공되어 다양한 갈래로 확장하여 읽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개인 맞춤형 큐레이션** 네이퍼빌 공공도서관(naperville Public Library)은 어린이,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개인화된 도서목록 추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자가 제출한 간단한 질문지를 바탕으로 독자 지원 서비스 담당 직원이 제안하는 도서목록을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또한 0세에서 5학년 아이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를 분석하여 책, CD 형태의 자료, 영화, 음악 CD 등을 꾸러미(Family Reading Bundles) 형태로 구성하여 대출한다.

43) 2022.8.15. 현재 [출처 | www.chipublib.org/explore ]

44) 커뮤니티 목록은 다른 지역 공공도서관, 개인 등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목록 생산자와 발행일 등을 표시하여 제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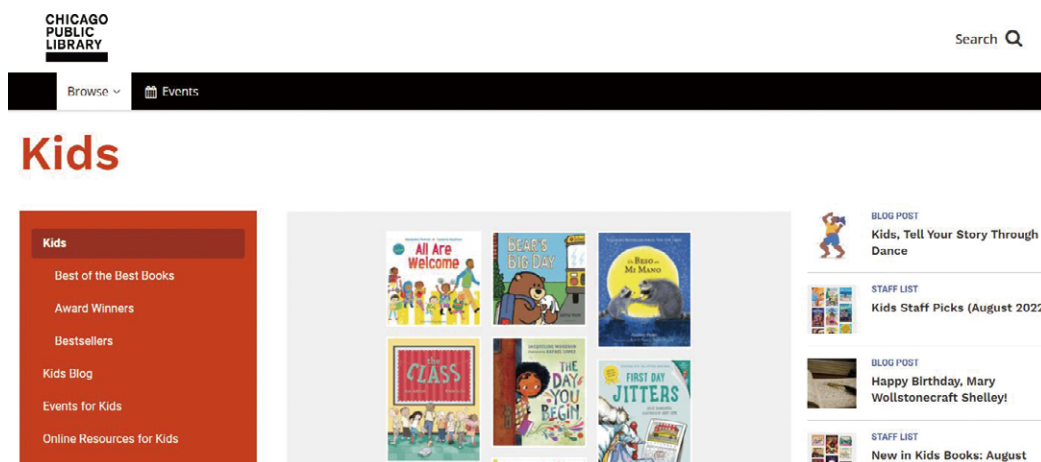
〈그림 2-6〉 미국 공공도서관 어린이 홈페이지



웨스트포트 공공도서관 어린이 페이지 / LibGuides Recommended Reading 카테고리 구성하여 독자와 관련된 온라인 자원(각종 목록, 주제 큐레이션, 도서 추천 서비스 등)을 안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westportlibrary.org/for-you/kids]

〈그림 2-7〉 시카고 공공도서관 어린이 페이지



신간 및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 큐레이션, 도서관에서 진행 중인 프로그램, 온라인 독서 자원 등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미지 출처 | www.chipublib.org/kids]

② 미국(상업용) | 서평 DB를 활용한 책추천 서비스

세계적인 학술 콘텐츠 제공사 엡스코(EBSCO)<sup>45)</sup>가 개발하여 도서관에 제공하는 있는 상용 패키지 <Novelist 시리즈>는 영어 기반 도서에 대한 서평 DB를 활용하여 도서관 이용자 대상으로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한다.

개인 맞춤형 추천 도서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간단한 질문지를 통해 요구를 분석하고 엡스코 사서 및 협력 사서들이 직접 책을 추천하고, 독자 상담을 진행한다.

도서관 DB와 연동 도서관 서지 DB와 연동하여 이용자가 검색하는 모든 도서에 대해 풍부한 정보를 포함시켜 노출함으로써 독자의 책 선택에 도움을 준다.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제공된다.

- 저자 정보, 지리정보, 수상 정보, 미디어 추천, 읽기 수준<sup>46)</sup> 등 제공
- 서평매체 <Booklist>, <Kirkus>, <Library Journal>, <Publishers Weekly>, <School Library Journal> 등 리뷰 및 독자 리뷰 제공
- 작품 낭독, 작가 인터뷰 등 비디오 콘텐츠 제공
- 그 외 추천 목록, 북클럽 베스트 목록, 장르 가이드 등 독서 지원 자료 제공

알고리즘에 의한 추천 책의 다양한 측면을 분석하여 개발한 스토리 요소(story elements)를 추천 알고리즘에 반영하였다. 특히 주제, 장르 이외에도 소구 요소(Appeal Factor)를 추가하여 독자의 입장에서 매력을 느끼는 책의 요소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소구 요소(Appeal Factor)는 NoveList의 중요 기능으로 (1)오디오 특성 (2)캐릭터 특성 (3)그림과 삽화의 특성 (4)이야기 전개 속도 (5)글쓰기 스타일 (6)줄거리 (7)분위기와 같은 범주에서 전문가들에 의해 개발된 다양한 검색 옵션을 통해 책을 추천 받을 수 있도록 한다.<sup>47)</sup>

45) 연구 분야별 학술DB, e-BOOK, 맞춤형 전자 자원 통합검색 등 다양한 학술정보를 도서관 또는 연구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46) Lexile지수와 Accelerated Reader 지수를 측정하고, 동일한 레벨 범위에서 도서를 추천한다. Accelerated Reader 지수는 텍스트의 문장길이, 난이도, 어휘 수준 등을 종합하여 미국 학생 기준 학년과 개월로 표시하는 도서 난이도 수치이다.

47) 웹사이트 | www.ebsco.com 참조



〈표 2-2〉 Novelist–Appeal Factor: 독자의 책 선택을 위한 검색 옵션

오디오 특성 Audio Characteristics	오디오 특성은 오디오북의 내레이션에 관한 사항으로 공연에 대한 설명(전체 낭독 또는 저자가 낭독 등)에서 음성 품질, 음색 및 내레이터의 예술적 전달을 설명하는 용어를 다룬다. 예) full cast, Comedic, Live Audience, Warm
캐릭터 특성 Character Appeals	캐릭터를 선택하는 기준을 다룬다. 독자가 좋아하는 캐릭터 스타일을 기반으로 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 Believable, Well-developed
그림 특성 Illustration Appeals	그림책과 그래픽 소설 등 삽화가 많이 포함된 책의 경우 독자가 이를 식별하는 데 적합한 용어를 다룬다. 예) big and bold
이야기 전개 속도 Pace Appeals	이야기가 전개되는 속도로, 스펙트럼의 양쪽 끝에 속하는 책을 식별하도록 설계되었다. 분명히 빠르게 진행되는 책이거나 안정적이고 측정 가능한 책을 대상으로 하며 중간에 있는 책은 페이스 어필 태그를 받지 않는다. 예) leisurely pace, Fast-paced
글쓰기 스타일 Writing Style Appeals	이 태그는 책에서 사용된 언어와 배경의 디테일 정도를 다룬다. 책은 어떻게 쓰여졌나,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나 언어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가, 아니면 줄거리에 비해 부차적인가, 저자는 독자의 경험을 풍부하게 확장시키고 있는가와 같은 것을 다룬다. 예) Richly detailed
줄거리 Storyline Appeals	이 태그는 플롯이 이야기를 이끄는가, 강력한 캐릭터가 이야기를 이끄는가, 줄거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가와 같이 독자가 원하는 구조의 책을 빠르게 찾는 데 도움이 된다. 예) Plot-driven, Character-driven, World-building
분위기 Tone Appeals	이 태그는 책이 독자에게 불러일으키는 느낌을 다룬다. 이야기의 분위기는 밝고 낙관적인가, 아니면 어둡고 위협적인가, 영감을 주는가 아니면 암울한가와 같이 가장 미묘하고 도전적인 매력 요소 중 하나이지만 독자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예) Funny, Moving

〈그림 2-8〉 Novelist K-8 Plus: 어린이책 추천을 위한 스토리 요소

**Different kinds of Illustrations**

Need a storytime book? **Big and bold** illustrations can be seen from across a crowd. **Detailed** books give young readers a chance to pore over the pictures. **Colorful** books are eye-catching for appealing displays!

**Big and Bold**  
These illustrations convey ideas visually in a simple manner easily understood by young children. The contrast between bright colors and bold lines makes the pictures easily visible from a distance, even within a large group (and thus these books are a great choice for storytime!)

**Black-and-white**  
The artwork is in black and white only, and may range from pen and ink drawings to watercolor-like effects in shades of gray.

**Bold**  
The shapes or lines in these illustrations have a strong and striking appearance. The artwork may consist of simple, basic, or block-like shapes, and the lines may be dark, distinct, or thick.

**Cartoony**  
This style features characters drawn with exaggerated, simplified features. Often humorous, it can be used to lighten difficult or disturbing themes.

**Charming**  
These illustrations are captivating and pleasing to the eye. Often cute and playful, they offer visual support for the light or upbeat tone in a story.

**Colorful**  
The full-color illustrations in these books feature vibrant colors. The artwork may vary widely, but the color palette is vivid.

AUDIENCE THIS TERM APPLIES TO:  
 INFANT (0-3) | CHILD (4-8) | YOUNG ADULT (9-13) | ADULT (14+)

어린이들이 주로 읽는 그림책은 일러스트의 색상, 그림 스타일, 분위기 등 다양한 관점에서 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미지 출처 | www.ebsco.com/novelist/products/novelist-k8-plus#sect2]

③ 프랑스(국가) | 교육부 권장 도서목록

프랑스 독서교육의 특징은 국어 시간뿐만 아니라, 기타 과목에서도 독서교육을 진행하는 통합교과형으로 이루어진다. 교육부에서 필수적으로 포함시켜야 하는 최소한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교사들은 이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수업내용과 교재를 구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프랑스 교육부(Ministre de l'Éducation nationale)는 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수업자료와 지침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각 학년별 권장 도서목록도 포함되어 있으며 교육 현장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수업에 활용할 책을 선택한다.

이 권장 도서목록은 초중등 학교 교사, 사서교사, 사서, 학자, 및 아동 문학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 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주기별(cycle)<sup>48)</sup>로 유치원에서 중학교까지 학생들의 수준, 요구 및 취향에 맞는 작품을 선택하는 데 유용한 참고 도구로 활용하도록 한다. 1주기에 해당하는 유치원 어린이를 위한 첫 문학 도서로 선정<sup>49)</sup>된 작품들은 문학, 구전 및 문자 문화에 처음 진입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며 2주기와 3주기 선정 도서들과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구성된다.

어린이들이 책을 사용하여 읽기 연습을 하고, 말과 언어를 정교하게 사용하는 데 익숙해지도록

48) 프랑스 학제에서는 학년과 사이클(cycle) 개념을 동시에 활용하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 전 3년 의무교육이 1주기, 초등학교 처음 3년이 2주기, 초등학교 최종 2년과 중학교 6학년이 3주기, 중학교 최종 3년이 4주기이다.

49) Ministre de l'éducation nationale(DGESCO), Sélection d'ouvrages pour une première culture littéraire à l'école maternelle [출처 | eduscol.education.f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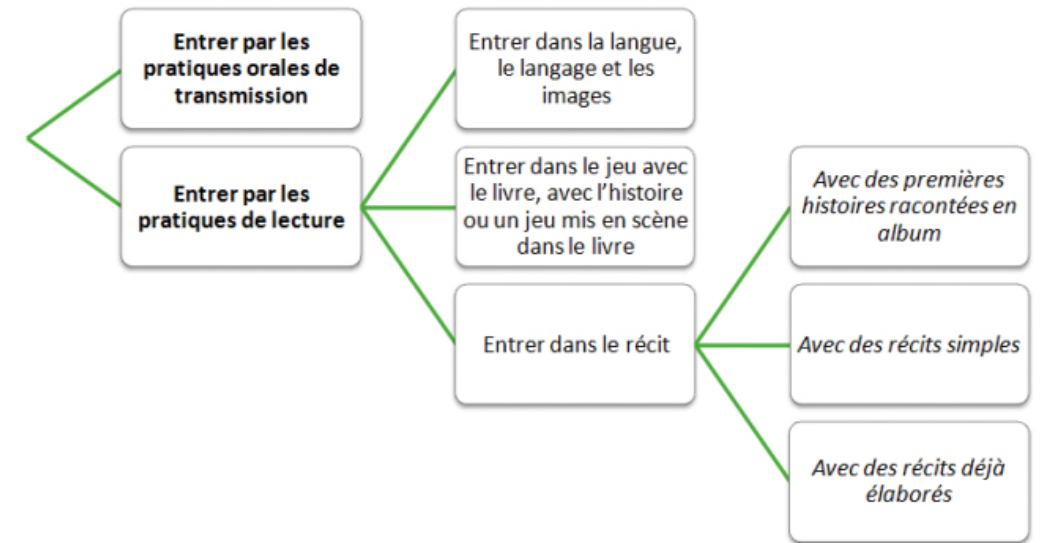
하며, 보편적인 범위의 이야기로 대화를 구성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이야기를 이해하는 능력을 갖 추도록 하는데 목표를 둔다. 또한 그림과 문자로 구성된 허구의 세계를 경험하고 시와 같은 다른 형태의 글쓰기도 접해볼 수 있도록 한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책을 반복해서 읽고 몰입하면서 놀이가 되고,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하고 상상력을 키움으로써 자연스럽게 읽기 문화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서목록은 위와 같은 목표에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먼저 구전과 읽기 연습으로 크게 나누고 읽기 연습에서는 (1)언어와 말, 그림에 접근하기 (2)책, 이야기와 놀기 또는 책에 연출된 놀이에 접근하기 (3)내러티브에 접근하기와 같이 세 가지 하위 범주로 구성된다. 세 번째 범주인 이야기에 대한 접근은 (1)그림책을 사용하여 들려주는 첫 번째 이야기 (2)정형화된 형식의 단순한 이야기 (3)정교한 내러티브에 접근하기와 같이 읽기 연습 단계에 따른 접근 방법을 제시한다.

각 범주별로 30권에서 50권의 도서가 추천되며 다양한 저자의 작품을 알리기 위해 전집 또는 선집의 저자를 제외하고, 각 저자의 하나의 작품만 선정한다. 전래동화(patrimoniales)와 고전(classiques)의 경우 텍스트 난이도가 읽기 연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하나의 버전을 채택하며, 1~4 척도로 나타내는 난이도는 각 범주별 접근 수준을 표시한다. 범주를 나누어 구성하였지만 각 범주들은 상호 보완적이고, 어린이들을 위한 최고의 작품들은 여러 범주에 속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도서가 속한 범주의 속성으로 도서를 한정시키지 않을 것을 권장한다.<sup>50)</sup>

50) 웹사이트 | eduscol.education.fr 참조

〈표 2-3〉 유치원 어린이를 위한 추천 목록의 범주



[이미지 출처 | www.ebsco.com/novelist/products/novelist-k8-plus#sect2]

④ 네덜란드(상업용) | 게임 형식의 어린이책 추천 어플리케이션

비블로(Bieblo)는 6세에서 14세 어린이를 위해 관심사와 나이에 맞는 독서팁을 제공하는 게임 형식의 어플리케이션이다. 플랑드르 지역을 중심으로 도서관, 지역문화센터, 정부, 예술 단체 등과 협력하여 각 기관의 디지털 요구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Cultuurconnect)이 개발하고, 지역의 공공도서관이 구독하여 이용자에게 무료로 서비스한다.

비블로는 어린이들이 서가에서 책을 찾는 일은 어려우며, 작은 상점 쇼윈도와 같이 책을 미리 보여줌으로써 선택을 돕는다는 아이디어에 기반한다.<sup>51)</sup> 어린이들이 나이를 입력하고 도서관 PC, 태블릿 또는 터치스크린 화면에서 좋아하는 스타일의 그림을 선택하면 나이와 주제에 맞는 책을 추천한다(한 번에 8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새로고침을 통해 계속 새로운 책을 추천받을 수 있다.

도서관 서지 DB와 연결되어 있어 추천받은 책을 곧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어린이들이 어른의 도움 없이 책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어린이들이 자립적인 독자로 성장해 가는데 스스로 책을 선택하고 취향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조건인 만큼 재미의 요소를 결합하여 어린이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시도이다.<sup>52)</sup>

51) 비블로 소개 영상 [출처 | www.cultuurconnect.be/diensten/bieblo] 참조

52) 웹사이트 | www.cultuurconnect.be 참조



## ⑤ 네덜란드(독서단체) |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책 추천 사이트(Boekenzoeker.be)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책 추천 사이트(책찾기:Boekenzoeker.be)는 네덜란드어 협회(Nederlandse Taalunie)가 네덜란드 독서재단(Stichting Lezen Nederland) 및 플랑드르어 재단(Stichting Lezen)과 협력하여 개발하였으며 0세에서 18세 사이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맞춤형 팁을 제공하고 독서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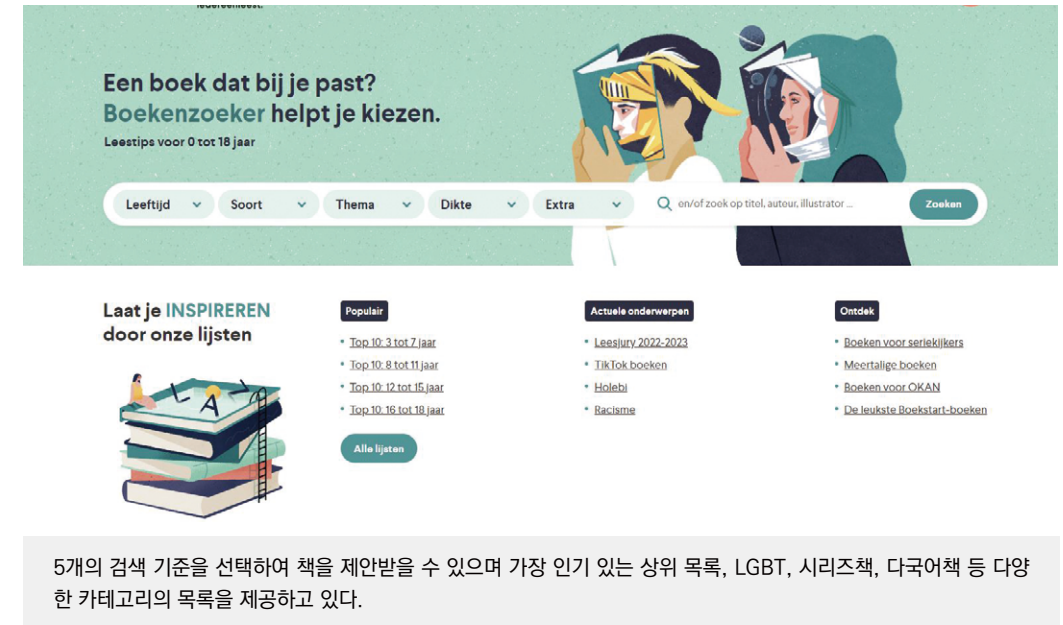
책찾기는 서평 사이트가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다양한 책을 접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 편집팀(교사, 평론가, 사서, 서점 등)이 세심하게 편집한 다양한 목록을 제공한다. 책찾기는 제목, 저자, 일러스트레이터 등으로 검색이 가능하며 (1)나이 (2)도서유형 (3)주제 (4)두께 (5)추가 정보(수상작, 고전, 읽기 쉬운 책, 네덜란드어 원작, 영상으로 만들어진 책 등)과 같은 5개의 검색 기준에 의해 책을 추천하며 다음과 같은 정보와 기능을 제공한다.

- 책 정보: 제목, 저자, 삽화가, 출판사, ISBN 번호, 페이지 수 및 표지와 같은 서지사항과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맞춤 제작된 간략하고 실질적인 설명 제공
- (LISTEN)FRAGMENT: 6+를 위한 책과 함께 책에서 짧은 발췌문을 제공하여 책의 분위기와 스타일을 미리 보여준다. Listen Point Library<sup>53)</sup>에서 책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짧은 오디오 조각을 들을 수 있다
- 태그: 태그는 책이 속한 검색 카테고리, 태그를 클릭하면 관련 도서 정보를 즉시 얻을 수 있다
- 추가 읽기 팁: 모든 도서에 추가 읽기 팁이 제공된다. 스타일, 주제, 분위기, 작가 등의 유사성으로 제안된다
- 도서관 정보: 우편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책이 플랑드르 또는 브뤼셀의 공공도서관에 있는지 즉시 확인할 수 있다(도서관 DB와 연동하여 서비스 제공)
- 투표 및 댓글: 독자는 책에 별을 주고 댓글을 남길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댓글도 읽을 수 있다
- 공유: Twitter, Facebook 또는 메일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책 팁을 공유할 수도 있고 Pinterest 보드에 책을 고정할 수도 있다
- 목록 만들기: '내 책 목록' 버튼을 사용하면 학생들이 읽고 싶은 책을 인쇄 가능한 책 목록에 추가할 수 있으며 PDF로 저장하거나 이메일로 보낼 수도 있다<sup>54)</sup>

53) 난독증이나 시각장애 등 읽기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친숙한 환경인 데이지(Daisy: Digital Accessible Information System)자료를 제공 [웹사이트 | [www.luisterpuntbibliotheek.be/nl](http://www.luisterpuntbibliotheek.be/nl)]

54) 웹사이트 | [boekenzoeker.org](http://boekenzoeker.org) 참조

〈그림 2-9〉 책찾기 Boekenzoeker.be: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책 추천 사이트 메인 페이지



[이미지 출처 | [boekenzoeker.org](http://boekenzoeker.org)]

### 3) 국내 북큐레이션 현황과 독서활동

전집 출판이 대세였던 어린이책은 1990년대 단행본 출판과 어린이서점의 활성화 와 함께 좋은 책을 읽히려는 움직임도 태동되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국외 그림책과 동화책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상황에서 우리 문화와 정서 등이 담긴 책을 다루어 출판하여 읽히려 했다. 좋은 어린이책을 바라보는 관점, 주목받는 어린이책은 그때의 시대상을 담아 변화되고 있지만 ‘책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교육’이라는 거대한 문 앞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런 까닭으로 영유아, 어린이 교육 과정 중심의 책 출판과 그와 관련된 책들이 우선 순위로 추천되는 문화는 독서지도 중심의 활동에서 즐거움을 위한 독서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있고 최근 대두되고 있는 비독자 양산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하겠다.

북큐레이션을 기반으로 한 국내 독서진흥활동을 살펴보면 (1) 좋고 잘 만들어진 책을 선정하여 보급하는 사업이 활성화되었고 (2) 하나의 독서진흥활동이 특색없이 명칭만 달리하여 지자체로 확산 운영되고 있으며 (3) 최근 사회적 이슈, 트렌드에 기반한 다양한 북큐레이션 작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4) 도서관 등 어린이 관련 기관, 어린이책/독서전문가, 다양한 독자(어린이 포함)들의 협업으로 자료를 선정하며 소비자(prosumer) 문화가 증가하고 있다. 그에 반해 (5) 현 큐레이션된 자료 목록(Excel, PDF, 목록집 등)은 도서관 수서와 구입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제공되던 오래된 방식에 머물러 있으며 독자들이 읽고 싶은 책을 발견하고 책 읽기를 북돋우는 환경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 (1) 도서 선정 기반의 책 선물을 통한 독서운동

영유아기의 뇌 발달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아기들에게 말을 걸고, 노래를 불러주고, 책을 읽어 주는 일은 아기들의 언어 습득에 영향을 끼치고, 어린이가 자라는 환경은 어린이의 사전 독서(pre-reading)능력의 발달과 관련성이 깊다고 하였다.<sup>55)</sup> 그런 의미에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아기가 책을 즐겁게 만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발달 단계에 맞는 재미있고 잘 만들어진 양질의 자료를 풍부하게 제공하는 일과 양육자(부모, 교사 등)의 참여를 독려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하에 일상생활에 책 읽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독서진흥 활동을 제공하는 일 등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들은 균형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55) IFLA 어린이청소년도서관분과, 『도서관서비스지침-영유아·어린이·청소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① 북스타트코리아 | 북스타트(Book Start)

북스타트는 40여 개 이상의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세계적인 프로그램으로 북스타트코리아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펼치는 아기와 부모가 그림책을 놓고 깔깔 웃고 춤추고 노래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영유아 독서운동으로 약 72%의 지자체에서 도서관 중심으로 그림책 꾸러미를 선물하고 영유아와 양육자를 위한 프로그램, 공동육아 모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꾸러미에 들어갈 그림책은 시행 기관별로 북스타트코리아에서 선정한 도서목록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 선택한 그림책은 책놀이 프로그램에 활용된다. 선정 자료는 기적의도서관 등 북스타트 시행 도서관에서 별도의 북스타트 컬렉션 서가를 운영하며 자녀의 연령에 해당하는 좋은 책을 골라 읽히고자 하는 양육자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우리 나라 북스타트는 지자체에서 활성화 방안으로 서울형 북스타트를 운영하기도 하고, 청주의 아이러북(LoveBook)처럼 북스타트의 기본 구조를 취하며 다른 이름을 사용하며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 대상: 0~18개월 미만(북스타트), 19~35개월(북스타트 플러스), 36개월~취학전(북스타트 보물상자)
- 도서 선정 목적: 영유아, 어린이, 양육자에게 좋은 책을 만날 수 있는 기회 마련 영유아, 어린이를 위한 국내 출판과 창작 진흥 도모
- 대상 자료: 북스타트 취지에 맞는 국내 순수 창작물을 대상으로 하며, 도서 선정을 위한 심사일로부터 1년 전(출간 기간 공고)에 출간 책
- 심사요청 자료 제출: 출판사는 심사일까지 심사요청 도서목록을 제출하고 실물도서를 지역 위원회(3~4곳)와 북스타트코리아에 제출
- 도서 선정기준
  - 북스타트 취지에 맞는 국내 순수 창작 도서
  - 북스타트 단계별 연령에 맞는 도서
  - 정치·종교·상업 등 특수 목적 도서 배제
  - 학습 도서 배제(인지발달, 두뇌발달, 지능발달, 창의력발달 등)
  - 인종 또는 장애 등에 대한 편협한 시각을 드러내는 도서 배제
  - 출간 기간 내 출간된 도서
  - 전집, 동화책, 번역서, 재판된 책, 판권 이전 후 재출간된 책 배제

- 도서 선정 방식
  - 선정 기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매년 서로 다른 지역의 기관 3~4곳을 선정하여 지역 선정위원회 결성
  - 1차 선정: 북스타트 1단계, 2단계, 3단계, 초등북스타트(책날개) 등 각 단계별로 구분하여 출판사에서 심사 요청한 도서를 각 지역선정위원회에서 직접 읽고 평가하여 최종 각 단계별 30권 내외로 선정하여 북스타트코리아에 추천
  - 최종 선정: 각 지역선정위원 1인과 아동문학/독서전문가로 구성된 북스타트 도서 선정 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도서 선정 결과<sup>56)</sup>
  - 5년간 도서 선정 결과를 살펴보면, 북스타트 1단계는 2018년부터 2022까지 출판사와 선정 도서의 수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북스타트 1/2/단계 도서 선정 대상 출판수(중복 제거)는 2018년 33개, 2019년 35개, 2020년 33개, 2021년 45개, 2022년 40개로 나타났다. 이 중 5년 동안 1종 이상 북스타트 도서로 선정된 출판사는 총 10개로 보림출판사, 길벗출판사, 창비, 비룡소, 사계절출판사, 이야기꽃, 책읽는곰, 킨더랜드(반달), 한림출판사, 한솔수북이 이에 해당된다.

〈표 2-4〉 2018~2022년 북스타트 선정 자료 현황

구분	0~18개월 미만 (북스타트)		19~35개월 (북스타트 플러스)		36개월~취학전 (북스타트 보물상자)	
	선정(종)	출판사(개)	선정(종)	출판사(개)	선정(종)	출판사(개)
2018년	16	8	23	16	39	21
2019년	21	12	25	13	35	22
2020년	14	12	27	19	22	16
2021년	29	16	29	22	28	21
2022년	27	20	25	17	29	21

- 선정 자료의 공유
  - 홈페이지: 연령별 북스타트 & 꾸러미 도서에서 이미지가 삽입된 Excel 파일로 제공하고, 공지사항에서는 PDF 파일로 제공
  - 독서문화플랫폼 책씨앗에 기관별 추천도서에 '북스타트'- Excel 파일 제공하고 있으나 로그인 후 이용 가능

56) 2018~2022년까지 선정된 북스타트 자료 목록을 기반으로 정리한 것임

아래 자료는 2022년 영유아 북스타트 지역도서선정위원으로 활동한 4인이 도서 선정 작업을 마치고 남긴 소감(총평)<sup>57)</sup>이다.

“북스타트는 자료실 관리,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 등 다양한 업무 중 하나였다. 미래 세대의 아이들에게 책을 실질적으로 전달해주고 또 심적으로 가깝게 해주려는 좋은 취지의 ‘업무’였다. 혼자 하는 일은 업무가 되지만, 함께하는 일은 업무보다 다른 의미를 지닌다. 함께하는 것의 힘이다. 이번에 북스타트코리아의 간사님, 아동문학평론가, 다른 지역 도서관 담당자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 도서 선정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애로사항, 북스타트 선정도서목록에 형견책 선정 여부와 같이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이야기들이 오갔다. 직접 책을 전달하고 책놀이를 운영하는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북스타트에 영향을 주고, 북스타트의 결정이 다시 현장에 영향을 준다. 북스타트 도서 선정을 위한 이번 회의는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 김○○ 사서(대전 서구어린이도서관)

“어린이독서팀에서 2년 동안 북스타트 행사와 그림책 북큐레이션 운영을 하면서 그림책을 조금 알고 있다는 생각에 참여하게 되었다. … 제일 어려운 단계는 북스타트 도서 선정이었다. 대부분 비슷비슷한 내용과 그림이어서 공부할 필요가 없는 단계였다. … 그림책 선정기준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은 ‘인권감수성’에 위배되지 않는지, 연령에 맞는 책인가, 하는 점이였다. 그림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좋은 부분 아쉬운 부분을 짚어가며 보물을 발견한다는 기분으로 꼼꼼하고 신중하게 선정 작업을 마쳤다. 올해 심사 도서를 받아보면서 느낀 것은 신인 작가와 신생 출판사가 많아 그림책 출판의 희망을 볼 수 있었다는 점이였다. … 특히 도서관에서 도서 구입에 영아 책 구입에 조금 소외되었는데 영아 도서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좋은 책을 구입할 수 있는 시야를 갖게 되었다.” - 김○○(대전 한밭도서관)

“… 각 출판사에서 보내 준 그림책은 사서가 단계별 1차 분류를 하고, 각자 책을 집으로 가져가 자녀들과 함께 읽고, 개별 평가를 하였다. 그 후 다시 모여 단계별 총 3회에 걸쳐 선정 회의를 하였다. 요즘 출간되는 그림책들이 만화적 요소가 많아 아이에게 읽어주기엔 어려운 책들이 많고, 환경 그림책이나 어른들을 위한 철학적이고 어려운 주제의 책도 많아 북스타트에 적합한 책을 고르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간 0~18개월에 해당하는 아기 책의 경우 출간이 적어 걱정이었는데 올해는 몇몇 신진 작가들의 아기 책 도전이 반가웠다. 반면 분량이 가장 많았던 보물상자 단계의 그림책은 오히려 선정 작업이 더디고 힘들었다. 아이와 어른이 보는 관점이 달라 좋은 그림책을 골라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림책 여행이 좋았고, 성장할 수 있는

57) 출처 | bookstart.org:8000/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349&page=2



값진 시간이었다고 선정위원들은 말했다. 아이도 양육자도 책으로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이 북스타트의 본질이 아닐까 싶다.” -정○○ 사서(춘천 담작은도서관)

“...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제약이 있었다. 그래서 화성시에서는 많은 사서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1차와 2차 2개의 선정위원회를 꾸려서 여러 번의 회의 과정을 거쳤다. (중간 생략)

책을 위해 시간을 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책을 좋아하는 이들이 모여 도서관을 위해 일하는 곳이지만, 막상 책 한 권 제대로 들여다 볼 시간 없이 각자의 업무로 항상 바쁜 게 우리의 일상이다. ... 이곳에 들어와 일하면서 가장 즐거운 일이었다고 고백한 사서도 있었다. 도서 선정을 통해 그림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중간 생략) 2차 도서선정위원회에는 화성시 18개 공공도서관의 북스타트 담당자들이 모여서 1차 도서선정위원회에서 북스타트 보물상자 단계 선정 도서 중 출판사가 동일한 추천 도서들을 검토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 하지만 사서들에게 도서 선정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함께 모였기에 올해 진행한 프로그램이나 책 꾸러미 배부 건에 대해 의견을 공유할 수 있었다. (중간 생략) 영유아 국내 출판문화를 이끌고, 창작을 진흥한다는 면에서도 도서 선정은 큰 의미를 갖고 있다. 국내 그림책이 다양한 측면에서 많이 발전하고 있으나, 그 발전의 반대 측면으로 오히려 어른들의 시선이 반영되어 영유아 도서로 적합하지 않은 그림책도 다수 발견되었다. 대상 독자가 엄마, 어른들, 청소년, 초등학교 등으로 확장된 만큼 영유아만을 위한 좋은 도서 찾기는 어려움이 있었다. ... 무엇보다 도서 선정 작업을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고 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 지○○(화성 도서정책과)

2022년 북스타트 지역 도서선정위원으로 참여한 분들의 소감을 통해 1)북스타트가 부진했던 영아의 그림책 출판에 영향을 주고, 2)북스타트 자원활동가와 자녀가 함께 읽었거나 지역 단위의 북스타트 담당 사서들이 함께 모여 그림책을 읽는 등 지역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책 읽기를 북돋우며 자료 선정을 했다는 것, 3)자료 선정을 위한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4)어린이보다는 성인을 위한 그림책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출판사에서 주력하는 출판 분야의 우선 순위(총 31순위)<sup>58)</sup>에서도 나타났는데 그림책 자체는 14위였지만 유아와 영아 대상은 각각 25위와 30위였다. 영유아 대상의 책을 기반으로 한 독서진흥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지점이라 생각된다.<sup>59)</sup>

58)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1 출판산업실태조사(2020년 기준)』, p.65~72, 2021

59) 웹사이트 | bookstart.org 참조

## (2) 양육자(부모, 교사 등)의 참여 이끌어내기

우리 환경은 어릴 적부터 책을 읽은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그 생각은 코로나19 이후 책을 많이 읽어야겠다는 강박으로 나타나 '책육아'가 트렌드가 되어 책 읽기를 더 어려워하며 어린이들이 성장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스런 측면도 낳고 있다. 최근 출판된 책육아 관련 서적 중에는 3년간 세 남매와 함께 6,200권의 책을 읽었다거나 유·초등생 두 남매를 키우며 2,000여 일간 책육아를 지속하고 있다거나 하는 등의 사례들이 실려 있는데 이로부터 받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책육아는 육아의 90% 이상을 책으로 하고, 아이가 책과 친숙해지도록 책 읽기 습관을 길러주고, 부모와 아이가 같이 책을 읽고 함께 읽은 책은 책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sup>60)</sup> 코로나 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격리 등의 경험은 개인화는 강화되고 공동체 경험의 기회는 약화되었다. 이런 현상들은 사회적으로 '독박'과 '할마 할빠'라는 육아 문제로 대두되었다. 걱정처럼 책육아로 인해 책 읽기를 더 어려워하게 되는 등 부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정에서 책 읽기를 통해 부모와 자녀가 서로 교감을 나누고 책을 평생의 친구로 만들어줄 수 있는 장점을 잘살린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이다.

오래전부터 국내에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다른 나라의 다양한 독서진흥활동이 소개되고 알려졌다. 그 가운데 국내에 도입되어 안정적으로 체계화하고 확산한 대표적인 독서진흥활동은 2003년에 시작한 북스타트를 꼽을 수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를 전후하여 5~7세를 대상으로 한 1000책읽기 캠페인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팬데믹을 경험한 지역사회는 누구에게나 차별받지 않고 소외되지 않으면서 서로 소통하며 책을 즐겁게 만날 수 있는 공간, 발달 단계에 맞는 잘 만들어진 자료의 제공,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재미있고 다양한 방식의 독서진흥활동을 필요로 한다. 이때 각 지역의 현황 및 실태를 고려한 지역에 적합하고 필요한 독서문화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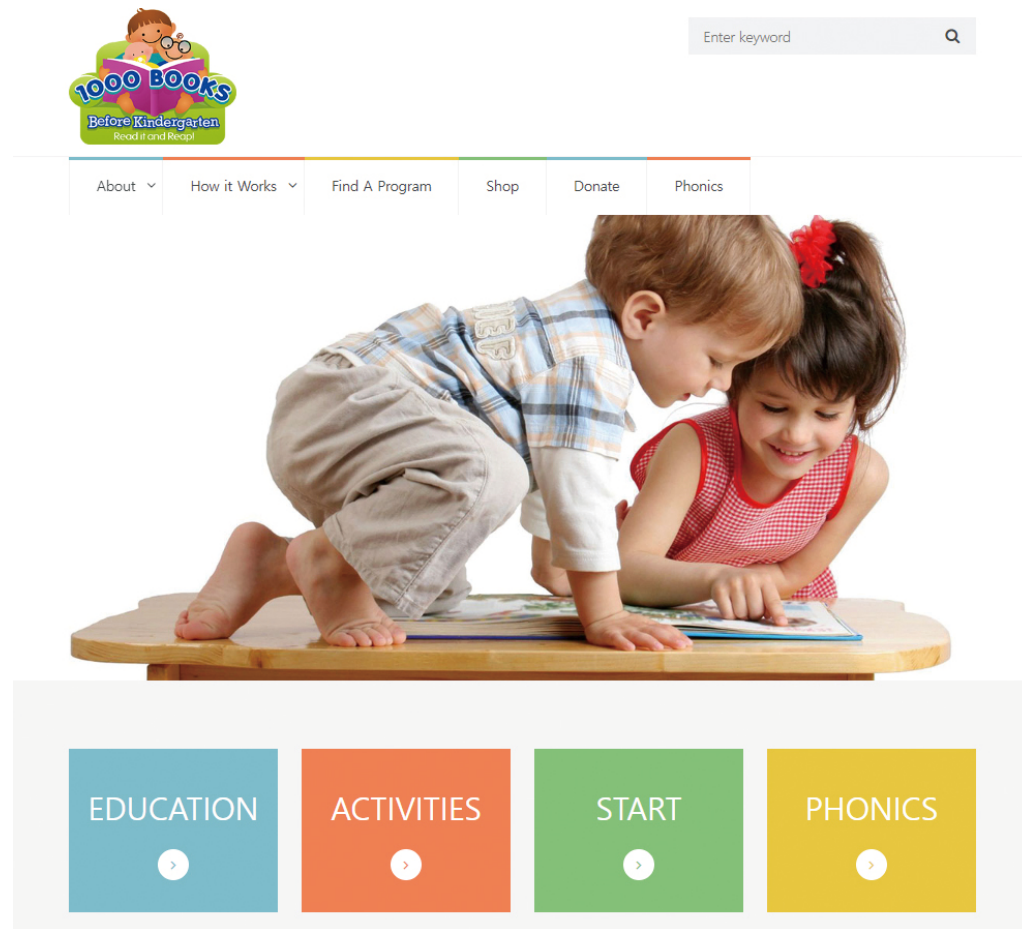
1000책읽기(1000 books before kindergarten)는 뎀 폭스의 <Reading Magic><sup>61)</sup>책에서 착안하여 인디애나주의 시골의 한 도서관에서 시작되었다. 1000책읽기는 1000도서재단(1000 Books Foundation)에서 5세 이전에 1000권을 매일 1권씩 자기 전에 3년간 꾸준히 읽어주어 유아의 독서를 촉진하고 부모와 자녀의 유대감을 장려하는 유치원 초기 문맹 퇴치프로그램으로 미국 전역의 공공도서관에서 시행하고 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하는 책 읽기를 독려하기 위해

60) 기사 '책 읽어주기' 육아? 그 현상의 허와 실 참조 [출처 | 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71678]

61) 국내 출간 도서 참조 | 뎀 폭스, 『하루 10분 책육아』, 로그인, 2015

공공도서관에서 도서추천목록을 제공하고, 책 100권을 읽을 때마다 보상으로 스티커나 책을 선물하기도 한다.

<그림 2-10> 1000책읽기 홈페이지



[이미지 출처 | www.1000BOOKSBEFOREKINDERGARTEN.org]

국내에서 첫 시작은 2018년 안성시립중앙도서관의 <안성시립도서관과 함께 1000책읽기>와 서울시 중랑샘어린이도서관의 <취학 전 천 권 읽기>라 할 수 있다. 1000책읽기는 서비스 대상(5~7세)은 모두 똑같지만 2019년 경기도 이천 <세상을 바꿀 천 권의 책(세천책)>, 2020년 경상북도 안동 <1000책읽기 프로젝트>, 2021년 경기도 양평 <우리 아이 천권의 기적>, 청주 <서클로 함께 천일의 약속, 일상 속 책 읽기 - 우리 아이 천 권의 그림책 여행>, 2022년 경기도 광주 <내 아이 읽기 독립, 천 권의 책마중 프로젝트>, 전라북도 완주 <1.1.3 독서운동(하루 한 권씩 3년간)> 등 지역마다 각기 다른 명칭을 사용하며 특별한 차별성은 없이 공공도서관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5권 또는 10권이

담긴 책꾸러미를 대출하여 읽고 스티커를 붙이거나 스탬프 도장을 찍고 1000권 읽기 미션을 완료하면 시상식을 하는 등의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한다. 처음 '1000책읽기'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도서관은 앞선 사례에서 아이들에게 어떤 책을 읽게 할 것인가에서 시작된 북큐레이션 과정과 북큐레이션 자료의 공유 방법, 북큐레이션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어떻게 확장해 나가고 있는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① 안성시립도서관과 함께 1000책읽기<sup>62)</sup> | 사서 중심의 북큐레이션

어린이자료분과 회의 시 2018년 북큐레이션의 한 부분으로 유아를 대상으로 미국 공공도서관의 1000책읽기를 도입하여 시작하게 되었다. 유아에게 책을 골라주는 사람은 대부분 부모이며, 그들은 내 아이에게 맞는 책을 고르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 이런 어려움을 느끼는 부모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좋은 책을 선별하여 꾸러미로 만들어 제공하고 가정에서는 자녀에게 책 읽어주기를 할 수 있게 하였다.

- 슬로건: 하루에 한 권, 책을 읽어주세요. 독서는 즐거워요!
- 대상: 5~7세
- 운영주체 및 인원: 안성시립공공도서관, 사서 10명(안성시 공공도서관 5개관 사서 2명씩 참여)
- 꾸러미수 및 구성: 총 100꾸러미, 1꾸러미 10권(쉬운책 1권/재미있는 책 3권/옛이야기책 1권/정보책 1권/국내작가책 1권/일본작가책 1권/영미작가책 1권 등) 구성
- 운영의 실제
  - 이용방법: 신청서를 작성하고, 스티커 판 받기 → 사서선생님께 데스크에서 책 꾸러미 대출 → 꾸러미의 책 10권을 엄마아빠와 함께 읽기 → 책 꾸러미를 사서선생님께 반납, 동그란 스티커 받기 → 동그란 스티커는 스티커 판의 숫자 중 내가 읽는 꾸러미 번호에 붙이기 → 스티커 판을 보고, 내가 안 읽은 꾸러미의 책들을 더 읽으면 1000책읽기 완료
  - 7월 안성시립중앙/공도/진사도서관 3곳 시범 운영. 1개월만에 100꾸러미 모두 대출. 2019년 3월 보개도서관과 일죽도서관으로 확대. 꾸러미가 부족할 경우에는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대적으로 대출이 낮은 보개도서관과 일죽도서관의 꾸러미를 순환하여 서비스
- 완료 주기: 1000권 읽기를 완료하기까지 초기에는 6~8개월 소요되었다면 현재는 2~3년 소요. 본래 의도대로 하루 한 권 읽기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62) <안성시립도서관과 함께 1000책읽기> 운영 사례보고서 및 인터뷰 내용 정리

- 이용자 평가 및 변화: 우수한 도서 선정에 매우 긍정적이었고 다양한 주제의 책을 읽을 수 있음을 장점으로 꼽음. 도서관 이용 경험이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도서관 방문 증가하였고 1000권 이외에도 기타 자료 이용 활발
- 1000책 북큐레이션 과정
  - 기초자료 수집: 사서들이 직접 읽고 추천한 5~7세를 위한 그림책, 안성동화읽는어른모임에서 추천한 그림책, 안성시립공공도서관 관장님의 개인 추천 목록을 포함하여 1,031권 수집
  - 자료선정기준:
    - 첫째, 유아(5~7세)에게 읽어주기 좋은 재미있는 이야기 그림책
    - 둘째, 출판년도와 상관없이 2019년 3월까지 출판된 픽션(fiction)과 논픽션(non-fiction) 모두 포함시키기
    - 셋째, 전집·팝업북·글없는그림책·퍼즐책은 제외하기
  - 자료선정과정: 기초자료목록에서 절판도서가 20% 차지하여 새로운 추천 작업을 했고, 그림책을 한 권 한 권 사서가 직접 살펴보고 직접 읽는 과정을 통해 너무 어려운 책은 빼는 등 4차에 걸쳐 작업 후 최종 선정
  - 선정 자료 구입 및 관리: 1000책으로 선정된 자료는 새 책으로 구매, 책등에 1000책 라벨 부착, '1000책' 키워드로 도서 검색 가능
- 서비스의 확장
  - 이용자의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위한 1000권 읽기 요구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위한 책꾸러미 운영. 초등학생은 1~2학년 5권, 3학년 이상부터는 3권 정도로 책꾸러미를 제공하고 있음. 중학생을 책꾸러미 사업도 시행하고 있는데 초등 고학년부터 학년이 올라갈수록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음
  - 소외계층을 위한 연계사업: <책이 부릉이야기>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어린이에게 1000책읽기와 연계하여 수준별로 꾸린 책꾸러미(기록장 제공)를 도서관에서 직접 배달하고 원하는 어린이에게는 책을 읽어줌
- 선정 자료의 공유
  - 홈페이지 - 독서마당 - 독서프로젝트 - 도서관과 함께 1000책읽기: 도서관과 함께 1000책읽기 목록 다운로드(PDF)
  - 안성시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와야 본 선정도서목록 자료를 참조할 수 있음
- 자료 선정 관련한 필요한 개선 방안
  - 어린이 전문사서 양성: 잦은 보직으로 인한 양성의 어려움

- 교육 지원: 좋은 그림책이란 무엇인가, 책 평가(선정) 기준, 책선정 워크숍, 서평쓰는 법

<그림 2-11> 도서관과 함께 1000책읽기 서가 모습



[이미지 출처 | www.anseong.go.kr/library/main.do]

② 취학 전 천 권 읽기<sup>63)</sup> | 지역의 다양한 전문가 협업 방식의 북큐레이션

- 대상: 5~7세
- 운영주체: 중랑문화재단 중랑숲어린이도서관, 취학 전 천 권 읽기 사업 TF팀
- 협력기관: 중랑구청, 중랑구립도서관 6개관, 중랑구 구립작은도서관 18개관, 중랑구 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유치원) 72개관
- 자료선정
  - 자료선정위원회 구성: 중랑숲어린이도서관 사서, 지역독서교육전문가, 서점관계자, 작가, 아동교육기관 전문가, 동아리 그림책정원, 주민 참여
  - 자료 선정의 기본: 자료 선정을 위하여 책을 읽을 때 아이의 관점에서 이 책이 웃음과 재미를 줄 수 있는지, 가슴 한켠을 울릴 수 있는지, 다른 상상을 끌어낼 수 있는지, 용기를 주는지, 몰랐던 것을 알게 하는지, 익숙한 것을 새롭게 보게 하는지 등 평가하며 선정
  - 추천도서목록 작업: 2019년부터 수집, 5~7세 아이들이 관심을 가질 만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한 생활습관(식습관), 다양한 친구들(동물과 식물 포함), 환경문제(동물권, 재활용 등), 생각과 언어표현, 성평등, 인성, 학교생활 등 30개 내외 주제로 구성. 해마다

63) 이지유·여현경·이신영, 『취학 전 1000권 읽기』, p.144, 성림주니어북, 2022



좋은 책을 선정하여 주제 컬렉션을 보완해가는 방식으로 작업

- 목록 발간: 추천도서목록 <그림책놀이터>, 책놀이 활동 가이드 및 테마별 사서들이 제시하는 독서 미션, 천권 더하기(영어+번역판 짝꿍 도서목록, 2020년~2022년 천권 완료자 개인별 추천도서수록) 등 내용 수록

- 연계프로그램

- 참여기관(유아교육기관) 대상: 찾아가는 그림책도서관
- 양육자 대상: 도서관에서 키우는 우리 아이 부모학교
- 유아(5~7세) 대상: 만지락 폼지락 그림책도서관

- 선정 자료의 공유

- 홈페이지 - 특화프로그램-취학전천권읽기 - 공개자료실(PDF)
- <그림책놀이터> 추천도서목록집 발간하여 도서관에서 현장 배포<sup>64)</sup>

### (3)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를 위한 읽기 자료 개발

도서관법에서 지식정보취약계층은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말하고 장애인법에서 장애인은 지식정보취약계층을 대표한다. IFLA(국제도서관연맹)는 모든 유형의 장애인, 고령자, 난민, 기능적 문맹자, 교육적 불이익을 받는 사람, 그리고 어린이를 독서장애인으로 포함시켜 독서장애인이라 하였다. 2016년 개정된 우리나라 독서문화진흥법에서도 독서장애인을 신체적 장애뿐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소외를 포함하여 확대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보 및 상호협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19는 빈부격차처럼 독서에도 양극화를 초래했다. 평소에 책을 즐겨 읽던 사람들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자 책을 더 많이 읽었지만 반면 책을 좋아하지도 않고 읽지도 않던 사람들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음에도 책을 읽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과 2021년은 말배우기의 어려움에 놓인 영유아들의 문제와 마스크 착용, 원격수업 등 피치 못할 환경적 요인에서 비롯된 읽고 쓰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초등학교 입학 어린이들의 문제가 두드러졌다. 최근에는 경계선 지능 장애(지능지수 70~85)가 있는 느린 학습자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독서소외계층의 서비스 대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며 이제는 대상에 따른 읽기 자료 개발 및 제공, 자료를 기반으로 한 독서진흥활동에 관한 서비스 기획,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① 담작은도서관 | 친구야, 나한테 책 읽어줄래?

코로나19가 시작되고 심각해지는 코로나 사태를 보며 예전처럼 아이들을 도서관에서 보는 것이 힘들겠다는 생각과 이전과 같은 도서관서비스 내용, 방식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아이들 간의 독서 격차를 고민하며 책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독서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했다.

<친구야, 나한테 책 읽어줄래?>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린이의 모습에서 비롯되었다. 도서관에서 인형을 쪼르르 앉혀놓고 책을 읽어주는 아이들이 있었다. 가만히 들어보면 제법 재미있게 이야기를 들려준다. 책을 읽어주는 행위가 곧 놀이인 셈이다. 유아기에는 주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놀이로 즐기던 것이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글자를 정확하게 읽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긴다. 더군다나 책 읽는 게 서툰 아이들은 독서 할 때마다 자신감이 떨어지고 책을 멀리하게 된다. 이런 아이들에게 인형이나 동물처럼 책 친구가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인형이나 동물들은 아이가 틀리게 읽어도 웃거나 혼내지 않기 때문에 책 읽는 즐거움을 온전히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2-12> 도서관에서 인형들에게 책 읽어주는 모습



[이미지 출처 | 담작은도서관 제공]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 공공도서관에서 강아지에게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영국은 초·중·고등학교에서 다양한 동물들을 리터러시 프로그램에 활용하고 있다. 국내는 순천 기적의

64) 웹사이트 | www.jungnanglib.seoul.kr/suplib 참조

도서관 사례<sup>65)</sup>를 대표로 꼽을 수 있는데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것과 소수 아이들의 참여를 꼽았다. 시간과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며 개선하려고 했다.

- 슬로건: 내가 좋아하는 친구에게 큰소리로 책을 읽어줘요. 하루 15분!
- 내용: 책과 인형(친구)이 함께 들어있는 꾸러미를 대출하여 인형(친구)에게 하루 15분 동안 큰소리로 책 읽어주기
- 대상: 말을 더듬거리는 등 책 읽기에 어려움이 있거나 이제 막 스스로 책 읽기를 시작하였고 재미있는 그림책을 더 많이 읽고 싶은 어린이
- 이용 방법: 14일간 대출
- 책꾸러미 구성: 책친구(형겹인형)와 그림책 2권, 가이드북
- 책꾸러미 수: 56종
- 인형(책친구) 제작: 도서관 직원/자원활동가/시민 33인의 참여로 아이들 품에서 따뜻함과 편안함이 느껴질 수 있도록 손바느질로 형겹인형 제작
- 컬렉션 작업: 도서관 사서
  - 5세 이상 어린이에게 적절한 국내·국외 그림책
  - 오랫동안 아이들에게 인정받고 권위가 있는 재미있는 그림책 선정
  -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아이들이 소리내어 읽을 책이라는 것에 집중하여 이야기가 반복되는 형식의 그림책을 소리 내어 읽으며 선별. 이야기가 반복되는 형식의 그림책은 아이들로 하여금 이야기를 예측할 수 있어서 안정감을 주고 문자 습득과 언어발달에 도움을 줌
  - 글자의 크기(가독성)·글의 양·그림의 조화 등 형태적 요소 고려
  - 도서 선정결과, 고전에 가까운 책들이 많았고 절판된 책들은 중고책으로 수집
- 패키지 주요 이용자: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과 코로나19가 확산된 2021년에 입학한 1학년 아이들이었음. 학교조차 가지 못하고 집에서만 생활하던 아이들에겐 효과적인 프로그램이었다고 판단
- 이용 행태: 어떤 아이는 한 인형에게 애착이 생겨 같은 책을 반복하여 읽어 주기도 하고 형제, 자매는 저녁 시간마다 시간을 내어 함께 읽기도 하였음.
- 효과: 강아지에게 책 읽어주는 사례처럼, 좋은 그림책과 책친구(인형)라는 매개를 통해 아이들은 책 읽는 행위 자체를 즐기고, 소리 내어 읽는 책 읽기는 습관처럼 자리 잡게 되며, 책 친구에게 매일 15분씩 꾸준히 책을 읽어주다 보면 읽고 말하는 능력이 좋아지고, 책 읽는 즐거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됨

65) CJ그림책축제포럼-개에게 동화책 읽어주기 가능할까? [출처 | 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laterre327&logNo=70042348524]

〈그림 2-13〉 친구야, 나한테 책 읽어줄래? 책꾸러미 사진 및 이용모습



[이미지 출처 | blog.naver.com/damlibrary/222860407857]

## ② 피치마켓, (재)도서문화재단 씨앗 | 느린학습자를 위한 쉬운 읽기 책

피치마켓은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글을 제공하여 발달장애인과 느린학습자가 문학의 즐거움을 느끼고 비장애인과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에 설립되었다. 연령에 따른 일반적인 책보다 이해하기 쉬운 글과 정보가 필요한 이들을 ‘느린학습자’라고 보았는데 ‘느린학습자’는 경계성지능, 발달장애 청소년뿐만 아니라 문해력이 부족한 사람도 이에 포함하였다. 시각장애인에게 점자가 필요하듯 느린학습자에게도 그들에게 알맞은 새로운 글과 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2015년 민간 최초 느린학습자가 읽기 쉬운 문학책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출판 이후, 느린학습자용 읽기 쉬운 도서(총 35권), 느린학습자용 공공문서 제작(7종), 느린학습자용 매거진<월간 피치서가(구. 리:북)>를 출판·배포하고 있으며 특수교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다.

- 읽기 쉬운 책 출판 및 배포
  - 대상: 느린학습자(발달장애, 학습장애)의 인지능력과 생활연령을 고려
  - 편집: 느린학습자의 문해력과 인지능력, 집중력을 고려한 문장과 어휘, 삽화와 보조자료, 형태, 폰트, 디자인 요소 적용
  - 감수: 매년 1,000명 이상의 느린학습자와 함께 읽는 과정을 통해 감수
  - 출판 내용: 문학서, 주제가 있는 정기간행물(월간 피치서가), 이해하기 쉬운 문서, 정책



정보, 안내물 등

- 배포: (재)도서문화재단 씨앗 지원으로 1000곳 무료 배포. 단행본의 경우에는 새 책이 출판될 때마다 신청받아 선정 후 배포하고, <월간 피치서거>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6개월 단위)을 정해 배포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곳에 배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출판된 책은 판매도 함

<그림 2-14> 피치마켓(Peach Market) 홈페이지



[이미지 출처 | www.peachmarket.kr]

- 다양성: 이주 배경 가정의 어린이를 위해, 각 나라의 옛날 이야기, 현대의 생활상, 풍속과 문화 등을 다루는 책을 여러 언어로 제작하여 그 나라의 고유한 특색을 자랑스럽게 보여 주려 노력
- 콘텐츠 기능: 음성 읽어주기 자동재생 및 책 인쇄/다운로드 기능
- 콘텐츠 활용: 두루책방의 모든 콘텐츠는 CC BY 4.0 저작권으로 공유(자료복사 및 재배포)와 수정(어떠한 목적으로든 수정 및 가공) 작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음

<그림 2-15> 두루책방 홈페이지



[이미지 출처 | xn—hu1b40go5ck8x.com]

③ 에누마 & (재) 도서문화재단씨앗 | 다문화 콘텐츠 ‘두루책방’

두루책방은 한국어가 익숙치 않은, 서툰 다문화가정 어린이와 느린학습자들이 스스로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게 쉬운 한국어책과 여러 나라 말 책을 제작하여 제공하는 디지털 콘텐츠이다.

- 콘텐츠 현황: 읽기 수준 6단계 별 총 208권
- 책의 수준: 단어로 이루어진 책부터 짧은 문장으로 된 책, 초등 1, 2학년이 읽기에 좋은 책까지 글의 수준을 6단계로 나누어 독자의 읽기 능력에 맞는 읽을거리를 제공
- 책의 주제: 독자의 지적·정서적 능력을 고려하여 학령기 어린이에게 적절한 수준의 주제(동물, 과학, 음식, 생활, 자연, 역사, 모험)를 선정하여 제작
- 언어: 5개 다국어 책(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수록

(4) 사회 이슈를 담은 다양한 관점의 북컬렉션 개발과 책 읽기 지원

① 정부, 기업, 민간단체 | 나다움 어린이책<sup>66)</sup>

‘나다움 어린이책 교육문화사업’은 2019년 여성가족부가 롯데지주,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똑똑! 책으로 여는 성평등세상’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되었다.

나다움어린이책은 성별 고정 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존중하고 남자다움이나 여자다움이 아닌 ‘나다움’을 배우고 찾아가도록 돕기 위해 1)전문가들이 모여 성평등 도서를 선정하여 목록을 만들고, 2)양육자와 교사 및 사서들에게 어린이 성평등 도서목록을 제공하고, 3)학교와

66) 사업 종료 이후, 나다움어린이책 목록 선정작업에 함께 했던 작가와 문학평론가들이 다움북클럽을 결성하여 기존목록에 사전 검열로 삭제되었던 책과 청소년책을 더해 262권의 목록을 만들고 목록집<오늘의 어린이책 1>(2021년)으로 출판하였다.

도서관에는 도서를 보급하고, 4)작가와 출판사 등 창작자에게는 성평등 도서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다. 선정 자료를 도서관, 학교 등에 배포하였으나 선정성 논란으로 일부 도서(7종)를 회수하는 일이 벌어졌고 2021년에 사업이 종료되었다. 비록 논란이 있었지만 큐레이션 및 작가 지원, 출판 진흥의 좋은 사례라 판단되어 나다움어린이책의 세부 추진 내용을 살펴 보았다.

- 사업주체: 여성가족부, 롯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 예산: 9억(사업 기간: 3년)
- 나다움 어린이책의 개념: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나와 남을 긍정하고 다양성과 공존을 지향하는 어린이책
- 선정결과: 2019년 134종, 2020년 65종 선정
- 선정도서관리: '나다움어린이책마크'를 책에 새겨 넣음
- 대상자료수집: 전문가와 작가·출판사로부터 추천받은 책과 유치원~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도서 약 1200여권
- 도서위원회 구성: 6인(아동청소년문학평론가/서울예술대학교 교수/서울청량초등학교 교사/KBBY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 회장/아동청소년문학가/그림책작가)
- 도서 선정 기준
- 창작공모전
  - 모집부문: 그림책·장편동화·단편동화 3개 부문
  - 응모자격: 그림책 작가, 동화작가를 비롯해 성평등에 관심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

〈표 2-5〉 나다움 어린이책 핵심가치와 도서 선정을 위한 질문

핵심가치	전문가	전문가
자기 긍정	주체성	인물이 성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자기발견과 성장을 추구하나요?
	몸의 이해	몸의 성장과 변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일의 세계	인물이 성별 차이 없이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나요?
다양성	가족	다양한 가족 형태를 긍정적으로 보여주나요?
	사회적약자	사회적 약자의 자기발견과 성장을 편견없이 보여주나요?
	혐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가 드러나지는 않나요?
	표현	인물, 상황, 배경의 묘사가 성별 고정관념 없이 다양한가요?
공존	사회적	인물에 대한 평가와 보상의 기준이 성별 차이 없이 적용되나요?
	인정	어린이에게 자기 몸에 대한 권리를 알려주고 있나요?
	안전연대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모습이 드러나나요?

- 여할 수 있음
- 시상내역: 대상(3개 부문 통합 1편, 7백만 원)/우수상(각 부문별 1편, 3백만 원)
- 당선작: 제1회 <비밀 소원>(김다노 글, 사계절출판사, 2020년)
- 출간지원: 당선작 출간에 참여하는 출판사에 1편당 창작공모 당선작 1편당 400만 원씩 출간지원
- 학교도서관 지원
  - 2019년: 초등학교 5개교, 나다움어린이책 100종으로 구성된 책장 설치, 독서활동지침서 제공
  - 2020년: 초등학교 10개교, 나다움어린이책 200여 종과 교사용 독서교육 지도안, 어린이용 책놀이 세트 지원, 책놀이 세트에는 나다움 책읽기 열차 노선도와 마을 탐험 지도, 책 읽기 여권 수첩, 독서활동 워크북과 교사용 여권수첩 도장 포함, 교사용 독서교육지도안 20종 온라인 지원

② 민간단체, 문화재단 | 그림책, 문화다양성<sup>67)</sup>

문화기획협동조합 별책부록은 경기문화재단의 다이아(다양성을 이해하는 아름다운)프로젝트 소외계층 문화나눔 공모지원사업을 통해 문화다양성 그림책을 선정하고 그 책을 활용한 프로그램 자료를 개발하였다. 1차에 그림책 125종 선정하고 그중 20권은 프로그램으로 활용 가능한 자료를 만들었다. 2021년 2차에는 문화다양성을 함께 읽고 공부하는 동아리(환타)에서 선정한 그림책 25권을 목록에 추가하였다. 또한 학교와 도서관에서 어린이, 청소년, 어른을 대상으로 그림책 문화다양성 교육을 진행하고, 교육을 돕는 보조재 개발과 문화다양성 북콘서트를 열었다.

- 사업주체: 문화기획협동조합 별책부록
- 도서선정위원: 그림책 작가, 작은도서관 관장, 문화기획자
- 도서 선정기준
  -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그림책일 것. 일반적인 다양성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소수자들에 대해 말하고 있는 책도 각각도로 검토할 것
  - 주제는 뚜렷하나 작품성이 부족한 책은 고르지 말 것. 되도록 그림책이 가진 예술적 가치를 드러내려고 한 책을 고를 것
  - 차이를 말하는 이야기지만, 그 차이가 또 다른 차별을 만드는 내용의 그림책은 고르지

67) 문화기획협동조합 별책부록 웹사이트(www.ssstarbook.com) 참조

말 것

- 되도록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이라 말하는 책을 고를 것
- 출판사나 작가 등은 고려하지 않고 골라 볼 것. 특정 출판사 책이 많다고 좋은 책을 빼거나 하지 말고 되도록 소개할 것
- 프로그램 활동 자료 제작 및 제공: 프로그램 활동 자료는 뭔가 꾸미고 만들거나 하는 활동 자체보다 책을 충분히 느끼고 그 책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활동이 되도록 기획. 해당하는 20권에 대해서는 출판사에 협조/허락을 받아 프로그램 활동자료안 제작. 누구나 문제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음
- 콘텐츠 활용 빈도: 다운로드 약 1,260건, 학교 및 도서관에서 활용
- 선정 자료의 공유
  - 홈페이지 - 별책부록 활동: 문화다양성그림책목록(PDF)
  - 누구나 다운을 받는 주체(단체나 사람) 이름과 사용 목적을 댓글로 남기고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
  - 공공의 목적으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가능. 하지만 글과 삽입 그림에 저작권이 있으므로 활용 전 별책부록에 알리기
  - 자료를 변형하거나 고쳐서 사용하는 것은 불가

〈그림 2-16〉 그림책, 문화다양성 추천목록집 본문



[이미지 출처 | www.ssstarbook.com/post]

③ 경기도 | 책드림, 꿈드림

책드림 꿈드림은 2020년부터 경기도가 주관하고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이 기획한 책나눔 사업이다. 상대적으로 책을 접하기 어려운 지역아동센터, 노인시설, 미혼모시설, 다문화시설 등 독서소의 기관 160개소에 100권의 주제별 도서를 지원하며 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독서환경 개선 사업으로 책 지원 이외에도 독후활동을 함께 지원한다.



- 북큐레이션 주제
  - 트렌드·사회적 주제를 반영

〈표 2-6〉 2020년 북큐레이션 주제

주제	소주제	주제어
공정, 나로 존재한다는 것	(개인) 개인의 자유	자유, 평등, 책임, 존중
	(공동체) 인간답게 살아가는 힘	인권, 민주주의, 다양성
	(사회) 공정한 사회	정의, 기본소득, 청년도전
복지, 함께 살아간다는 것	(개인) 일상의 행복	꿈, 우정, 사랑, 호기심, 철학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나눔, 배려
	(사회) 보편적 복지	소통, 성평등, 차별
평화, 더불어 행복하다는 것	(개인) 일과 삶의 균형	노동, 취미, 예술
	(공동체) 함께 공존하는 삶	과학, 동물보호, 자연보호
	(사회) 지속가능한 미래	지구위기, 세계문제, 재난

- 자료 선정기준 및 구성
  - 폭넓은 독자층을 대상으로 공동체의 가치를 존중하며 개인의 삶을 격려하고 누구나 재미있고 쉽게 읽을 수 있는 도서 선정
  - 이용자 대상 구분: 유아, 초등생(저/중/고/전학년), 청소년, 성인
  - 난이도 구분: 상·중·하
- 도서선정위원 구성
  - 2020년: 각계 전문가(도서관사서, 독서교육, 평론가 등) 6명, 도서선정TFT팀(경기도도서관정책팀, 경기도사이버도서관팀)
  - 2021년: 어린이분야(안성시립중앙도서관 관장), 다문화분야(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관장), 빅북&큰글자도서(경기도사이버도서관)
  - 2022년: (사)행복한아침독서 도서 선정 전문가
- 선정 자료의 보급
  - 도서목록집의 일반도서와 다문화(다국어)도서, 큰글자도서, 빅북 등 특수도서 중 각 서비스기관의 대상, 유형 등에 맞춤형 자료를 160개소에 각 100권 보급
- 선정 자료의 공유
  - 『책드림, 꿈드림』 도서목록집(색인-도서별, 저자별, 이용대상별 수록) 발간하여 경기도내 공공도서관에 배포
  - 경기도사이버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목록집 원문 다운로드

〈그림 2-17〉 2020~2022년 책드림 꿈드림 도서목록집 및 독서교육워크숍 자료집



[이미지 출처 | blog.naver.com/damilibrary/222860407857]

### (5) 유아교육 누리과정 기반의 북큐레이션과 독서프로그램

만 3-5세 유아 대상의 누리과정은 유아들의 책과 관련한 경험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편성, 생활습관, 사회, 표현, 의사소통, 자연탐구 등 5개 영역으로 나눈다. 2013년 만 3~5세 의사소통영역에서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의 하위내용 '책 읽기에 관심 가지기와 동요·동시·동화 듣고 이해하기'를 통해 글자와 책에 친숙해지는 경험을 갖도록 하였고, 2019년 개정된 누리과정 의사소통영역에는 '책과 이야기 즐기기'를 별개의 영역으로 편성, 독서교육을 더욱 더 강조하고 있다. 2020년 개정된 영아 만 0~2세 표준보육과정의 의사소통영역도 역시, 그림 책이나 환경 인쇄물에 관심을 가지며 글의 내용에 대해 흥미를 느끼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어린이출판시장, 독서문화는 교육 과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런 이유로 요즘 영유아를 위한 책의 다수는 영유아교육과정인 '누리과정에 기반을 둔 그림책'으로 전집 또는 단행본으로 출판되고 있다. 영유아 관련 독서 콘텐츠는 오래전부터 공공적인 콘텐츠와 서비스보다는 상업화된 상품이 활성화되어 있다. 이때 상업화된 영유아콘텐츠에서 큐레이션할 때 대상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누구와 어떻게 도서를 선정하고 추천하는지 등에 관한 방식을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2-7〉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에서의 의사소통영역의 목표 및 내용

구분	대상	목표	내용 범주	내용
표준보육과정	0-1세	의사소통 능력의 기초를 형성한다 1) 일상생활에서 듣고 말하기를 즐긴다. 2) 읽기와 쓰기에 관련된 관심을 가진다. 3) 책과 이야기에 관심을 가진다.	듣기와 말하기	표정, 몸짓, 말과 주변의 소리에 관심을 갖고 듣는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소리를 낸다.
				표정, 몸짓, 말소리로 의사를 표현한다.
			읽기와 쓰기에 관심가지기	주변의 그림과 상징에 관심을 가진다.
				끼적이지기에 관심을 가진다.
				책에 관심을 가진다.
	2세	의사소통 능력과 상상력의 기초를 형성한다 1) 일상생활에서 듣고 말하기를 즐긴다. 2) 읽기와 쓰기에 관심을 가진다. 3) 책과 이야기에 재미를 느낀다.	듣기와 말하기	표정, 몸짓, 말에 관심을 갖고 듣는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말한다.
				표정, 몸짓, 단어로 의사를 표현한다.
			읽기와 쓰기에 관심가지기	자신의 요구와 느낌을 말한다.
				주변의 그림과 상징, 글자에 관심을 가진다.
				끼적이며 표현하기를 즐긴다.
누리과정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과 상상력을 기른다 1) 일상생활에서 듣고 말하기를 즐긴다. 2) 읽기와 쓰기에 관심을 가진다. 3) 책이나 이야기를 통해 상상하기를 즐긴다.	듣기와 말하기	책에 관심을 가지고 상상한다.	
			이야기에 관심을 가진다.	
			말놀이와 이야기에 재미를 느낀다.	
			읽기와 쓰기에 관심가지기	말이나 이야기를 관심있게 듣는다.
				자신의 경험, 느낌, 생각을 말한다.
				상황에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여 말한다.
3-5세	의사소통 능력과 상상력을 기른다 1) 일상생활에서 듣고 말하기를 즐긴다. 2) 읽기와 쓰기에 관심을 가진다. 3) 책이나 이야기를 통해 상상하기를 즐긴다.	듣기와 말하기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관련해서 말한다.	
			바른 태도로 듣고 말한다.	
			고운 말을 사용한다.	
		읽기와 쓰기에 관심가지기	말과 글의 관계에 관심을 가진다.	
			주변의 상징, 글자 등의 읽기에 관심을 가진다.	
			자신의 생각을 글자와 비슷한 형태로 표현한다.	
책과 이야기 즐기기	책에 관심을 가지고 상상하기를 즐긴다.			
	동화, 동시에서 말의 재미를 느낀다.			
	말놀이와 이야기 짓기를 즐긴다.			

\* 표준보육과정: 제4차 표준보육과정으로 2020.9.1. 시행

\*\* 누리과정: 2019년 개정

① 도서관

《우리 아이 첫 독서학교, FIRST.L》<sup>68)</sup>은 2020년 서울시 교육청에서 개발한 영유아를 위한 생애 첫 독서교육프로그램이다. 유아교육 누리과정에 기반을 두고 서울시 교육청 22개 공공도서관에서 주로 5~7세를 대상으로 월별 주제에 따라 선정된 도서를 바탕으로 독서활동 - 체험활동 - 놀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운영체계  
사서는 도서관 기본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가정(개인)과 단체(유아교육기관 - 서울시 교육청 병·단설 유치원이나 지역육아종합지원센터<sup>69)</sup>)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유아 당사자는 다양한 놀이와 체험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그 독서경험이 가정과 기관으로 확대되는 것을 추구
- 월별 주제 도서 선정을 위한 키워드  
- 생활 주제 5가지 키워드: 생활, 자연, 국가, 과학/기술, 환경  
- 인성 주제 6가지 키워드: 배려, 존중, 협력, 나눔, 질서, 효
- 프로그램  
- 대상: 개인과 단체(기관)  
- 책꾸러미 구성: 참여자에게 수업도서 1권과 활동자료가 담긴 책꾸러미 선물  
- 진행: 수업도서 선정 → 활동자료 구성 → 프로그램 진행, 대체적으로 강사(책놀이 강사 등)가 담당  
- 본 독서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도서관은 별도의 주제 꾸러미를 만들어 프로그램 참여 후 대출해 갈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음

《청주기적의도서관의 이야기 보따리》는 0~5세 영유아를 위한 책놀이 서비스로 책을 처음 접하는 아이들이 책과 친해지는데 도움을 준다.

- 책꾸러미 구성: 주제별 도서, 비정형 도서(놀잇감 같은 책), 도서목록, 책놀이 활동지 및 놀이 재료
- 주제: 누리과정 기반  
- 2개월 주기로 운영

68)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영유아 생애 첫 독서교육 공공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역할 제정립을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도서관의 영유아 특성과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참조

69)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중앙/시·도 19개소, 지역별 85개소가 있음. 지원 사업에 표준보육과정 교육 및 교재, 교구를 제공하고 대여 지원하는 역할이 있음.

- 세부 주제: 3~4월 봄/모양/언어, 5~6월 가족/동식물/색깔, 7~8월 여름/감정/기계, 9~10월 가을/숫자/습관, 11~12월 겨울/의식주/과학
- 책놀이: 7~8월
- 서원대학교 유아교육과 학생들과 협력하여 운영

<그림 2-18> 이야기보따리 꾸러미와 서가 모습



[이미지 출처 | www.ebsco.com/novelist/products/novelist-k8-plus#sect2]

- 도서 선정 및 기획 과정
  - 유·초등 독서교육 전문가와 어린이 선정단에 의한 검증: 유아 자료는 아동학 박사(감수)와 유치원 원장(기획위원), 초등은 아동문학평론가(감수)와 서울/경기관 초등학교 교사(기획위원) 참여
  - 1단계 북클럽 전문 편집팀 선정 → 2단계 유아·초등 교육 전문가 기획위원 선정 → 3단계 750명 어린이 선정단 선정(어린이가 뽑은 가장 재미있는 책) → 4단계 아동학 박사 감수 절차 거침
  - 연령별, 월별 주제에 적합한 전문가가 선정한 2권의 책과 어린이가 선정한 2권의 책으로 구성
  - 책선정 도서마다 국내외 수상 및 추천 이력을 함께 소개
- 어린이 심사위원단 운영
  - 황금도깨비상(1992년)을 비롯하여 비룡소문학상, 블루픽션상, 스토리킹 등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문학상을 14개 운영하고 있음. 그 중 어린이 심사위원단 운영으로 당선작을 선정하는 스토리킹(초등학생 4~6학년)은 리틀스토리킹(초등학교 2~3학년), 틴스토리킹(청소년 심사위원단 “틴스”)으로 확대<sup>70)</sup>

보림의 <달리보림>은 매월 주제 기반의 그림책을 큐레이션하여 연령을 0~3세, 4~7세, 8세 이상/성인으로 나누어 도서를 정기배송하는 서비스이다.

웅진씽크빅의 <베베북클럽>은 생후 6개월부터 24개월까지의 영아를 위한 구독형 두뇌발달 놀이 프로그램으로 국내 영아발달분야 교수 및 놀이전문가로 구성되어 그림책 및 놀잇감을 선정, 발달단계를 12단계로 나누어 그림책 2권, 놀잇감 1종, 놀이교재 1권, 놀이키트 2종으로 구성된 콘텐츠(디지털 포함)를 제공한다.

③ 기타: 유아교육 관련 기업

코로나19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으며 ‘책육아’가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하며 책을 읽히려는 부모가 많아졌고 자료는 공동구매 또는 연령별, 주제별로 추천에 의한 정기구독(subscription)서비스를 통해 이용하고 있다. 콘텐츠는 대부분 신생아부터 월령별로 그림책, 장난감<sup>71)</sup>, 그림책과 장난감, 놀이돌봄을 결합한 상품들까지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sup>72)</sup> 정부에서

70) 웹사이트 | bir.co.kr/bookclub/bookclub-info/step 참조

71) 손오공: 장난감 월령별(신생아~3살) 맞춤 구독서비스

72) 주식회사 아누리: 그림책 구독 부키부키 스토리박스 & 플레이박스, 놀이돌봄

② 출판사

유아를 대상으로 한 출판사, 기타 기업의 상품들은 공통적으로 우리 아이에게 적합한 책은 무엇인지, 이 책을 어떻게 읽어줘야 할지, 어떻게 놀아야 할지 등 양육자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정보들을 잘 담고 있다. 누리과정 및 교과과정을 기반으로 기획은 영유아교육전문가와 함께, 영유아 발달 특성은 미국아동발달협회(CDA) 기준을 표준화 정보로 하여 월령별로 세세하게 나누어 발달에 적합한 책과 교구를 큐레이션하여 제공하고 있다. 정기구독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는 대표적인 출판사 상품에는 비룡소의 <북클럽 비버>, 보림의 <달리보림>, 웅진씽크빅의 <베베북클럽> 등이 있다.

비룡소의 <북클럽 비버>

- 대상: 4세~10세 어린이
- 키트 구성 : 유아(누리과정), 초등(초등교육과정) 책 4권, 비버북(워크북 놀이책), 비버맘(부모가이드)으로 구성. 연 4회(3/6/9/12월) 감쪽도서를 1권 제공하고, 일년 4회(2/5/8/11월) 만들기 키트를 추가로 제공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바우처를 지급해 주는 출산장려정책인 첫만남이 용권, 향후 0~9세 대상으로 시행될 서울시 엄마 아빠 행복프로젝트<sup>73)</sup>는 안심돌봄, 편한외출 등을 지원하게 됨에 따라 해당하는 연령에 대한 상업적인 유아교육 상품 및 서비스는 더 다양화되고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서비스가 활발해지며 키즈 전자책 시장이 활발해졌다<sup>74)</sup>. 가장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아이윙(IWING-책 읽어주는 고양이) TV로 누리과정에 기반한 그림책과 영유아부터 초등생을 위한 커리큘럼으로 공공도서관과 유아교육기관에 많이 보급되었다. 또한 팬데믹 이후 영유아에게 중독성 강한 영상 콘텐츠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스크린타임)에 따라 키즈 오디오 시장이 각광 받기 시작했다. 전자책, 오디오에 결합한 책은 제휴를 맺은 출판사에 한정되어 서비스되고 있으며 이 콘텐츠들은 7세 미만의 어린이를 타겟으로 연령별로 세분화하고 기질별로 제공하는 상품도 있다. 그리고 전문 성우가 책을 읽어주거나 부모 목소리를 녹음하면 부모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는 인공지능 로봇(루카 Luka), 스피커에 카드를 꽂으면 성우의 목소리로 읽어주는 책(소리동화 레몽가디),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핑크퐁, 아기상어, 보로로, 타요, 로보카폴리 등)마다 다양한 오디오 콘텐츠를 삽입하여 하우스에 넣으면 스피커를 통해 재생되고(코코지하우스와 아띠), 파파고와 결합하여 한글을 영어로, 영어는 한글로 책을 읽어주는 스마트 조명(네이버 클로바랩)등 콘텐츠 기술이 다양해지고 있다.

《아이윙 TV(IWING TV)》 책 읽어주는 고양이 아이윙TV는 이퓨처(영어교육기업) 등 국내외 3,000여 개 출판사 및 작가와 제휴로 7,000종 이상의 그림책(한국어, 영어)을 확보하여 전문 성우 및 이용자가 녹음한 6만 5,000편의 동영상 스트리밍북을 보유한 국내 최대 어린이 전자책 도서관 서비스로 팬데믹 시기(2020~2021년)에 공공도서관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광주서구도서관의 경우, 국·공립 및 가정어린이집 40개소 대상으로 자료를 대출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초등학교 수업에 활용, 책 읽는 버스, 서점(힐튼호텔), 독서축제 등 다양한 장소, 행사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 대상: 1~7세
- 구성: 누리과정 기반의 그림책 북클럽과 영유아 및 초등 외국어교육 커리큘럼으로 구성, 12개월 정기구독 + 프리미엄 이용권 제공
- 추천: 전문가 추천, 독서지수 알고리즘<sup>75)</sup>, 수상/수록도서(볼로냐아동도서전, 칼데콧상 수

73) 웹사이트 | mediahub.seoul.go.kr/archives/2005380 참조

74) 플래텀, 'MZ세대 넘어 육아맘 사로잡는 키즈 오디오 시장 주목' 기사 [웹사이트 | platum.kr/archives/187518]

75) 현재 국내에서 활용되는 독서지수는 미국 Lexile score, 한국 (㉸)날말 어휘정보처리연구소의 LQ 지수가 있음

상작 등, 초등 교과서 수록 연계도서) 매칭 방식

〈표 2-8〉 아이윙 TV 도서 추천 전문가 구성

구분	내용
독서지도전문가 교육학 전문가	책을 선별하는 역할 담당. 아동의 발달 단계를 이해하고 아동의 성장 단계를 고려하여 연령별로 흥미있어 하는 주제와 실생활과 연관되는 주제를 선별, 지식적인 정보와 인성교육 추구
색채심리전문가 그림책지도사 예술치료교육전문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림책을 선별해 색채와 그림에 흥미와 관심을 갖도록 유도
놀이지도전문가 보육전문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품들로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고, 안전한 놀이가 되도록 도와줌

[웹사이트 | blog.naver.com/mflare/222775338807]

그 외에도 눈에 띄는 상품으로는 우따따(영유아 그림책 큐레이션 플랫폼), 베베티움(12~60개월 영유아 도서 큐레이션 서비스), 링크박스(유초등교육전문가가 선별/추천하는 유아책을 월 10권 대여), 롤링핀(4~8세 어린이 영어책 큐레이션 프로그램) 등이 있다.

《영유아 성평등 그림책 큐레이션 플랫폼 우따따》<sup>76)</sup>

- 주제: 인권·환경·직업·가족·성평등·여성 롤모델 등
- 대상: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 이용 방법: 정기구독
- 우따따 북클럽: 그림책 큐레이터가 손 수 선정한 그림책 추천 서비스로 영아(36개월 미만), 후기 영아(36~56개월), 유아(56~84개월)를 대상으로 함. 다양한 출판사의 그림책과 함께 이 책을 고른 이유, 이런 단어를 배워요, 이렇게 놀아요, 이렇게 대화해 보세요, 독후 활동 워크북 등 제공
- 우따따 미디어: 영화, 애니메이션, 유튜브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 제공. 영아(36개월 미만), 유아(36~84개월), 초등(84개월~)을 대상으로 하며 콘텐츠 줄거리와 추천 회차, 깊게 생각해 봐야 할 이슈 등이 담긴 양육자 가이드 제공.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어린이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관해 제작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딱따구리 콘텐츠 시청 가이드> 제작

76) 우따따 웹사이트 | wooddadda.com/guide 참조



〈표 2-9〉 우따따의 콘텐츠 선정 기준

1	어린이 주인공을 일방적으로 가르침 받거나 꾸중 받아야 할 수동적인 인물로 그린 경우 큐레이션에서 제외한다. 어린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성찰하며 결정하는 주체성을 그려내야 한다.
2	어린이의 신체적, 인지적, 언어적 발달을 고려하지 못한 경우 제외한다. 창의력 발달과 사회화 능력을 증진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우선한다.
3	어린이를 포함한 노인, 장애인, 동물 등 사회적 약자를 너그럽게 배려하지 못할 경우 큐레이션에서 배제한다. 사회적 약자를 공격하거나 조롱하는 농담, 장난 등이 포함된 경우, 그 경중이 미약할지라도 제외한다.
4	다양한 형태의 가족의 모습을 그리되 등장인물의 남녀 성비가 균형적이어야 하고 색깔로 성별을 구분하지 않는다. 어린이들이 건강한 미래를 상상할 수 있도록 자연 친화적이고 다양성을 고려하는 분위기가 콘텐츠 안에 바탕이 되어야 하며, 등장인물은 이를 지향하는 태도를 취한다.
5	콘텐츠 안에서 성별, 나이, 인종, 지위 등에 국한되는 역할을 강요하거나 그에 따른 선입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장면이 포함된 경우 큐레이션에 배제한다. 모든 어린이가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과 역량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역할을 독려해야 한다.

- 이용자가 이용자에게 책으로 말 걸기: 때로는 사서가 원하는 책보다 책을 잘 아는 이용자가 원하는 책 전시가 흥미로울 때가 많은데 언니·오빠가 원하는 책, 어린이가 어린이에게 원하는 책, 동아리에서 이용자에게 원하는 책 등이 있다.
- 특별히 말 거는 책장: 웃는책 컬렉션과 만화서가(학습만화 제외)가 있다. 웃는책 컬렉션은 도서관의 분류 방식(000 총류, 100 철학 등)이 아이들에게 너무 어렵지 않을까하는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공룡책, 공주책, 기차책, 강아지책, 고양이책 등 원하는 책을 자신들의 언어로 찾을 수 있도록 독서동아리(어린이도서관연구회 회원)들과 함께 아이들이 좋아하는 주제 열여섯 개를 정한 후, 각 주제별로 그림책 각 20~30권 정도를 선정했다. 처음 16가지 주제는 아이들의 관심이 높은 7개(똥, 공룡, 공주, 할머니, 강아지/고양이, 괴물/귀신/도깨비, 엄마)로 정리되어 별도 서가로 운영하고 있다.

〈그림 2-19〉 웃는책 컬렉션 서가



[이미지 출처 | www.ebsco.com/novelist/products/novelist-k8-plus#sect2]

(6) 도서관/서점/기업의 북큐레이션 서비스

① 도서관 | 책으로 말거는 책장 & 소소한 책장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의 정책과제로 이용자 맞춤형 큐레이션 정보서비스가 강화되며 공공도서관에서 북큐레이션, 사서추천 등은 전국적으로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책으로 말거는 책장》 작은도서관 웃는책 큐레이션은 ‘사서가 책으로 말 걸기’ ‘이용자가 이용자에게 책으로 말 걸기’ ‘특별히 말 거는 책장’으로 꾸려진다.

- 사서가 책으로 말 걸기: 사서가 매달 규칙적으로 이용자들에게 책을 소개하고 있으며 인형과 함께하는 작가별 그림책 전시와 2017년부터 주제 전시를 하고 있다. 주제 전시는 매달 사서들이 회의를 통해 주제를 정하면 그에 맞는 책을 고르고 전시/대출을 한다. 예로 1층 영유아실에서는 그림책을 주제별(입학 시즌에는 학교, 대통령 선거 시기에는 시민의 권리 등)로 전시하고, 2층 어린이청소년실에서는 판타지, 추리 등 장르 문학 전시를 하고 있다.

《소소한 책장》<sup>77)</sup> 파주중앙도서관은 2021년 리모델링하며 1층 어린이열람실에 영유아와 어린이를 위한 북큐레이션 소소한 책장 공간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 외에도 북스타트 후속프로그램인 아가랑책한잔(0~36개월)과 책읽는아이(36개월 이상)를 진행할 때도 큐레이션 작업을 통해 책읽기와 놀이 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다. <아가랑책한잔>은 양육자를 위한 시간으로 놀이는 최소화하고 책읽기에 집중하며, 30분 동안 진행되는 책읽기는 부모의 목소리로 들려주기 등 다양한 책 읽기 경험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자원활동가와 함께 운영하는데 5팀으로 나누어 월1회 담당하며, 큐레이션 작업도 함께 한다. <책먹는아이>는 책1권에 놀이를 접목한 프로그램

77) 파주중앙도서관 어린이실 구진영 사서와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



으로 유튜브로 제작하여 23개의 콘텐츠를 홈페이지(유튜브 포함)에 탑재,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 외 사서가 추천하는 키북키북 & 소곤소곤 큐레이션도 있으며, 파주중앙도서관에서 추천하고 큐레이션한 자료의 이용률(연 1회 통계)을 살펴보면 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운영 주체 및 인원: 어린이실 담당 사서 1명
- 대상: 전연령
- 주제: 매달 상황(신학기, 6월 환경의 달 등)과 이슈, 어린이들의 시선/관심을 중심에 두고 주제 선정
- 운영 주기: 월 1회
- 선정 도서 권수와 비율: 20권, 그림책과 동화책을 각각 50%, 문학자료 비중이 조금 높음. 미보유도서는 실물수서(긴급수서-2주 이내 입고)를 통해 구입
- 전시 및 활용: 실물도서비치, 대출서비스 및 유아(4~7세) 책놀이프로그램 활용
- 선정 자료의 공유: 자료 등록할 때 개별 자료마다 주제어를 삽입하였으나 업무가 많아지며 계속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중단, 목록을 종이로 출력하여 파일에 첨부하여 비치하고 도서관을 방문한 이용자들에게 제공
- 큐레이션할 때 어려움
  - 책씨앗 사이트를 통해 신간 자료 정보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음. 다양한 추천도서목록이 있으면 좋겠음
  - 영유아(36개월 미만) 대상의 보드북 출판이 저조하여 다양한 책(촉감책, 플랩북 등)을 고르는 데 어려움이 있음

② 부산 곰곰이 어린이서점 | 속초 그림책서점 | 한국서점인협의회

1990년 초반 초방 어린이책방이 생긴 이후, 2000년대 들어 온라인 서점이 생기기 이전에 100여 곳에 달했던 어린이책방은 2014년을 기준으로 전국에서 24곳 정도가 운영되었다. 전국의 어린이책방<sup>78)</sup>은 참고서와 문제집 등을 판매하지 않고 좋은 책을 발굴하고 소개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어린이책방이 붐을 이룬 것은 1990년대 당시 10살 전후의 자녀를 둔 젊은 도시 직장인들이 늘어나면서 과거 전집류와는 다른 형식과 내용을 다룬 어린이책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인데, 이때 어린이책을 출판하는 전문 출판사들도 등장하기 시작했다.<sup>79)</sup> 같은 시기에 어린이책방과 함께 1990년대에 독서교실과 도서대여점도 활성화되었다. 1993년을 전후

하여 입시제도의 변화와 맞물려 주입식 암기 교육이 논술형으로 바뀌면서 독서문화에 변화가 일었고, 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 같은 체인점 형태의 독서논술교실이 전국적으로 활성화되었다. 1993년경부터 주거 밀집 지역 중심으로 발생한 도서대여점은 1994년에는 약 6천 개소, 1996년 상반기에는 약 1만 2천 개소로 늘어나며 기존의 만화방을 밀어냈다.<sup>80)</sup>

현재 어린이책방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곳은 많지 않다. 지역에서 20년 이상 된 어린이책방은 여전히 주인장이 직접 읽고 아이들의 독서 수준에 맞는 책을 큐레이션 및 추천하는 고전적인 방법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표 2-10〉 어린이책방 현황

서점	지역	특색
동화나라 (1996년~)	파주시	- 추천도서코너, 각종 전시 공간 운영 - 애니메이션 상영, 책만들기워크샵, 어린이조형체험프로젝트 등 다양한 행사
곰곰이 (2000년~)	부산시	- 어린이청소년인문학서점, 역사탐방단/독서클리닉 운영 - 책보따리(아이들의 독서수준에 맞는 전문가 추천도서),곰곰이신문발행
책과 아이들 (1998년~)	부산시	- 어린이문학을 즐기고 어린이 문학정신을 지키고자 하는 마을서점으로 25년간 운영. 그림책교실, 옛이야기 할머니, 인문학강좌, 공연, 전시 등 다양한 활동, 대표 강정아 저서 [서점은 내가 할게]
책벌레 어린이책방 (1997년~)	대구시	- 어린이도서연구회 추천 도서와 각종 매체에서 추천하는 단행본 어린이책 비치
곰곰이 (2004년~)	천안시	- 어린이청소년서점. 2017년부터 천안시 두정도서관과 인근 초등학교 협업으로 어린이인문학놀이터 운영, - 국가보조금사업을 지원받아 아이들이 동화작가/그림책작가/시인이 될 수 있는 장기프로그램운영, - 느린어린이문학회와 함께 15년 동안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동화책(그림책)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음
북스터 (2021년 폐업)	오산시	- 엄마가 읽고 싶은 좋은 책과 아이가 읽고 싶은 재미있는 책, 교구, 완구 등을 주제별로 세심하게 골라 운영한 큐레이션 서점, 영업 종료

《부산 곰곰이 어린이서점》 블로그를 운영하며 북큐레이션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주제책을 소개하고 있다. 소재별 책 읽기와 그림책방의 콘텐츠는 유사성을 보이고 별도의 목록을 제공하지는 않으며, 책 정보는 책표지를 클릭하면 네이버 쇼핑과 연결되어 있다.

78) 정병규. 어린이책 출판과 전문서점 [출처 | www.childbook.org/bookstore/bookstore1.html]

79) 경향신문 기사, '어린이책 서점의 빛과 그늘', 2014.05.02. [출처 | www.khan.co.kr/culture/culture-general/article/2014050220404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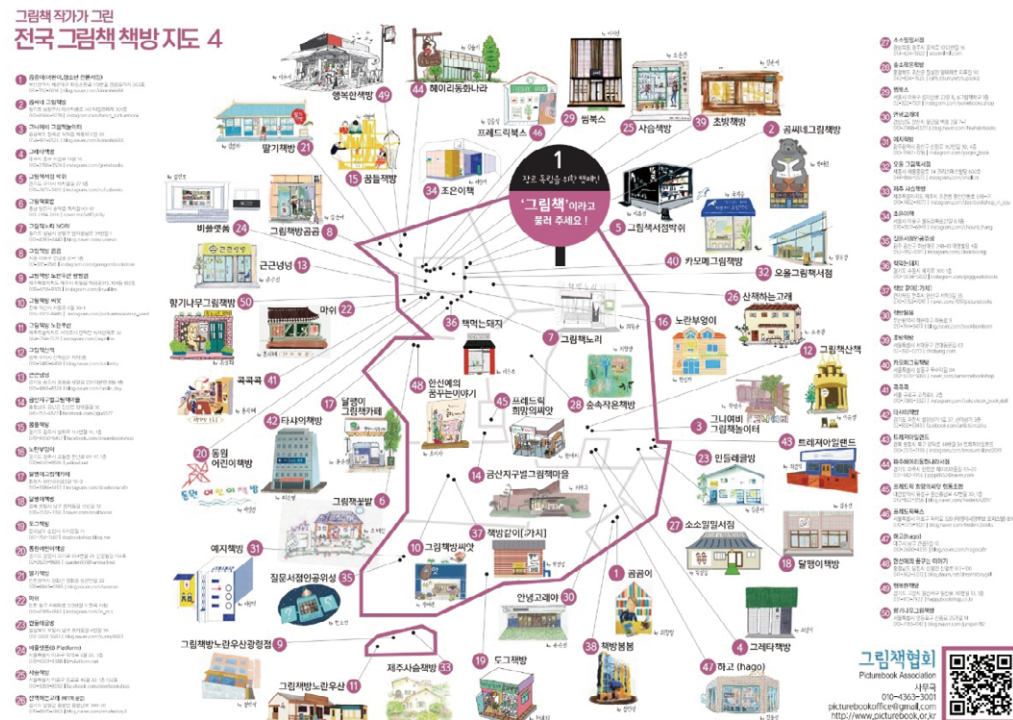
80) 나무위키 참조 [출처 | namu.wiki]

〈표 2-11〉 부산시 공공도서관 북큐레이션

카테고리	북큐레이션
그림책방 (2014.4~)	고래, 형제자매, 곤충, 빵, 꽃, 선거와 대표, 자신감을 채워주는 책, 호랑이, 선물, 걱정을 물리칠 수 있는 책 등 그림책 중심의 콘텐츠 (콘텐츠 101개)
소재별책읽기 (2014.5~2015.7)	비오는 날, 마법의 세계, 동물에 관한 책, 크리스마스, 음식, 꽃밭, 악기, 이성친구 등 그림책과 동화, 소설로 구성된 콘텐츠 (콘텐츠 119개)
북큐레이터코너 (2015.10~2018.2)	북큐레이터가 책 1권을 소개 (콘텐츠 21개)

2016년 우리 사회에 그림책을 하나의 고유한 예술 장르로 자리매김하고 문화적 가치를 실현하며, 그림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연대하기 위해 그림책협회가 만들어졌다. 협회에서 제작한 2020년 제4차 전국 그림책 책방지도에 의하면 전국에 그림책책방이 50개에 이른다. 그림책은 0세부터 100세까지 보는 책으로 자리잡았고 교보문고와 알라딘에 각각 [0세부터 100세 그림책], [100세 그림책]으로 유아 그림책 카테고리에 분류하고 있다.

〈그림 2-20〉 2020년 전국 그림책 책방 지도



[이미지 출처 picturebook.or.kr/intro/]

〈속초 그림책서점 완벽한 날들〉에서는 만 3~4세, 만 4~5세, 만 5~6세를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연령에 맞는 도서를 월 1권을 정기적으로 배송해주는 고객 맞춤형 정기구독서비스를 한다. 회원으로 가입할 때 연령, 성별, 그림책 구독 목적과 이유, 취향을 자세히 알려줘야 한다. 이때 선정하는 책의 범주는 다음과 같다.

- 피하는 책: 전집류나 권선징악 등 교훈을 위주로 하거나 교과서에 나오거나 학습에 중점을 둔 책은 피한다.
- 고르는 책: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을 균형있게, 그림책 관련 전시나 수상작들을 참고로 하여 시간이 흘러도 명작으로 꼽을만한 작품, 얇고 가볍더라도 한 장 한 장이 미술작품과 같은 책, 아이에게 상상력을 기를 수 있도록 생각 거리를 안겨주는 책을 고른다.

그림책서점 완벽한 날들과 같이 어린이를 위한 맞춤형 판매를 하는 곳도 있지만 현재 대다수의 그림책책방/그림책서점은 어린이보다는 성인을 위한 책 판매와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가를 사회문제, 죽음, 겨울, 그림책에 대한 그림책 등 성인 관점의 주제별로 책을 진열하고 판매하며, [○○○ 선생님의 중년을 위한 그림책이야기] 행사처럼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림책책방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북스타트 도서 선정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어른을 위한 그림책 출판이 활성화된 까닭은 대체로 그림책의 소비자(독자)가 성인 중심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③ 한국서점인협의회

전국 40여 개 중형 서점의 연합인 한국서점인협의회(한서협)에서 지역 거점 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점인의 직무 향상을 위한 서점학교 프로그램, 서점에서 만나는 책 처방 종이약국 서가와 책의 즐거움을 알려주는 시작책 서가를 기획·운영하였고, 그 결과물을 단행본 〈시작책〉과 〈종이약국〉으로 출판하였다.

〈첫 장도 넘기기 힘든 당신을 위한 시작책〉은 책을 제대로 접해본 적이 없으며, 책과 친해지고 싶지만 첫 장도 넘기기 힘든 사람, 서점에 가면 어떤 책을 사야할지 난감한 사람, 그 분야에 대해 잘 알고 싶은 어떤 책부터 읽어야 할지 고민인 사람, 책은 많이 읽어봤지만 재밌는 책을 찾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작책과 함께 읽으면 좋은 책으로 구성하여 540권을 선정, 서평에 시작책의 의미와 추천 이유를 짧게 실었다. 본 책에는 책 읽기를 시작하는 아이들을 위한 챕터로 그림책 시작책과 초등 저학년 시작책을 실었다.

《종이약국: 마음이 아픈 당신을 위한 한 권의 처방전》은 한국서점인협의회에 소속된 서점에 우체통을 설치하고 고민이 담긴 엽서를 모아 20가지의 인생 고민을 고르고, 유명 작가, 기자, 출판평론가 등에게서 311권의 책을 추천받아 고민 하나에 15권 내외의 관련 책을 추천인의 짧은 글과 실은 큐레이션 자료집이다. 인생 고민 20가지에는 사는 게 우울하고 의욕도 없어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요?, 꿈을 찾지 못해 고민이에요, 새로 시작할 용기가 필요해요, 나를 변화시키고 싶어요 등이 있다.

④ 기타

《스쿨북스》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과연계도서 큐레이션 전자책 플랫폼으로 교육현장의 변화를 빠르게 파악하여 독서교육을 지원하는 완전 학습의 길잡이를 추구한다. 2022년 6월 기준 156개교, 충남교육청도서관, 은평구립도서관, 서초구립도서관, 부산시민도서관, 인제군립도서관 5개 공공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 교과독서: 2015년 교육과정을 반영한 780여 종의 교과서를 학년별, 과목별, 단원별로 현직교사 50여 명이 분석하여 교과연계도서 추천 및 큐레이션으로 매 월 3권의 도서를 선정하여 콘텐츠 제공
- 진로독서: 에니어그램별, 학과별, 직업별로 관련 도서를 큐레이션
- 교양독서: 대한출판문화협회, 책따세(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드는 교사들), 어린이도서연구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물꼬방전국국어교사모임독서교육분과, 한국학교사서협회 등 7개 기관에서 선정한 필독서 제공
- 스쿨톡스: 최신 이슈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토론 가이드<북앤토픽> 및 콘텐츠 제공, 실시간 온라인 독서토론 가능
- 한 학기 한 권 읽기: 한 학기 동안 반 학생 전원이 한 권의 책을 함께 읽고 심화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수업활용안 및 수업활동지 제공<sup>81)</sup>

《FLYBOOK》플라이북은 IT를 기반으로 플라이북 AI(AI도서추천시스템), 플라이북 오프라인(도서 큐레이션, 멤버십 도서 대여), 고객의 기분 관심사, 취향 등을 기반으로 추천한 책을 월1회 배송하는 플라이북 플러스(도서 정기구독 멤버십)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공공도서관 70여 곳에 도입되어 서비스에 활용하고 있는 플라이북 AI는 기분, 관심사, 직업, 연애/결혼, 장르, 난이도, 분량, 한 달 독서량 등 7개 카테고리를 통해 고객에게 맞는 도서를 추천하는 시스템이다.

81) 웹사이트 | ym-ms.k-forum.co.kr 참조

〈표 2-12〉 AI 도서추천시스템의 7가지 질문

기분	슬퍼요, 이별했어요/사랑하고 있어요/외로워요/불안해요/답답해요/힘들어요/떠나고 싶어요/용기가 필요해요/행복해요/무기력해요/심심해요/고민이 있어요/힐링이 필요해요
관심사	여행/진로/기획·마케팅/리더십/자녀교육/지식·상식/시간관리/심리/페미니즘/글쓰기/요리/역사/음악/철학/건강/공부/사업/외국어/미술/과학/육아/정치·사회/경제/재테크/관계·소통/자아찾기/가족
직업	취준생/직장인/대학생/프리랜서/디자이너/공무원/서비스업/기획자/마케터/청소년/주부/자영업자/CEO/교사/재수생/프로그래머/뮤지션/연예인/기자/작가/의사/간호사/경찰/금융업/군인
연애/결혼	솔로/연애중/결혼생활중/자녀와함께
장르	실용/문학/아무거나
난이도	쉬운책/보통인책/어려운책/아무거나
분량	얇은책/보통인책/두꺼운책/아무거나
한달독서량	1권 미만/1권/2권/3권/4권/5권 이상

《인생서거》는 인생에 경험과 가치를 더하는 맞춤형 컬렉션으로 구성된 도서 큐레이션 플랫폼이다.

- 추천 방식: 이용자의 성별, 연령, 관심 카테고리 정보수집을 통해 도서, 고민 상황 및 솔루션, 테마 등을 맞춤형으로 추천
- 대상 구분: 키즈북스(미취학아동, 초등저학년), 청소년북스(10대), 청춘북스(20~30대), 부모북스(40~50대), 실버북스(60대)
- 자료 선정 및 추천: 분야(문학/인문학/아트/음악북스)별 전문가와 사서가 선정한 도서 큐레이션, 이용자의 연령과 관심 카테고리를 정보 수집하여 분석, 150명의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각 컬렉션 추천도서 선정 및 추천/감수
- 기타: 추천 도서에 대한 도서관 소장정보 제공 및 전자책 대출 열람 가능, 이용자의 고민(상황별 독서)에 따른 맞춤형 솔루션과 책 속 문장 제공<sup>82)</sup>

82) 웹사이트 | www.eco.co.kr 참조



(7) 그림책 기반의 책 읽기 활동

① 기업, 도서관, 유치원, 서점, 시민단체 | AGC와 함께하는 구미그림책잔치

구미그림책잔치는 AGC화인테크노한국(기업)이 그림책 문화 확산과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행사비를 후원하고 그림책 작가 중심의 프로그램을 양포도서관(공공도서관)·삼일문고(서점)·그림책산책(도서관)·금오유치원(유아교육기관)에서 공동 기획·추진하는 사업이다. AGC화인테크노한국은 구미지역에서 공공도서관에 종이책, e-book 리더기와 전자책 및 그림책잔치, 미디어 창작공간 개선과 같은 독서진흥 관련하여 꾸준히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공동 기획·추진하는 기관 중 금오유치원은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교육으로 매일 아침 10분씩 아이가 스스로 고른 그림책을 읽는 아침독서시간을 운영하고 있다. 또 유치원내에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치원 연례행사로 자체적으로 그림책잔치를 열어왔다.

② 제이그림책포럼 & WEE 그림책 어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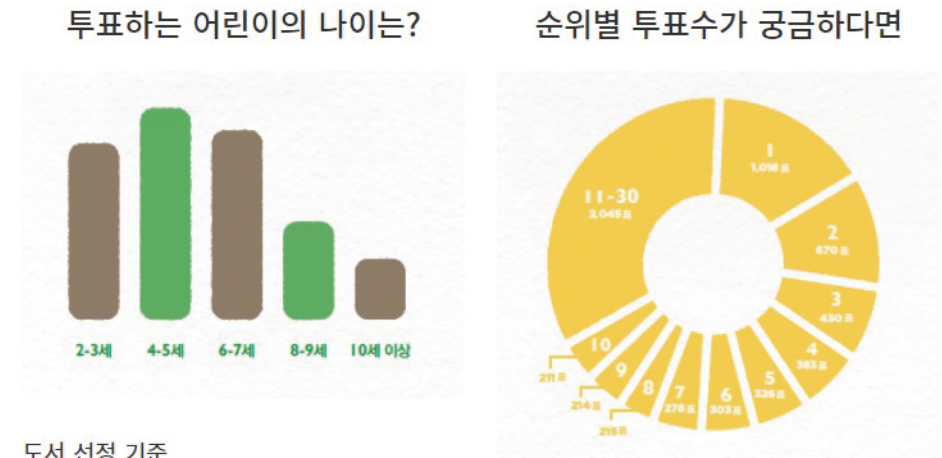
《제이그림책포럼》은 11,658명(2022.10.11. 기준)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독자 기반 그림책 카페이다. 그림책 및 그림책놀이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북클럽을 운영하며, 그림책 매거진 <라키비움 J>를 발행하고 있다. 제이그림책포럼은 전국의 도서관과 강의실에서 독자를 만나며 어린이와 성인 독자, 전집과 단행본, 영어 그림책과 우리말 그림책의 정보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장의 필요성을 느껴 만들었다고 한다. 또 대학원에 가지 않아도 깊이 있게 순수 예술 장르로서 그림책 공부를 할 수 있는 장이 되어주고, 독자 기반의 그림책 매거진 <라키비움 J>을 만들고, 그림책 출판사나 그림책을 이용한 교육 관련 사업을 하고 싶은 회사를 대상으로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컨설팅을 해 주고 싶다고 한다. 어린이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그림책에 직접 투표하는 WEE 한국 어린이 그림책 어워드 후보 도서 선정 작업에 제이그림책포럼 회원들이 함께 하고 있다.<sup>83)</sup>

《WEE 그림책 어워드》는 가족의 놀이, 예술, 배움을 다루는 매거진 WEE에서 개최한다. WEE 한국 어린이 그림책 어워드는 다양한 한국 작가들의 그림책 세계를 소개하고 그들의 창작을 응원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어린이가 투표의 주체가 되어 ‘어린이’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그림책 한 권을 선정하는 이벤트다. 어워드는 독자들의 참여와 관심을 이끄는 행사로 어린이들의 선택을 받은 책들을 소개하며 그림책을 사랑하는 독서들과 함께 즐기는 축제다. 후보 그림책은 독자 기반 그림책 카페 제이그림책포럼, 어린이도서연구회, 지역별 그림책서점 등과 함께 선정하고 있

83) 웹사이트 | cafe.naver.com/jpbforum 참조

다, 30권의 그림책이 후보로 선정되었다. 책을 추천할 때는 2년 이내(2021년 3회까지는 5년) 발행된 한국 그림책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이어야 하며, 그림책 제목/작가/출판사/출판연도/좋아하는 이유를 적어 제출해야 한다. 투표에 참가한 아이들의 연령은 2세에서 10세 이상의 어린이들까지 다양하며, 2021년에는 6천명, 2022년에는 약 3,700명이 참여했다.

<그림 2-21> 제3회 WEE 그림책어워드 투표 결과



- 도서 선정 기준
- 1 5년 이내 발행된 한국 그림책
  - 2 한 작가의 책은 최대 2권으로 제한
  - 3 한 출판사의 책은 최대 4권으로 제한

설문 기간 2021. 9. 23.~ 9. 29.  
응답 인원 6,093명

[이미지 출처 | boekenzoeker.org]

선정할 때는 5년 이내 발행된 한국 그림책, 한 작가의 책은 최대 2권으로 제한, 한 출판사의 책은 최대 4권으로 제한한다. 선정된 책은 홈페이지에 공유하고, 오프라인으로 전시를 한다. 3회는 <위그림책잔치: 우리 집에 놀러 와> 주제로 서울달갈책방에서 진행했고, 2022년 4회는 <포개어 자라는 숲: 우리 사이의 그림책> 주제로 서울 인사동에서 진행하고 있다.

그 외 그림책사랑교사모임, 좋그연(좋아서하는 그림책연구회), 아육톡(아동전문가들의 육아토크) 등 다양한 모임들도 있다.

③ 독서동아리

《그림책으로 마음을 토닥토닥》은 2020년부터 대구에서 개인이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독서동아리로 현재 10기(1기수 3개월)에 이르렀다. 회원모집은 Facebook을 통해 기수별로 모집(10명 내외)하고 책모임은 ZOOM으로 진행한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특성상 회원들의 거주지는 대구,



순천, 청주, 제주도, 서울, 의정부, 수원, 부산, 김해, 김천, 세종까지 다양하다. 읽는 책은 해당 기수마다 회원들이 직접 정하는데 6기와 8기에서 읽은 주제는 <표 2-13>과 같다. 책을 고를 때는 회원의 자녀 연령에 따라 결이 달라지고 책을 읽고 노는 방법도 회원 구성원들의 재능에 따라 시 낭송, 북트레일러 만들어보기, 악기 연주하며 노래부르기 등 다양하고 재미있게 운영하고 있다.

<표 2-13> 그림책으로 마음을 토닥토닥 독서동아리(6기와 8기)에서 읽은 주제 컬렉션

구분	주제
6기	올해 가장 좋았던 그림책, 노동, 크리스마스, 사랑, 끝까지 해 보고 싶은 일, 호랑이, 색, 시, 봄, 김지은 평론가그림책, 전미화 작가, 선거투표그림책
8기	내가 좋아하는 그림책, 탄생, 성 젠더, 다양성, 나만 좋아하는 그림책, 내가 좋아하는 그림스타일 그림책, 판타지, 이혼/상실, 죽음, 웃긴 그림책, 무서운 그림책

본 독서동아리는 읽은 책을 큐레이션하고 아카이빙을 했다. 그 결과를 <그림책으로 마음을 토닥토닥 6기 자료집>, <그림책으로 마음을 토닥토닥 8기 자료집>으로 만들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책읽는사회문화재단 독서동아리지원센터 - 자료나눔 - 자료실에 공유하고 있다.

<그림2-22> 그림책으로 마음을 토닥토닥 6기 / 8기 자료집



[이미지 출처 | www.readinggroup.or.kr/board/dataroom\_view.php?m=read&b=B\_1\_4&bn=865&nPage=1&mPage=1&con\_f=ALL&con\_s=&totalpage=6]

## (8) 어린이책 선정 자료

(사)어린이도서연구회 | 《어린이도서연구회가 뽑은 어린이·청소년책》<sup>84)</sup>

어린이도서연구회는 1995년부터 해마다 어린이가 읽으면 좋은 책 목록을 발간하고, 2013년부터는 달마다 새 책 & 도서관용 목록을 선정하고, 어린이도서연구회가 연간 목록을 펴낸 지 2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여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그림책 특집 목록>, <동화책 특집 목록>, <지식책 특집 목록>을 발행했다. 그리고 어린이들의 관심사에 따라 골라볼 수 있게 큐레이션하여 책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관찰이 재미있어지는 책, 요리와 관련된 책 등 다양한 소재나 주제를 책으로 소개하는 <내가 만든 책꾸러미>는 회원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2-23> 어린이도서연구회 큐레이션 [내가 만드는 책꾸러미]



[이미지 출처 | www.readins=&totalpage=6]

어린이도서연구회가 지난 40년 동안 좋은 책을 선정하여 사회에 발표한 것의 중심에는 회원 모두가 직접 읽고 고른다는 것과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어른들이 직접 읽어주는 과정('동무동무 씨동무' 활동 등)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적 식견을 우선하기보다는 오래 어린이책을 보면서 축적된 좋은 책을 발견해 내는 안목과 실제 책 읽어주기 활동을 통해 좋은 책, 재미있는 책을 검증하는 과정에 기반하여 자료를 선정, 추천하고 있다.

84) 2022.9.10. 어린이도서연구회 목록위원회와 도서관위원회의 ZOOM 인터뷰 진행. 어린이도서연구회가 뽑은 어린이·청소년 책 목록의 선정기준과 활용, 그리고 현재 추천도서목록 선정 과정에서 남는 과제 등 내용을 정리한 것임

- 목록자료대상: 연도별로 출판사에서 기증한 책
- 대상 구분
  - 연령 구분: 1~3세, 4~5세, 6~7세, 8~9세, 10~11세, 12~13세, 13세~16세 유아 6~7세 유아는 어른이 읽어주는 나이, 초등학생은 스스로 읽는 나이로 봄. 책 선택에 있어 연령 구분을 무조건 따르기보다는 어린이의 선택을 존중
- 선정 방법: 대상 도서를 모두 읽고 선정기준에 따라 각 권 개별 평가
- 자료 선정 기준
  - 작품성이 뛰어난 책
  - 작품 속에 어린이(또는 청소년) 감정이 잘 담긴 책
  - 어린이가 독서의 기쁨과 의미를 맞출 수 있는 책
  - 두고두고 빛이 바래지 않는 책
  - 환경과 문화의 변화를 담은 책
  - 전집 출판물은 선정하지 않음
  - 기타: 자료를 선정할 때 고려하는 내용은 1)국내작가 책, 2)국내외 통틀어 새로운 시도나 짜임새가 탄탄하거나 글과 그림의 어떤 특별한 형식을 시도한 책, 3)작가의 첫 책 등
- 자료 선정 결과(2021년 사례)
  - 과정: 입고 899종 → 심의 대상 486종 → 최종 추천 53종
  - 결과: 국내서 22종, 국외서 31종, 그 중 영아책(1~3세)은 3종인데 국내서는 1종이었음. 입고되는 영아책이 별로 없음. 요인으로는 일반 출판물보다 활발하지 않은데다 단행본보다는 전집으로 출판되는 경우가 높고 자료선정기준에서 전집류를 제외하고 있기에 출판사에서 보내지 않기 때문으로 보고 있음
- 선정 자료의 공유
  - 추천도서목록집 6,500부 제작(2022년 기준). 2015년 이전에는 공공도서관과 학교에 우편으로 발송, 이후에는 어린이도서연구회 지부와 지회 회원들을 통해 직접 배포
  - 도서목록은 홈페이지 메뉴 - 추천도서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가능<sup>85)</sup>

《책숲놀이터》 70여 개 출판사의 신간 도서 안내, 월별 테마도서 큐레이션, 작가강연회, 원화전시회, 도서관 아카이브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신간 안내 및 월별 테마도서 큐레이션은 정기적으로 전국 도서관과 학교 등에 메일링 서비스하고 있다.<sup>86)</sup>

85) 웹사이트 | [www.childbook.org/new3/index.html](http://www.childbook.org/new3/index.html) 참조

86) 웹사이트 | [blog.naver.com/bookforest001](http://blog.naver.com/bookforest001) 참조

《책씨앗》 출판사 창작과비평에서 지원하여 만들어진 독서 문화 플랫폼으로 신간 정보, 상황별 추천도서, 한 학기 한 권 읽기 추천 책, 도서관 및 학교 맞춤 독서프로그램 등 책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좋은 책을 고르기 위한 소스로 월간 책씨앗, 추천도서목록, 주제별 큐레이션, 신간도서, 서평 모아보기를 제공하고 있는데 목록은 Excel 파일로 제공하고 있다.

- 월간 책씨앗: 영유아 및 청소년, 인문 분야 등 책씨앗이 추천하는 월별 도서
- 추천도서목록: 초등교과연계추천도서, 청소년주제별추천도서, 분기 금액별(500만원/1000만원) 수서목록, 기관별 추천도서(고래가 숨쉬는 도서관/창비어린이/행복한아침독서/나다움어린이책/북스타트/어린이도서연구회-사서추천도서/학교도서관저널/한국어린이출판협의회 등)
- 주제별 큐레이션: 한 가지 주제에 5권 이내 책 소개, 콘텐츠 243개, 목록 제공(Excel 파일)<sup>87)</sup>

《학교도서관저널》 학교도서관을 한국의 교육과 출판, 문화라는 전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로 판단하고 15개 출판사들과 창간한 정기간행물이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주제별, 학교도서관저널 도서추천위원회 추천도서를 담아 연도별 추천목록을 발간하고 있으며, 주제별 목록으로 <과학 365>, <성과 사랑 365>, <만화책 365>, <진로직업 365>, <그림책 365(1.2)>, <지식그림책 365> 등을 발간했다.

- 자료 선정위원회 구성: 교사, 사서교사, 사서, 독서 및 도서관 전문가, 학부모로 구성하고, 일부 선정이 고민되는 책의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직접 읽혀 보고 선정을 결정하기도 함
- 서평 작성: 자료 선정 후 자료선정위원들이 직접 서평을 작성함
- 선정 자료의 공유: 단행본으로 목록집을 출판하여 배포 및 판매,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목록 제공(Excel 파일)<sup>88)</sup>

국내외 독서진흥 사례들을 통해 영유아 또는 어린이들에게 적절한 책을 제안하고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인 캠페인 전략에 동반되어야 할 기본적인 요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독자와 독서운동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지원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채널과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87) 웹사이트 | [bookseed.kr](http://bookseed.kr) 참조

88) 웹사이트 | [slj.co.kr](http://slj.co.kr) 참조

### 3. 복큐레이션을 기반으로 한 독서활성화 사업 제안





## 북큐레이션을 기반으로 한 독서활성화 사업 제안

읽어주는 단계에 있는 영유아와 어린이들이 ‘책’을 보다 재미있고 즐겁게 만날 수 있도록 하며 ‘책’에 대한 좋은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꾸준한 독서습관을 갖출 수 있도록 지역 사회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찾고 사업을 제안하고자 했다.

영유아와 어린이들에게 ‘책 읽어주기’를 통해 책의 세계로 안내하는 양육자와 관계 기관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국내외 독서활동 현황과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특히 많은 정보 속에서 ‘책’을 만나고, 책을 ‘읽고’, 그 느낌을 공유하는 ‘소통’의 최적화된 방법을 본 연구에서는 북큐레이션을 통해 찾고자 했다.

북큐레이션을 위해 ‘책’을 선정하는 과정에는 대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주제와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을 연결하여 ‘책’이 주는 재미와 즐거움 그리고 배움에 대한 호기심과 새로운 것에 대한 상상력을 포함하고 있다.

북큐레이션을 위해 다양한 책을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책’을 재발견하는 기쁨과 ‘책’과 ‘책’을 연결하여 또 다른 주제로의 확장도 경험하게 된다. 소수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경제적 격차가 배움과 문화와 삶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들을 찾는 과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큐레이션 된 ‘책’들은 공공도서관과 서점의 서가에서 때론 온라인의 플랫폼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이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다양한 오브제 및 매체의 연결은 사람과의 네트워크를 자연스럽게 도모하게 된다.

국내외 북큐레이션을 기반으로 한 독서활동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도서 선정 기반의 책 선물을 통한 독서운동, 부모의 참여 이끌어 내기, 어린이기관 협력과 지원, 다양한 컬렉션과 선정을 위한 도구, 영유아·어린이를 위한 큐레이션 서비스로 나누어 사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 1) 제안 1 | 도서 선정 기반의 책 선물을 통한 독서운동

### (1) 보드북 제작 지원 사업

#### ① 사업 개요

출판사에서 양질의 영아 단계 보드북을 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써 영아와 양육자 및 관련 기관에서 보드북을 읽을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소재 및 내용의 보드북을 통해 아이들이 첫 책에서 만나는 책의 즐거움과 재미를 높이는 계기를 만들며, 보드북 출판의 성장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 ② 사업 내용

##### ○ 목적 및 필요성

첫아기 그림책으로의 보드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책과 함께 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보드북이 소개되고,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 및 관련 기관에서 책을 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북큐레이션은 기존의 도서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데, 일정 시기가 지나면 책을 다시 선정하고 그 목록을 활용한다. 그러나 현재 보드북은 그 수가 부족하여 북큐레이션을 할 도서가 제한적이다. 다양한 형태와 재질로 만들어지는 영유아 도서의 보급을 통해 책 선택의 기회를 늘리고 책과의 즐거운 만남을 제공하고자 한다.

##### ○ 주요 내용

- 다양한 형태의 보드북 출판을 장려할 수 있도록 제작 지원 사업을 마련한다. 첫 책으로 만나면 좋은 다양한 재질과 모양 등이 고려된 양질의 보드북 제작을 지원함으로써 보드북 출판에 동기를 부여한다.
- 다양한 보드북 출판으로 아기와 양육자가 태어나면서부터 책과 만나는 기회를 확대하고, 도서 선택의 폭을 넓힌다.
- 느린 학습자(다문화가정 및 장애 아동을 둔 가정)를 위한 보드북 활용 방안 가이드를 제공한다.

##### ○ 예산: 2,000,000천 원

내용	산출내역
보드북 제작 지원 및 보급 지원	1권 평균 15,000원 * 1쇄 1,000권 * 100종 = 15억 원
발간지원	5백만 원 * 100종 = 5억

③ 참고 사례

- 양서 출판 의욕 진작 및 독서문화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세종도서 보급 사업에서 2021년 기준 유아·아동도서의 비율은 2.5%였으며, 총 14종의 도서가 선정되었다. 이 중 보드북은 2종으로 취약한 실정이다.
- 북스타트 1단계(생후 ~18개월) 도서 선정에 해당된다. 2022년 기준 1단계 보드북은 27종이 선정되었다.
- 미국 독서단체 퍼스트북(First book)에서 진행하는 모두의 책(The Stories for All Project)은 2013년 “더 다양한 캐릭터와 목소리를 큐레이팅한다”를 목표를 가지고 시작되었다. 이 기관은 출판사에 다양한 삶의 경험과 목소리를 담은 최고의 책을 반쯤 없이 구매하겠다고 제안하여 출판사들이 기존에 비용 문제와 소수 대상으로 제작을 우려했던 책들을 출판하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다.
- 영국의 북트러스트는 웹사이트를 통해 매월 신간 도서를 검토하고 선정하며, 연령별(0~3세/ 4~5세/ 6~8세/ 9~11세)로 나누어 다양한 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독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북트러스트에서는 아이가 접하는 첫 책으로서의 중요성과 독자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책들을 중심으로 ‘최고의 어린이책’을 선정한다. 전년도 출간 도서를 중심으로 100권의 책을 선정하고, 학교 및 관계 기관에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배포한다. 목록은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어 누구나 활용이 가능하다.

④ 기대 효과

- 양질의 보드북 제작과 보급으로 영아 단계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책’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 아기와 양육자가 ‘책’의 즐거움을 일찍부터 만날 수 있는 독서 기회가 확대된다.
- 출판사에서는 양질의 보드북 제작의 기회가 늘어나고, 이는 출판 진흥에 도움이 된다.
- 북스타트 1단계 도서 선정 시에도 선택의 폭이 확대되며, 다양한 도서를 제공할 수 있다.

(2) 생일책 365

① 사업 개요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맞는 생일에 사회가 아이의 지나온 1년과 건강을 축복하며 의미 있는 책을 선물한다. 365일에 맞추어 매일 1권의 아기 책을 선정하고, 생일을 맞은 아기들에게 선물을 한다. 매일이 다르듯, 아이들도 모두 다르다. 365권의 책은 아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존재임을 느끼며 준비하는 아기 책의 첫 북큐레이션이 될 것이다.

② 사업 내용

○ 목적 및 필요성

돌잔치는 가족과 이웃이 아기가 태어나 1년 동안 건강하게 자란 것을 축하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생애에서 처음 맞이하는 특별한 생일 축하 자리이다.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처럼, 사회의 소중한 일원으로 자라날 아이의 첫 생일에 기념이 될 만한 ‘책’을 선물함으로써 축하와 응원의 마음을 건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책을 선물하는 작은 행위가 점점 개별화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아이의 성장과 육아를 지지하고 있다는 상징적 의미도 될 수 있다. 또한 그 선물이 ‘책’이기에 다른 선물과 다른 가치를 전할 수 있다.

○ 주요 내용

- 아기의 이름을 각인하여 같은 날이 생일인 작가가 선물하는 방식으로 책을 제작하여 선물한다면 365명의 작가가 선정될 수 있으며, 생일이 같은 전국의 아이들이 같은 책을 받고 서로 축하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 동네서점에 특별한 북큐레이션 코너를 마련하고, 지역에서 책 쿠폰 발행하여 지역서점을 통해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지역서점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한다.
- 도서관 어린이실 내 영유아 북큐레이션 코너를 상시, 정시 운영함으로써 양육자들에게 영아책을 볼 기회를 제공한다.

○ 예산: 578,000천 원

내용	산출내역
도서	(365권 * 15천 원) * 100곳 = 547,500천 원
선정위원회	(5명 * 3회) * 200천 원 = 3,000천 원
운영경비	1식 * 500천 원 = 500천 원
운영인건비	(1명 * 2,500천 원) * 10개월 = 25,000천 원
발송료	100곳 * 20천 원 = 2,000천 원

③ 참고 사례

- 기타나 히로미쓰 저자의 「앞으로의 책방」에서 소개된 BIRTHDAY BINKO
- 서울 연남동 리스본 서점 생일 책 박스 운영

## ④ 기대 효과

- 출생신고가 된 모든 아이들이 축복의 생일책을 받을 수 있다.
- 읽어주는 양육자도 '책'에 대해 특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읽어줄 수 있다는 효과가 돋보인다.
- 365일 생일책을 찾는 과정에서 다양한 책들을 볼 수 있고, 특히 아이들의 첫 그림책 선물이라는 점에서 책을 여러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 2) 제안 2 | 양육자의 참여 이끌어내기

## (1) '읽어주기 좋은 책' 선정 및 독서활동 지원 확대

## ① 사업 개요

혼자 읽기에 힘든 영유아 및 초등 저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읽어주기 좋은 책' 선정 및 독서활동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이다.

## ② 사업 내용

## ○ 목적 및 필요성

영유아 및 초등저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책을 읽어주는 사람들이 '책' 읽기 활동을 일상의 습관으로 정착하기 위한 과정에서 가장 힘겨워하는 것이 어떤 책을 어떻게 읽어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한 명확하고 신뢰성 있는 목록을 찾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에 다수의 책을 직접 읽고 선택하며 연령과 대상이 고려된 독서활동을 추진하는 단체 및 기관의 북큐레이션 목록들이 통합되고 한 곳에서 볼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이 발굴되고 확대되어 전국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필요하다.

## ○ 주요 내용

- 북큐레이션을 활용한 독서운영 사례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 독자적인 하나의 사업보다는 지역과 공간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경우에 맞춤형 북큐레이션을 활용한 목록을 취합한다.
- 이를 하나로 수집하여 활용이 가능한 북큐레이션 플랫폼의 마련을 통해 미시행 지역에서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며, 기존에 자체 사업을 하는 경우는 안정적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 출판 목록 데이터 DB 확보로부터 대상별 읽기 좋은 책 선정을 위한 북큐레이션에 대한 계획 단계, 이의 실행을 위한 가이드북 형태의 운영 매뉴얼, 평가 방식 및 평가 내용 등 사업 확산을 위

한 운영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 선정기준 마련을 위한 다양한 토론회 및 교육과 모임을 개최한다.

- 각기 다른 기관의 선정기준에 대한 검토
- 영유아·어린이 도서 선정의 기준을 실제화하기 위한 논의의 틀 마련
- 사회적 관심 및 참여 기회 확대

## ○ 선정위원회 구성

본 연구에서 찾아진 사례에서는 국내에서 '1000책읽기'와 '친구야, 나한테 책 읽어줄래?' 선정을 위한 조직 운영의 사례를 다음과 같이 찾을 수 있다. 선정위원회의 구성은 현실화할 수 있는 범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 ● 공공도서관 - 사서

해당 지역에 대상의 이용자 및 양육자를 직접 만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사서들이 주축이 되어 사업에 필요한 도서의 선정기준을 세우는 유형으로, 사서의 전문성을 확인하며 사명감을 고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향후 보완적 측면에서도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있다. 다만 사서의 업무량이 많아 직접 읽고 선택하는 기간에 다른 업무와의 중복으로 일의 과부하가 초래된다는 점이 발견된다.

## ● 지역 - 독서동아리

대상 중심으로 읽어주기 활동과 연계된 독서동아리는 항상적으로 책을 읽는다는 것이 주요한 활동이기에 도서 선택과 주제 선정 등에 연령별 특성 및 읽기 수준 등이 다양하게 고려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전문성이 있는 도서를 선정할 때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하며, 독서동아리를 선정 과정에 선택하기 위해서는 목적에 맞는 교육이 수반되어야 한다.

## ● 네트워크 - 유관기관, 전문가

사업의 취지에 맞추어 여러 기관 및 전문가를 회의로 소집하여 목적 달성 시까지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사업의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각 기관 또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회의 소집 시 일정 조율 및 도서를 중심으로 한 읽기 활동의 경험이 취약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도서 선정에서 다소 현장감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의견 조율을 위한 또 다른 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 ○ 독서활동 - 독서문화예술활동 결합

- 영유아·어린이 대상의 북큐레이션 된 자료들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이용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활동과의 결합이 요구된다.
- 해당 도서의 공공이용권에 대한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적극적인 문화예술인들이 결합된 책읽어주기 활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어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
- 특히 각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북큐레이션 된 도서들을 방문 이외의 방법으로도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개발도 필요하다. 메타버스 활용, 유튜브 등 활용 가능한 콘텐츠 개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 파주 중앙도서관 [책먹는아이] 유튜브 영상은 어린이실 사서가 직접 책을 소개하고 관련된 책의 내용을 연계한 책놀이를 진행하여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 영유아·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북큐레이션 기반의 독서활동에 대한 연구 사업은 효과성 연구 등을 통해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해 낼 수 있다. 성장하는 어린이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기에 실질적 이용 대상자층을 중심으로 활용성과 반응에 대한 추적 조사 등 연구를 바탕으로 발전적인 사업 제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연구 사업도 공모의 한 축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 ○ 홍보

- 홈페이지 - 기존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북큐레이션 부분이 대상에게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및 보완 내용이 필요하다. 홈페이지는 북큐레이션의 운영에서 축적된 자료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 캠페인 - 북큐레이션과 연계한 다양한 분야 및 독서프로그램과의 연계 활동이 더욱 적극적인 방식으로 제안될 필요성이 있다. 북큐레이션 선정 과정에서 이슈나 주제 중심의 경우 전체 사회적 캠페인의 목표와 주제 등이 선정되어 사업이 전방위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주제에 따른 작가 참여의 캠페인과 방송 및 디지털 공간에서 노출 빈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전체 북큐레이션 사업과 대상에게 정서적으로 가 닿을 수 있는 캠페인을 마련한다. 더불어 주제 선정에 있어 협력기관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회적 이슈를 담은 캠페인을 설정하여 실천 가능한 형태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례로 00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지구 살리기’ 실천 “나로부터 시작한 지구 살리기” 등의 캠페인이 공공도서관 북큐레이션과 연계하여 주제 컬렉션을 마련하고 당사자들이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실천 활동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 ○ 아카이빙

매년, 매월, 매주 단위의 주기성을 갖는 북큐레이션 된 목록 및 사진 기록, 활동 참여자의 반응 등을 포함하여 전체 과정을 축적된 자료로 남길 수 있도록 하며, 이는 실시간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정보 열람이 가능한 방식이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 제시를 통해 북큐레이션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지속성을 가진 활동으로 기록되고 유지되도록 하는 방안들이 사업 안에 고려되어야 한다.

## ○ 사업 주기

북큐레이션의 주기 설정이 필요하다. 사례로 1000책읽기에 정한 목록은 5년을 주기로 하는데 이 주기가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과 해당 대상에게 적합한가에 대한 시기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최소 1일 1권 365일 책읽기 활동은 3년 이상의 시간을 소요하게 되는데, 이후 자료의 시기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논의되어야 한다.

## ○ 교육

북큐레이션을 위해서는 ‘책’의 선택에 대한 경험과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선택하고 가공하여 전달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오랜 시간 해당 분야 및 대상에 대한 쌓인 경험의 결과 없이 단순한 기술만으로 북큐레이션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기술적인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기보다는 이를 활용할 수 있고 기술의 도움을 바탕으로 ‘적절한 책’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대상’에게 전달하기 위한 시간적 투자가 우선되어야 한다. 몇 회의 교육이 아니라 일상적인 책읽기를 기반으로 하는 사서나 독서 모임 등의 활동을 통해 다수의 책을 접하거나 다수 사람들과 책에 관한 의견을 상호 소통하는 그룹이 전제되고 장기적으로 경험이 축적될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하다. 북큐레이션을 위한 교육을 기초와 심화 과정으로 나눈다면, 기초는 시작 단계의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인 책의 선택에 도움이 될 지침들을 책을 읽으며 익히는 과정이며, 심화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주제 컬렉션을 구성하여 실현해 가는 과정으로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 ○ 평가 - 피드백

사업의 결과를 아카이빙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다양한 독서활동 및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결과는 단순한 설문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사업은 사람이 책을 읽고 난 후의 변화에 주목한다. 따라서 사업이 갖는 목적과 사업 결과를 장기간 추적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북큐레이션을 기반으로 한 독서활동의 사업은 평가 과정 또한 장기간을 요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수반되어야 함에 이를 위한 평가 도구의 마련이 필요하다.

○ 예산: 400,000천 원

지역에서 북큐레이션 사업 추진을 위해 어떤 단계에 있는가는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도 큰 폭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북큐레이션을 활용한 독서활동의 공간으로, 자료로, 디지털 시스템 구축, 정책 연구, 지역 네트워크 연계 등 어떤 부분에 사업의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규모가 다양한 예산 선정이 요구된다. 사례로 안성시립도서관의 1000책읽기는 1,7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도서 구입과 홍보물 제작, 시상, 목록 작성을 위한 실무자 회의 등을 포함하면 사업당 2,000만 원 내외의 사업비가 필요하다. 중랑숲어린이도서관에서 추진한 취학 전 천 권 읽기의 경우 1억의 예산으로 추진되었다. 따라서 사업 예산은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교육 및 북큐레이션 활동가 양성, 독서문화예술활동 결합)에 따라 상·하한선이 결정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내용	산출내역
도서	(1,000권 * 15천 원) * 10곳 = 150,000천 원
책촉제지원	10곳 * 10,000천 원 = 100,000천 원
브랜딩지원	10곳 * 10,000천 원 = 100,000천 원
북큐레이터 양성과정	10곳 * 5,000천 원 = 50,000천 원

③ 참고 사례

〈표 3-1〉 북큐레이션을 활용한 독서활성화 사례

서점	운영 주체	지역	특성화
1000책읽기	공공 도서관	- 서울 중랑구 중랑숲어린이도서관 - 경기(안성시립중앙도서관, 이천 효영도서관) - 청주 기적의도서관	- 읽기 좋은 연령별 도서 추천 - 주제별 컬렉션 마련 도서 추천
친구야, 나에게 책 읽어줄래?	공공 도서관	- 강원(춘천담작은도서관)	- 인형 등 책읽기에 도움이 되는 키트 포함 - 읽기 좋은 도서 선정
페이지 가방 (sac de pages)	독서단체	- 국외(프랑스)	- 연간 주제도서 - 50세 이상의 책읽어주기 자원활동가 학교 및 요청 영유아기관 파견
어린이도서 연구회가 뽑은 어린이·청소년 책	독서단체	- 국내 (전국) 어린이도서연구회	- 어린이읽어주기 좋은책 추천 목록 - 목록속의 목록을 통한 주제도서 추천 - 동무동무씨동무 활동으로 학교, 어린이 집, 지역아동센터 대상으로 책읽어주기

삼일문고	서점	- 구미	- 구미 금오유치원등과 연계 지역 내 그림책촉제 진행 - 기업 후원으로 촉제 사업비 지원.
야호, 책이다!	작은 도서관	- 국내(인천늘푸른어린이도서관)	- 월 주제 큐레이션 도서 어린이집 대출 서비스 - 1달 간 대출 - 원아수에 맞춤 1인 1책 - 작은도서관 활동가 책 선정 - 어린이집 월별 교육 주제 참고

④ 기대 효과

- 영유아와 초등 저학년 어린이 대상 책읽어주기 활동의 기본이 되는 도서목록 선정을 통해 도서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양육자 및 기관의 어려움을 해소한다.
- 사회적 책읽기 독서문화 확산의 계기가 된다.
- 도서관 및 육아 관련기관, 학교도서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영유아·어린이 대상의 북큐레이션 플랫폼 구축으로 독서활성화에 기여한다.

(2) 출생에서 취학 전 어린이 북큐레이션 목록 및 도서 제공

① 사업 개요

태어나고 성장을 함께하는 기관으로 산부인과와 소아과는 밀접한 영향을 갖고 있다. 의사와 병원 종사자들은 지역의 이웃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어린이와 양육자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이다. 성장하는 어린이들의 신체적 발달과 정서적 안정은 건강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성장기에 양육자와 함께 하는 책읽기는 어린이 성장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에 산부인과와 소아과와 연계하여 영유아 독서 캠페인을 추진하고, 병원 안에 ‘읽어주기 좋은 책 서가’를 마련하여 대기하는 동안 책읽기를 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사업 내용

○ 목적 및 필요성

첫 부모가 되는 경우 아이에게 언제, 어떤 책을, 어떻게 선택하여 읽어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가장 많다. 이에 가장 많이 찾는 기관인 산부인과와 소아과와 연계하여 영유아 독서 캠페인을 추진하고 선별된 책 목록과 도서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확산하여 영유아 독서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 주요 내용

산부인과와 소아과 연계 - 전국 산부인과와 소아과 연계하여 북스타트 1단계(생후~18개월), 2단계(19~35개월), 3단계(36개월~취학전) 선정목록 전국 배포 사업을 추진한다. 목록집의 대규모 제작, 배포 비용을 추가하고, 해당 도서 비치 서가 마련 사업 추진, 영유아 독서활동 권장 캠페인을 연계한다.

북스타트 홍보물 제작 예산 확대 - 기존 배포와 별도로 소아과와 산부인과 배포용 목록을 포함한 사업 안내물을 제작, 배포하는 비용을 추가한다.

○ 예산: 162,000천 원

내용	산출내역
도서	(100권 * 15천 원) 1,500천 원 * 100곳 = 150,000천 원
서가	100개 * 100천 원 = 10,000천 원
배송료	100곳 * 20천 원 = 2,000천 원

③ 참고 사례

미국 소아과학회(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에서는 유아에게 매일 일정한 시간에 책 읽어주기를 적극 권장한다. 특히 만 3세 이전의 아기들에게 부모의 책읽어주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④ 기대효과

아기들과 양육자가 가장 많이 방문하는 신뢰성 있는 기관인 사는 지역(동네) 산부인과와 소아과 등에서 아기에게 읽어줄 수 있는 도서목록 홍보물을 만나거나 직접 실물 책들을 보게 되는 동기를 부여한다.

(3) 장애 어린이를 위한 북큐레이션 서가

① 사업 개요

장애를 가진 어린이와 가족이 공공도서관에서 '책'을 만날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 어린이를 위한 북큐레이션이 된 서가를 갖추는 사업을 제안한다.

② 사업 내용

○ 목적 및 필요성

다양한 유형별 장애 어린이를 위한 '책' 읽기와 관련된 관심과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대체 자료에 접근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책' 읽기 활동은 비장애를 가진 영유아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성장 과정에서 장애에 따른 대체 자료 및 보조 도구의 사용을 익히기 전 단계에서 '책'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도서관 이용 및 '읽기 편한 책'을 갖춘 장애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북큐레이션 서가를 공공도서관에 마련하도록 한다.

○ 주요 내용

공공도서관 내 장애 어린이를 위한 북큐레이션 된 특별 서가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장애 어린이의 도서관 이용 경험을 확대하고 종이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독서 매체를 경험하고 익히게 하는, 장애를 가진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환경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장애와 비장애 어린이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장애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예산: 400,000천 원

내용	산출내역
장애아동 북큐레이션 서가	80곳 * 5,000천 원 = 400,000천 원

③ 참고 사례

○ 스웨덴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애플 서가(APPLE SHELF)는 공공도서관에 장애 어린이들이 접근 가능한 다양한 매체의 미디어를 지원하고 있다.

○ 스웨덴 MTM(스웨덴 장애인을 위한 미디어 센터)은 모든 이에게 동등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 아래에 일반 장서의 매체 변환에 기술 지원을 위한 다각적 방법과 정책 구현을 구현하고 있다.

○ 녹음도서, 점자도서, E-textbooks, 수어 영상 도서 대출과 점자책, 읽기 쉬운책, 읽기 쉬운 신문, 촉각그림책, 점자퀵린더 등을 판매하고 있다.

○ 영국 공공도서관은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어린이 또는 성인, 그리고 그 가족을 위한 컬렉션을 구성하여 대출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 컬렉션은 자폐 아동을 가르치는 교사이자 작가인 디어드리 셸리번이 선정한 도서와 읽기 가이드, 감각, 촉각 장난감과 도구, 운동과 생활의 기술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장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 국내에서는 느린 학습자를 위한 쉬운 읽기 책 제작 및 보급 사업을 진행하는 피치마켓이 있다. 발달장애와 경계성 지능 장애와 문해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문학서, 주제가 있는 정기간행



물, 이해하기 쉬운 문서, 정책 정보, 안내물 등을 출판한다. 장애 어린이를 위한 도서 개발은 아직 미진한 상황이다.

- IBBY는 2005년부터 2년에 한 번씩 장애 아동을 위한 좋은 책 목록을 3가지 범주<sup>89)</sup>로 나누어 목록을 선정한다.
- 한국 KBBY도 한국 아동 도서를 심사, 선정하여 추천하고 있다. 2021년 총 12권의 도서가 추천되었다. 다만 범주1에 속한 작품을 응모한 출판사가 없었다.

④ 기대효과

- 장애 어린이가 책에 관한 관심과 경험을 갖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 장애 어린이를 위한 장서 개발의 기회를 마련한다.
- 장애와 비장애 어린이가 공공영역에서 서로의 읽기 경험을 교류함으로써 인식 개선의 기회를 제공한다.

3) 제안 3 | 아동기관 지원과 협업

(1) 유아교육 기관 종사자 대상 북큐레이션 교육 시행

① 사업 개요

어린이집과 유치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돌봄기관에 종사하는 교사들에게 그림책을 기반으로 하는 북큐레이션 관련 교육을 상시 진행하여 교육 과정에 접목하고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책들에 대한 최신 정보 제공의 기회 및 실물도서를 접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② 사업 내용

○ 목적 및 필요성

제4차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및 누리교육과정에 기초하여 시기별 필요도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선택의 방법 및 읽어주기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강화되었다. 교사는 어린이들과 함께하며 아이들의 특성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교사의 책 선택은 어린이의 정서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책을 선택하는 기준 및 다양한 책을 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89) 범주 1은 '다른 포맷과 디자인'의 그림책으로 특별히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발달적 어려움을 가진 독자를 고려하여 고안된 점자, 수화, 촉각책 등/ 범주 2는 일반적인 형식의 그림책이지만 글과 그림, 주제의 측면에서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 모든 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림책 / 범주 3은 범주 3은 장애를 지닌 인물이 등장하는 그림책과 글 책 모두를 포함

○ 주요 내용

교사 교육 과정에 그림책 관련 교육 내용을 추가하고 정기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신간 및 교육 연계도서목록의 실물도서를 접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 및 지역서점과 연계하여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예산: 218,400천 원

내용	산출내역
강사비	(17권역 * 12회) * 400천 원 = 81,600천 원
자료집	(17권역 * 100부) * 30천 원 = 51,000천 원
운영관리비	(17권역 * 12회) * 200천원 = 40,800천 원
홍보물 (현수막, X-배너)	1식 * 3,000천 원 = 3,000천 원
후속지원	17권역 * 1,000천 원 = 17,000천 원
운영인건비	2,500천 원 * 1명 * 10개월 = 25,000천 원

③ 참고 사례

- 일본 돗토리현립중앙도서관에서는 관내 교원들이 신간을 항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별도의 신간도서코너(열람실)를 마련하였다. 이 공간에서 책을 수시로 열람하고 원활하게 신간의 흐름과 내용을 파악하여 현장에서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네덜란드 독서단체(idereenleest)와 플랑드르 지역 육아전문교육센터(VCOK)가 협력하여 보육시설에서 영감을 주는 독서 환경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총 12개 도서관과 14개 보육시설이 참여하여 보육시설에 물리적 독서 환경 구성뿐 아니라 공공도서관과 보육시설 간 유대감과 협력관계를 형성한다. 특히 이 프로젝트에서는 보육교사의 역할이 영유아의 독서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며, 보육시설의 직원들을 독서 코디네이터로 양성하는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등 다각적 방법과 정책을 구현하고 있다

④ 기대효과

- 상시 교육을 통한 영유아·어린이 그림책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교사가 직접 읽어주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교사의 참여 기회 및 책 읽어주기 활동을 통해 유아기에 필요한 친밀한 소통을 통한 애착 관계 형성이 증대한다.

(2) 어린이도서관 중심으로 ‘어린이 전문사서’ 전문 북큐레이터로 양성

① 사업 개요

전국 100여 개 어린이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를 어린이책 북큐레이터로 양성하여 어린이 전문 사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② 사업 내용

○ 목적 및 필요성

전국적으로 100여 개의 어린이전문도서관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어린이도서관은 책을 기본 콘텐츠로 어린이 독서활동의 중심 기관으로 활동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의 발달 특성이 고려된 어린이책을 전문으로 다루는 사서의 역할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주요 내용

어린이도서관 사서 중심의 어린이책 북큐레이터 교육 및 양성과정을 신설한다. 교육 내용은 어린이 발달 단계 이해, 어린이책에 대한 이해, 어린이책과 독서문화예술활동, 어린이와 관련된 기관과의 연계 활동, 주제 및 연령별 북큐레이션 사례 등을 포함한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주관으로 진행하여 ‘어린이책 북큐레이터’ 과정을 전문교육과정으로 이수토록 한다.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북큐레이션 기반의 영유아·어린이 도서목록 및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어린이책 북큐레이션을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중심으로 활동하게 함으로 어린이 전문사서의 기틀을 마련한다.

○ 예산: 218,400천 원

내용	산출내역
강사비	(17권역 * 12회) * 400천 원 = 81,600천 원
자료집	(17권역 * 100부) * 30,000원 = 51,000천 원
운영관리비	(17권역 * 12회) * 200천 원 = 40,800천 원
홍보물 (현수막, X-배너)	1식 * 3,000천 원 = 3,000천 원
후속지원	17권역 * 1,000천 원 = 17,000천 원
운영인건비	2,500천원 * 1명 * 10개월 = 25,000천 원

③ 참고 사례

싱가포르에서 추진하는 매일 책 한 권(A BOOK A DAY) 사업은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위원회가 조직하는 사업으로, 싱가포르 전체 공공도서관에서 동일하게 추진하고 있다.

④ 기대효과

어린이 전문사서의 신뢰성은 어린이 독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정과 연관된 기관에 신뢰를 줄 수 있는 도서목록 개발 및 독서활동의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북큐레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독서활성화 사업의 주제 형성 및 각 기관의 사업 지속성을 보장한다.

4) 제안 4 | 다양한 컬렉션과 책 선정을 위한 도구

(1) 주제별 북큐레이션 꾸러미 제작 배포

① 사업 개요

연차별 주제를 정하고, 대상별 도서를 선정하여 큐레이션 된 책 꾸러미를 만들어 배포한다.

② 사업 내용

○ 목적 및 필요성

같은 시기를 살아가는 어린이들에게 매년 적합한 ‘주제’를 선정하고, 이에 따라서 읽어주기 좋은 책을 선정하여 책꾸러미를 만들어 배포한다. 특정 주제에 맞고, 대상에 맞는 책들을 큐레이션 해보면서 연계된 다양한 독서동아리, 독서축제, 독서활동으로 2차적 활동을 연계하여 지역 독서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 주요 내용

주제 선정을 위한 질문 이벤트를 추진한다. 주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전국 단위 홍보물을 제작하고 배포한다. 대상별 도서를 선정하여 책꾸러미를 만들어 배포한다. 당사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주제별 북큐레이션 구축을 위해 현재의 연령별 카테고리(어린이)에서 연령 구분을 더욱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독서IN 등의 홈페이지에 매년 주제 컬렉션 아카이빙이 필요하다. 주제 꾸러미를 읽어 줄 자원봉사자 또는 독서동아리 육성 및 활동 지원을 통해 주제를 홍보하는 ‘책 읽기 캠페인단’을 구성하고 사회적 독서운동의 계기를 마련한다.

○ 예산: 875,000천 원

내용	산출내역
주제 꾸러미(100개) 1꾸러미 당 5권10주제 10꾸러미	(10주제 * 10꾸러미) * 100곳 * 75천 원 = 750,000천 원 (1꾸러미 * 5권) * 15,000 = 75천 원
독서활동재료	200천 원 * 100곳 = 20,000천 원
홍보물 제작(꾸러미 가방, X-배너, 가이드북)	100곳 * 1,000천 원 = 100,000천 원
꾸러미 선정위원회 회의비	2회 * 5명 * 200천 원 = 2,000천 원
발송비	100곳 * 30천 원 = 3,000천 원

③ 참고 사례

- 미국 ‘사회 정의 도서’는 다양한 사회적 정체성(인종, 민족, 성별, 계급, 성적 취향, 장애)에 대한 사회의 태도를 반영한 도서를 선정하고 2017년에 개발된 웹사이트 swws(어린이와 청소년 출판물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활동하는 작가, 학자, 교육자, 사서 등으로 구성된 단체)의 아동도서 서평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소개된 책들은 해당 지역 독립서점 등과 연계하여 실시간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며, 여기서 마련된 수익금은 교육을 위한 재정으로 기부되는 방식으로 선순환 구조를 확보하고 있다.
- 프랑스 페이지 가방 : 2~5세, 6~11세, 2~13세 3단계 꾸러미. 매년 특정 주제를 정하고 책과 관련된 설명과 게임이 수록된 가이드북을 가방에 담아 준다. 국립독서센터에서 진행하며, 출판사의 참여를 독려하고 또한 교육부와 연계하여 방학 중 활용하도록 독려한다. 혼자 읽기 힘든 어린이들을 위한 1:1 읽어주기 자원활동가를 모집하고 교육한 다음 파견한다.
- 경기도 파주 평화를 품은 집(작은도서관) 평화 책 꾸러미 : 주제 도서와 함께 퍼즐 및 보드게임 등 책을 함께 읽는 사람들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놀이를 즐길 수 있는 독서활동 도구가 자체 제작되어 책 꾸러미 보자기에 함께 담아 대출하고 있다.

④ 기대효과

- 특정 주제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히고 주제 도서에 대한 접근을 통해 새로운 지식 및 정보 취득의 기회를 제공한다.
- 다양한 질문을 통해 ‘독서’가 갖는 상호 세대 간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 읽어주기 좋은 주제 도서목록을 마련한다.
- 주제 북큐레이션을 통한 사회적 활동(꾸러미 도서목록 마련, 독후활동 자료 제공 등에 참여)을 통해 지역사회 독서 네트워크를 추 형성한다.

5) 제안 5 | 영유아·어린이를 위한 큐레이션 서비스

(1) 영유아·어린이 독서활동 전용 온라인 플랫폼

① 사업 개요

영유아·어린이와 양육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책과 함께 활용 가능한 다양한 활동자료가 있고, 북큐레이션 된 자료들이 통합 운영되는 독서 관련 온라인 플랫폼(홈페이지)을 구축한다.

② 사업 내용

○ 목적 및 필요성

공공도서관 및 독서 관련 단체에서 운영하는 북큐레이션은 서평을 위주로 한 검색 이외에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단순히 책을 추천하는 것 이외에 책과 관련된 독서활동에 필요한 자료들을 쉽게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 북튜버들의 개인 활동이 사람들의 관심으로 책의 발견성을 높이고 있다. 이들의 개별 활동을 공공의 영역에서 더욱 확대하고 어린이 도서를 추천하는 북튜버들의 활동이나 공공도서관 및 지역서점 등의 큐레이션된 자료들이 한 곳을 통해 연동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통합 온라인 북큐레이션 플랫폼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

○ 주요 내용

어린이 대상의 양질의 도서 제공 및 연관 도서를 소개한다. 도서와 함께할 수 있는 독서활동 자료를 제공한다. 개인 맞춤형 북큐레이션 코너를 마련한다. 작가가 직접 운영하는 코너를 통해 작가와 독자의 만남 기회를 제공한다. 다양한 언어로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다문화 가정에서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 예산: 54,500천 원

내용	산출내역
홈페이지 개발 및 운영	1식 x 50,000천 원=50,000천 원
북큐레이션 자문회의	(3회 * 5인) * 300천 원 = 4,500천 원



③ 참고 사례

- 웨스트포스트 공공도서관 어린이용 홈페이지에서는 독서와 관련된 온라인 자원(각종 목록, 주제 큐레이션, 도서 추천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 미국 최대 규모의 아동 문해력 관련 단체인 <Reading Is Fundamental>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Literacy Central>은 연령, 주제, 유형, 읽기 수준, 장르별 도서 검색 기능과 가정과 기관에서 활용할만한 자료, 읽기보조도구, ISBN을 스캔하면 바로 해당 책과 관련된 모든 자료와 바로 연결되는 모바일앱을 제공하고, 다양한 기관과 협업한 특별 컬렉션, 활동팁, 연구자료들을 볼 수 있으며 교사, 부모, 자원봉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 등을 담고 있다.
- 웹스코(EBSCO)가 도서관에 제공하는 <Novelist-Appeal Factor>은 독자의 책 선택을 위해 다양한 특성(오디오, 캐릭터, 그림, 이야기, 글쓰기 스타일, 줄거리, 분위기)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들이 주로 읽는 그림책은 일러스트의 색상, 그림 스타일, 분위기 등 다양한 관점에서 책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
- 국내에서는 스쿨북스에서 성격유형을 적용하여 책 선택을 돕는 기능이 추가된 사례가 있다. 필요도서는 전자책과 연동하여 바로 읽을 수 있으며, 개인별 서가를 통해 읽은 책을 기록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④ 기대효과

- 책에 대한 흥미 증진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활용 가능한 온라인 독서 시스템을 구축한다.
- 흩어져 있는 북큐레이션 자료 아카이브 및 상호 간의 네트워크를 마련한다.

국내외 북큐레이션 현황과 독서활성화 방안

## 4. 시사점 및 제언



## I 시사점 및 제언

### 1) 시사점

‘어떻게 하면 영유아와 어린이를 가진 부모(양육자)들이 그들에게 읽어줄 책을 쉽고 잘 선택하여 독서의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할 것인가?’에서 출발하였다. 독자인 어린이들이 ‘책’을 읽으며 즐거움과 재미를 느끼고 지속적으로 책을 읽는 습관을 형성하여 스스로 읽기 단계가 되었을 때 선택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없는 독서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인가이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여파는 어린이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게 하였다. 바쁜 일상이 독서를 하기에 가장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1순위의 답을 계속해서 독서 실태조사 결과로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서 갑자기 주어진 시간에 무엇을 하는가라는 답을 ‘책’에서 찾는 경우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 미디어 콘텐츠가 다양해지고 특히 코로나19 비대면 상황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콘텐츠의 성장을 가속화시켰으며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세대의 어린이들에게는 디지털 매체와 함께 하는 과정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그러나 성장하는 과정에서 종이책이던 전자자료, 유튜브 등의 디지털 매체이든 어린이와 함께 읽기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함께’ 하는 과정이다.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교사, 지역사회가 함께 어린이의 성장을 돕기 위한 노력은 그들의 읽기 과정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와 방법을 모색해야하는 것이다.

영유아·어린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취할 것인지 특히 문해력을 성장시키는 첫 단계에 있는 시기이며 가장 결정적 시기에 놓인 이들의 가장 기초가 되는 ‘책’ 읽기 과정에서 즐거운 ‘책’과의 만남의 경험을 선물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찾고자 하는 과정이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이를 재구성하여 ‘적절한 때’ ‘적절한 대상’에게 ‘적절한 책’을 선택할 수 있게 큐레이션 된 컬렉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국내외 선행된 사례들을 찾아보았다. 이 과정에서 북큐레이션은 생산자(출판된 책)와 소비자(독자)의 중간 매개자(출판사, 서점, 공공도서관, 영유아기관, 독서활동가 등)를 통한 다양한 접촉 국면을 통해 만들어진 질문과 반응을 중심으로 마련되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북큐레이션을 위한 활동은 출판, 유통, 독자 개발의 전과정에서 계획, 실행, 평가되어 순환될 때만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전 사회적인 노력의 결과로 결실을 맺을 수 있음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특히 영유아·어린이 독자들은 태어난 조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의 어린이들은 그들이 알고자 하는 것도, 재미를 느끼는 부분도 다르다. 그들 스스로의 반응을 측정하기란 어렵다. 다만 그들의 양육자와 주변 사회가 그들의 읽기를 향상 시키고 돕기 위한 개별적 노력들이 기울여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여전히 더 많은 영유아·어린이들이 책읽기의 좋은 환경에서 좋은 책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폭 넓어지기를 희망하며 북큐레이션을 활용한 영유아·어린이 독서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국내외 현황과 사례 속에서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점들을 찾아보았다.

국내외 독서진흥 사례들을 통해 영유아 또는 어린이들에게 적절한 책을 제안하고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인 캠페인 전략에 동반되어야 할 기본적인 요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독자와 독서운동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지원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채널과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 (1)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컬렉션 개발 및 주제 큐레이션 서비스

영유아 또는 어린이 독서프로그램은 생애주기 독서계획의 첫 단계로, 독서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고 독서자립을 위한 경로를 안내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한다. 비교적 짧은 시기를 대상으로 하며, 계기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계기성을 극복하고 일상적인 독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읽기 단계에 따라 다양한 흥미를 충족할 수 있는 도서들을 지속적으로 제안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북큐레이션을 매개한 간접적 독서지원이 요구된다.

##### ① 전문가 협업

미래 세대로서 성장할 어린이들에게 제안되는 도서는 변화하는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여 새로운 관점에 의해 지속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도서관, 출판사, 서점, 어린이책 전문가 등 도서의 생산과 유통, 비평에 관여하는 전문가와 어린이들을 직접 만나는 교사 등 양육자 그룹, 주제별 전문가 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주제 컬렉션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차적으로는 읽기 단계에 적합한 어린이 도서의 선정기준과 방법을 구체화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어린이들의 발달을 고려하면서도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한 이슈들을 적극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프랑스의 페이지 가방(Sacs de pages), 아일랜드 아동 도서(CBI)의 캠페인 컬렉션 사례와 같이 어린이들의 흥미를 반영한 주제를 선정하여 진행하는 독서프로그램을 통해 효과적으로 주제 컬렉션을 개발할 수 있으며 목표가 분명한 강력한 캠페인이 동반될 때 주제 도서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고 확장성이 배가된다.

## ② 새로운 출판 영역 발굴

독서진흥 프로그램과 연동한 주제 컬렉션 구축을 위해서는 출판 시장의 다양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새로운 주제에 기반한 독서 캠페인을 발굴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거나, 특별한 요구가 있는 커뮤니티를 위한 출판 영역을 새롭게 개척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미국 퍼스트북(First Book)의 모두의 책(Stories for All Project™) 사례와 같이 독서 운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새로운 수요를 발굴하고, 출판 시장의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호혜적인 관점에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③ 책 선택을 위한 정보와 도구 제공

독자가 책을 선택하는 기준은 매우 다양한 요소에 의해 복합적으로 형성되며, 책 선택을 위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수록 책에 대한 발견성을 높일 수 있다. 독자의 책 선택을 위한 도구로 작가 정보, 수상 정보, 전문가와 독자리뷰, 책의 실제 내용과 분위기를 살펴볼 수 있는 정보 등을 풍부하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앱스코(EBSCO)의 경우 서평DB와 도서관 서지DB를 연동하여 이용자가 도서관에서 검색하는 책에 대해서 서지 정보 이외에 부가적인 정보에 접근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책 추천 사이트(Boekenzoeker.be)와 같이 협력 기관을 통하여 읽기 장애를 가진 독자에 대한 추가적인 서비스(장애인을 위한 오디오 조각 제공 등)를 제공하는 등 활용 가능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독서에 대한 모든 것: 온라인 독서 플랫폼 구축

## ① 독서자원 구축

성공적인 독서진흥 전략의 가장 큰 특징은 책선물과 같은 비교적 단순한 구조의 프로그램과 함께 풍부한 독서자원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해 독서활동을 촉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린이를 위한 책 선택을 비롯하여 다양한 독서활동에 필요한 자원들을 다양하게 제공하여 독자뿐 아니라 아동기관 종사자, 교사, 도서관, 지역사회 파트너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독서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높이고 참여 동기를 고취할 뿐 아니라 개인, 기관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와 매뉴얼, 활동팁과 도구, 마케팅 툴 등을 제공하여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읽기 장애를 가진 어린이를 위한 보조 도구, 모바일앱 등 독서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최소화하고 가능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독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 ② 커뮤니티

독자 또는 독서운동 실행 주체들이 참여하는 커뮤니티를 구축하여 참여자들의 피드백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요구를 파악하여 서비스를 개발하는 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사회적 이슈와 이벤트를 공유하고 지역사회의 특수성에 기반한 독서활동 사례 공유,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자원봉사 모집, 기부 모금 캠페인 등 독자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채널로 활용함으로써 탑다운(Top-Down) 방식의 프로그램이 가지는 일방향성을 보완할 수 있다.

## ③ 아카이빙

북큐레이션은 한 권의 책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과 맥락에서 새롭게 의미를 발견,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며 독자의 관심과 흥미 또는 접근 경로에 따라 발견된 책을 매개로 독서를 확장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컬렉션 구성을 위한 주제 발굴과 함께 다양한 관점에서 생성된 목록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아카이빙하여 독자의 선택지를 폭넓게 제공함으로써 독자 스스로 독서의 지형을 구축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④ 책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과 편의 제공

독서 플랫폼은 궁극적으로 제안되는 책에 대해 독자가 실질적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해외의 독서운동 단체(Reading is Fundamental/First Book)의 경우 캠페인 도서와 온라인 플랫폼에 구축되어 있는 컬렉션에 대해 온라인 서점 또는 자체 마켓과 연동하여 직



접 구매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기도 한다. 미국의 사회정의도서(Social Justice Books)는 독립서점 플랫폼인 <Bookshop.org>과 연결하여 이 링크를 통해 구매한 도서 수익 중 일부가 캠페인 단체에 기부되는 협력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네덜란드 책 추천 사이트(Boekenzoeker.be)는 도서관DB와 연동하여 우편번호를 입력하면 추천 받은 책이 지역의 공공도서관에 있는지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화 기능을 통해 읽고 싶은 책 목록을 저장하거나 이메일로 보낼 수 있으며, SNS 또는 메일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책 팁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도서 플랫폼은 책을 추천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직접 책을 만나고 독서에 진입할 수 있는 경로를 안내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공유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 (3) 독서활성화를 위한 지역독서문화 조성

#### ① 공공도서관

2021년 기준 1,208개관의 공공도서관은 모두 어린이 자료실을 갖추고 있으며 지역 주민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 공간이다. 도서관의 기본 서비스라 할 수 있는 자료 제공 이외에도 독서동아리, 전시와 공연, 작가와의 만남 등 독서 문화 예술 활동이 이루어지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확장해 가고 있다. 특히 어린이실 담당 사서는 초기 독자 형성에 있어 중요한 정보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사서 커뮤니티를 위한 교육과 협력, 다양한 연구 성과 및 정보의 원활한 유통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은 1인 사서가 어린이열람실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고, 장서개발과 어린이 서비스(프로그램과 독서동아리 운영 등) 전반을 책임지는 구조에서 역량을 축적하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일랜드 공공도서관 자폐스펙트럼 컬렉션 개발 사례에서와 같이 주제별 북큐레이션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는 공공도서관 사서들의 협력, 연구와 전문가 자문, 현장에서의 파일럿 프로젝트와 피드백 과정이 담보되어야 한다. 현장에서의 자발적인 활동들을 통합하고, 상호 교류·협력할 수 있도록 지역 단위 사서 커뮤니티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통하여 전문 역량을 축적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② 독서 촉진자(부모, 아동기관 등) 지원

영유아 독서의 특징은 부모 또는 양육자를 매개로 이루어지며, 독서진흥 전략의 핵심 요소로 부모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다. 특히 '자녀의 읽기를 지원할 수 있는' 부모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경제적 지위 또는 양육 환경에 따른 격차가 어린이들의 교육, 사회, 문화적 격차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영국의 북트러스트(Book Trust)의 경우 참여가 낮고, 읽기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양육자,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양육자, 취약 계층 아동의 정서적 문제를 특별히 고려한 컬렉션 개발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유치원 단계부터 공교육 범주에 통합된 프랑스, 네덜란드의 경우는 아동기관의 독서 환경과 교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과 교사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다. 우리나라 역시 0~5세 영유아에 대한 국가수준의 표준보육과정도 도입되고, 보육비 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아동기관의 독서진흥 계획 및 활동이 어린이들의 독서 경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단계에 있다. 따라서 아동기관의 독서 실태에 대한 연구 및 지원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공공도서관과 같이 이미 구축된 지역사회 독서 자원들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부모가 자녀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이 중요하며, 일상에서 실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독려하는 사회적 캠페인이 책 읽는 문화를 이끌어 내는 데 필수적이다. 아일랜드 아동도서(CBI 문화의 밤 2020)의 캠페인 ‘책은 상황을 개선한다’, 뉴욕공공도서관이 125주년을 기념하여 펼친 ‘최소 하루 20분 독서하기’ 캠페인과 같이 간명하면서도 실행 가능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하는 것이 필요하며, 민간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미디어와의 결합 등 재원 마련 및 다양한 전달 채널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 ③ 지역사회 협력(지역에서 함께 읽기)

국가적 수준의 독서진흥 전략은 각 지역 사회의 독특한 특수성과 물리적·문화적 조건에 기반하여 서로 다른 양상으로 구체화된다.

본 연구에서 소개된 <구미 그림책 잔치>는 지역의 공공도서관, 서점, 아동기관, 민간 기업이 협력한 사례로 각각의 주체들이 가진 자원을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지역 책문화생태계를 구축한 사례라 볼 수 있으며, 중랑숲어린이도서관 <1000책읽기> 사업은 독서전문가, 도서관 독서동아리, 주민 등 지역의 독서 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시민 참여를 이끌어 내었다. 네덜란드 모두가 읽는다(iedereenleest)가 추진한 아동 기관의 독서환경 구축 프로젝트는 아동기관과 공공도서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지역사회 유대와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실제 서비스 대상의 구체적 요구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예산 편성, 서비스 개발, 제도화 되어가는 과정 전반에 걸쳐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책문화생태계 구축의 관점에서 출판, 도서관, 독서정책을 논의한 연구<sup>90)</sup>에서도 ‘책문화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과 유기적인 정책 협력을 동인하는 힘은 지역의 풀뿌리 책문화생태계’이며 ‘지역의 출판사, 도서관, 학교, 서점, 독서동아리 등 지역의 책 문화 주체들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 단위 활동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통제하고, 지원할 수 있는 환경 인프라로서 중앙지원의 방향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한편, 협력 시스템 구축은 다양성의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기반이 된다. 국내외 어린이 독서진흥 사례를 통해 볼 때 어린이 대상 북큐레이션 또는 독서 운동의 사회적 가치는 ‘다양성’과 ‘포용성’이라는 지향으로 수렴된다. 어린이들이 사회를 보다 더 잘 배우고,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따라서 도서의 선정, 읽어주기 활동, 책 읽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전 과정에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함으로써 이러한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여러 영역에서 주체를 발굴하고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제언

본 연구를 통해 해외와 국내 북큐레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영유아와 어린이 독서활성화 현황을 살펴보았다. 연구를 진행하는 시기에도 코로나19는 지속적인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현장 방문을 통해 북큐레이션 서가 구성을 보고 담당자와 이용자들의 반응을 살펴 좀 더 활용되는 모습 등을 연구에 풍부히 담지 못한 한계가 있다. 향후 본 연구에서 담지 못한 내용이 지속적인 연구 과정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한다.

첫째, 생애 첫 독서 단계에 진입하는 영유아 시기에 양육자들의 독서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촉진을 위해 독서 실태 조사 영역이 별도로 연구되어야 한다. 국내에서 추진되는 북스타트 운동이 20년간 지역과 대상을 확대되어 안착되어 진행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추적 조사를 통한 영향력에 대한 연구가 지속화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영유아의 출판에 대한 현황 분석과 동향에 대한 자료를 갖추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판사는 도서 발행과 매출 현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추정이 가능하고, 소신 있는 출판을 독려하기 위한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나 현재로서는 개별 출판사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국내 도서 검색과 구매를 추진하는 유통망에서 영유아와 어린이 관련 부분에 대한 대상 연령에 대한 구분과 주제 카테고리 구성, 독자 참여 방식에 대한 통합적인 분석을 통한 현황을 이해할 수 있는 연구가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독서활성화를 위한 북큐레이션의 영역이 사회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시점에서 조사되지 않은 해외와 국내의 사례는 앞으로 더욱 풍부하게 활용되고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운영 사례들에는 국가의 상황과 문화적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으며 좀 더 근본적인 문제 접근을 위한 심도 깊은 이해를 기반으로 분석되지 못한 점이 있음을 밝힌다. 앞으로 북큐레이션을 기반으로 한 대상별 사례들의 깊은 연구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넷째, 북큐레이션은 대상의 이해를 기반으로 창의적으로 상상력이 요구되는 영역이며 문화적 접근을 위한 전문화되고 지속적인 전문인들의 양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북큐레이터 양성 교육에 대한 연구가 추진되어야 한다. 북큐레이션은 통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특히 ‘책’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숙련된 선정 과정을 위해 오랜 시간의 경험이 축적됨을 전제로 할 때 영유아와 어린이책에 대한 이해가 경험으로 쌓일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공공도서

90) 정윤희, <책문화생태계 관점에서의 출판정책>, 도서관정책, 독서정책 비교 연구, 『문화콘텐츠 연구』, 건국대학교 글로벌문화전략연구소, 제15호, 2019

#### 4. 시사점 및 제언

---

관의 어린이 전문사서의 정착, 지역 어린이서점의 확대, 어린이책 작가의 출판 기회 마련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영유아와 어린이의 독서활성화 방안을 찾고자 하는 본 연구의 영역이었으나 다문화와 장애 아동을 위한 독서방안을 찾는 노력에는 연구가 충실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 다문화와 장애 아동 모두 각자의 처한 환경과 어려움이 다르다는 점에서 성실히 그들의 읽기 관련 활동 및 전제가 되어야 하는 요소들을 살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내용에 다 담지 못한 점이 있다. 특별히 다문화와 장애 아동을 위한 읽기 활동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절실하게 필요하고 연구 영역도 세심하게 살펴져야 한다.

## I 참고자료

### 단행본

- 김세실, 『그림책페어런팅』, 한길사, 2021
- 송은경, 『(미국 사서교사 송은경이 들려주는) 도서관의 힘과 독서교육』, 한국도서관협회, 2021
- 이용재, 『도서관 경영전략과 마케팅』, 청람, 2021
- 스티븐 로젠바움, 『큐레이션:정보 과잉 시대의 돌파구』, 명진출판사, 2011
- 마이클 바스카, 『큐레이션:과감히 털어내는 힘』, 예문아카이브, 2016
- 하바 요시타카, 『책 따위 안 읽어도 좋지만: 세계적 북 디렉터의 책과 서가 이야기』, 더난출판사, 2016
- 제인 마운트, 『우리가 사랑한 세상의 모든 책들』, 아트북스, 2019
- 제님, 『그림책의 책: 100개의 주제로 엮은 그림책 북큐레이션 북』, 헤르츠나인, 2020
- 라히마 볼드윈 댄시, 『당신은 당신 아이의 첫 번째 선생님입니다』, 정인, 2016
- 안애경, 『북유럽 학교 핀란드』, 가가날, 2021
- 안애경, 『북유럽 학교 노르웨이』, 가가날, 2021
- 이지유·여현경·이신영, 『취학전 1000권읽기』, 성림주니어북, 2022
- 김미정, 『책과 사람을 연결하는 힘 북큐레이션』, 씽크스마트, 2019

### 문헌자료

- 김준희, 「2021 출판산업실태조사-2020 기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2
- 미래출판전략연구소, 「독자의 도서 발견 채널과 국내외 책의 발견성 강화 동향 연구조사 보고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5
- 조이 코트 외, 「독서는 권리입니다, 어린이청소년서비스 번역자료집 21」,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2018
- 마이클 바스카 외, 「북큐레이션의 힘, 책의해 비전포럼자료집」, 2018
- 공정자, 「안성시립도서관과 함께 1000책읽기」, 안성시립도서관, 2019
- 「IFLA 어린이청소년 분과 뉴스레터」, repository.ifla.org/bitstream123456789/1948/1/ifla\_cya\_newsletter\_spring\_2022.pdf, 2022
- 가이아, 「읽고 쓴다는 것의 새로운 의미」, brunch.co.kr/@literacy/47, 2021
- 청주기적의도서관, 「꼬꼬책박스대출서비스(초등 저학년/고학년 주제별 도서 꾸러미)」, 2022
- 청주기적의 도서관, 「놀고 싶을 땐 '이야기보따리'(영유아가족 - 주제별도서, 도서목록, 책놀이 활동지, 놀이자료)」, 2022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개관 75주년 기념)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서비스 세미나」, www.youtube.com/watch?v=sNij1dHVUYo, 2020
- 김영석 외, 「북큐레이션, 책으로 말을 걸다」, 경기도도서관총서21, 2018
- 이용희, 「비대면 시대의 독서 플랫폼과 책의 발견성」, 출판문화 8월호, 2020
- 이용주 외, 「(특집) 공감하는 북큐레이션」, 학교도서관저널 6월호, 2022

### 논문

- 봉진영·배지희. <예랑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도서대여 프로그램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유아교육보육 복지학회. 2010
- 이중호·장은수. <독자의 도서발견 채널과 국내외 책의 발견성 강화 동향>.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5
- 오세란. <(사)어린이도서연구회와 한국 아동문학-『어린이권장도서목록』을 중심으로>.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7



- 안인자. <국내 어린이 권장도서목록 개발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009
- 김은하. <권장도서목록을 버려야 하는 이유-어린이도서연구회 권장도서목록 비판>. 창비어린이. 2005
- 안찬수. <책읽기, 권장도서, 도서관 그리고 공공성>. 창비어린이. 2005
- 임영심·전순한. <유아교육기관-지역의 공공도서관-가정의 순환적 그림책읽기 활동이 유아의 읽기 태도와 이야기 이해도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2010
- 김수경. <유치원 교실 내 환경으로서 그림책의 배치 및 활용 실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5
- 김수경·김민진. <유치원 도서영역 그림책 현황조사>.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2015
- 전홍주·박선혜·박신영. <유아교육기관의 그림책 제공 실태와 교사의 인식>. 어린이미디어연구. 2015
- 백원근. <북스타트의 효과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1
- 천주영.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도서관의 영유아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최종보고서> [서교연2020-28]2020 위탁연구. 2020
- 홍다운·최연숙.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프로그램에 따른 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2018
- 김민조.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어린이집 부모교육 참여현황 및 요구 조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8
- 최명희·김희진.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의 시대적 변화 추이>. 한국유아교육학회. 2017
- 김태연·이순형. <읽기 매체의 종류에 따른 유아의 이야기 이해도 차이: 종이책과 전자책>. 서울대학교. 2014
- 유구중·이하나. <자유 선택 활동에서 그림책 매체 유형에 따른 유아의 몰입 양상 분석>.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2014
- 권민주. <전자그림책 모드에 따른 유아의 이해도>. 한국독서아카고라학회. 2019
- 박수옥·최나영. <어머니의 그림책에 대한 인식, 유아와의 읽기 상호작용, 유아의 표현 언어능력 간의 관계: 종이책과 전자책의 비교>.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2017
- 이정연.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의 독서역량 강화를 위한 도서관정책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022

## 홈페이지

- www.smartstudy.or.kr, 유구중, 유아교육기관 스마트폰, 태블릿 pc 활용 프로그램
- www.wla.org/wccpba-award, 워싱턴 칠드런스 초이스 그림책상(WCCPBA)
- hackmatack.ca, HackmatackChildren's Choice Book Award
- www.literacyworldwide.org/get-resources/reading-lists/childrens-choices-reading-list, 어린이 선정 도서 리스트
- www.fountaindale.org/books-more/reading-clubs/1000-books-before-kindergarten, 파운틴데일공공도서관, 1000책읽기
- chipublib.bibliocommons.com, 시카고 공공도서관
- www.ansanbo6.or.kr, 안산시육아정보지원센터
- www.ceic.or.kr/toy/sub.php?menukey=217, 천안 애들아 놀자! 대여사업
- www.bookmagic.kr, 경기도사이버도서관
- ies.ed.gov/ncee/wwc/FWW/Results?filters=, Literacy, IES:WWC
- www.smartstudy.or.kr, 유아교육기관:스카프폰 태블릿 PC 활용 그로그램
- www.picturebook-museum.com/user/index.asp, 그림책 박물관
- www.rif.org/, Reading is Fundamental, 미국
- firstbook.org, 퍼스트북 First Book, 미국
- westportlibrary.org, 웨스트포트 공공도서관, 미국
- www.ebsco.com, 엡스코, 미국
- www.naperville-lib.org/248/Books-Reading, 네이퍼빌 공공도서관, 미국
- everychildreadytoread.org, ECRR, 미국도서관협회
- socialjusticebooks.org, 사회정의도서 Social Justice Books, 미국
- diversebookfinder.org, diversebookfinder, 미국
- libraries.dllrcoco.ie, DLR 라이브러리, 아일랜드

www.iedereenleest.be, 모두가 읽는다 iedereenleest, 네덜란드  
childrensbooksireland.ie, 아일랜드 아동도서 (Childrens Books Ireland), 아일랜드  
www.lireetfairelire.org, 읽기와 읽히기 협회 Lire et Faire lire 프랑스, 프랑스  
eduscol.education.fr, , 프랑스 교육부, 프랑스  
www.cultuurconnect.be, Cultuurconnect, 네덜란드  
boekenzoeker.org, 책찾기, 네덜란드  
www.iedereenleest.be, iedereenleest, 네덜란드  
childrenandteens.nlb.gov.sg,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위원회, 싱가포르  
ies.ed.gov/ncee/wwc/FWW/Results?filters=,Literacy, IES:WWC  
www.smartstudy.or.kr, 유아교육기관:스마트폰 태블릿 PC 활용 프로그램  
www.picturebook-museum.com/user/index.asp, 그림책 박물관  
www.morningreading.org, 행복한아침독서